

기본연구 2025-10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for Seafood Products

박혜진 · 홍재범 · 강한애 · 홍승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for Seafood Products

박혜진 · 홍재범 · 강한애 · 홍승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박혜진, 홍재범, 강한애, 홍승표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박혜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홍재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강한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홍승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연구기간	2025. 1. 1. ~ 2025. 10. 31.
-------------	-----------------------------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박혜진 연구총괄, 제1장, 제4장, 제5장, 제6장
내부연구진	홍재범 제2장 제2절, 제3장 제2절
	강한애 제2장 제1절, 제2절
	홍승표 제3장 제1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현수	수협중앙회	비축사업팀	과장
	김현석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현동	국립부경대학교	자원경제학과	교수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김수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장석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러-우 전쟁 등으로 에너지·비료·식품·원자재 가격 급등, 장기 인플레이션, 고금리 및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최근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국내 수산물 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내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는 수급뿐만 아니라 임금 등 본원적 생산요소 가격, 수입품 가격, 환율, 국제 유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준 및 변동성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생산자, 수입업체, 가공 등 식품 공급업체, 소비자 등 유통 단계에 따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조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중심으로 물가 현황 및 변동성을 살펴보고,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수산식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공업체의 가격 결정, 물가 상승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진단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산식품의 판매가를 결정하는 가공업체에서 주요 수산물 원료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판매가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비자 관점에서 이러한 물가 상승 체감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물가 변동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물가 변동의 주요 요인들 변화에 따른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산식품 물가의 변동 현황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물가 관리 정책 사례 분석, 수산식품 물가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수산식품 물가 파급 효과 분석, 해외 수입부터 소비까지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 분석 등 정량적 분석 등을 통해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전략별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수산식품 물가 관리 체계 고도화 및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 안정, 나아가 국민 식생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한 품목별 맞춤형 정책 추진, 수산특화 물가지수 개발 등 지속적인 후속 연구와 신규 정책 발굴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산연구본부 박혜진 전문연구원의 연구책임 아래 홍재범 전문연구원, 강한애 전문연구원, 홍승표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노력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부경대학교 이현동 교수와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명생 명예연구원, 해양수산부 김수정 서기관, 장석준 사무관, 수협중앙회 김현수 과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 보고서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 우리원의 최상희 연구부원장, 마창모 본부장과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 정 희

목차

정책제안 _ i

요약 _ iii

Executive Summary _ xi

01

서론 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및 내용	4
2. 연구 방법	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02

수산식품 물가 변동 및 식품 소비지출 현황 _15

제1절 수산식품 물가 변동 현황	15
1. 수입물가지수	17
2. 생산자물가지수	21
3. 소비자물가지수	30
제2절 수산식품 수급 및 식품 소비지출 현황	39
1. 수산물 생산·교역	39
2. 수산식품 생산 및 원료 소비	43
3. 식품 소비지출 추이 및 엥겔계수	51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56

03 수산식품 물가 관리 사례 분석 및 인식 조사_59

제1절 물가 관리 사례 분석	59
1. 국내 사례	59
2. 해외 사례	67
3. 시사점 : 정책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73
제2절 물가 체감 및 인식 조사	75
1. 수산식품 가공업체	75
2. 수산물 소비자	88
3. 수산물 생산자	10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04

04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 분석_107

제1절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 분석	107
제2절 수산식품 물가 파급효과 분석	108
1. 개요 및 분석 방법	108
2. 분석 결과	111
제3절 수산식품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 분석	114
1. 개요 및 분석 방법	114
2. 분석 결과	11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20

05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_123

제1절 목표 및 기본 방향	123
제2절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	127
1.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127
2. 물가안정사업 고도화 및 포용적 소비 기반 확충	132

3. 해외 원료 수산물 수급 안정 체계 마련	137
제3절 추진 과제별 로드맵 수립 및 기대 효과	141
1. 추진 과제별 로드맵 수립	141
2. 기대 효과	142

06 결론 및 정책제언_143

제1절 요약 및 결론	143
제2절 정책 제언	146
1. 수산식품 물가지수 통계 개선	146
2.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	147
3. 수입 수산물 공급망 연계 물가안정정책 추진	149

참고문헌_151

부록_159

1. 선행연구 현황	159
2. 공급자 물가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표	180
3. 소비자물가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표	183
4. 설문조사 조사 결과 (원산지별 원료 사용 이유, 수입산수산물 단가 변동 요인)	186

표 목차

〈표 1-1〉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3
〈표 1-2〉 연구 방법	9
〈표 1-3〉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표 2-1〉 수산물 관련 물가지수 현황	16
〈표 2-2〉 수입물가지수(산업별)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18
〈표 2-3〉 수입물가지수(농림수산물 및 식료품)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19
〈표 2-4〉 수산물 수입물가지수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20
〈표 2-5〉 생산자물가지수(산업별)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22
〈표 2-6〉 생산자물가지수(농축수산물 및 식료품)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23
〈표 2-7〉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어류)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25
〈표 2-8〉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어류 외)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26
〈표 2-9〉 수산가공품 생산자물가지수(냉동 및 건조)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28
〈표 2-10〉 수산가공품 생산자물가지수(냉동 및 건조 외) 증감률 비교	29
〈표 2-11〉 소비자물가지수(산업별)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31
〈표 2-12〉 소비자물가지수(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32
〈표 2-13〉 수산물(어류 및 연체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33
〈표 2-14〉 수산물(패류·갑각류·해조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35
〈표 2-15〉 수산물 가공품 및 외식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36
〈표 2-16〉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2025년 5월)	38
〈표 2-17〉 대중성 어종 6개 품목 생산량	40
〈표 2-18〉 대중성 어종 6개 품목 수입량	40
〈표 2-19〉 대중성 어종 6개 품목 수출량	41
〈표 2-20〉 대중성 어종 6개 품목 국내 공급량 대비 수입량 비중	43
〈표 2-21〉 수산물 가공 생산량 현황	43
〈표 2-22〉 수산가공품 제품별 생산량	44
〈표 2-23〉 냉동품(원형동결) 품목별 생산량	45
〈표 2-24〉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 조사 대상(수산물 및 수산물 유래 식품 소재 원료) ..	46
〈표 2-25〉 국산 및 수입산 수산물 원료 사용량(2023년)	47
〈표 2-26〉 국산 및 수입산 단가 비교(예시_오징어)	49
〈표 2-27〉 국산 및 수입산 물량 비교(예시_오징어)	50

〈표 2-28〉 국산 및 수입산 수산물 원료 사용 비중(2023년)	50
〈표 2-29〉 가구당 소비지출 추이('20~'24)	52
〈표 2-30〉 소득분위별 식품 소비 지출 추이('20~'24)	54
〈표 2-31〉 소득분위별 수산물 소비 지출 추이('20~'24 연평균)	55
〈표 3-1〉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현황	61
〈표 3-2〉 사업별 사업대상자(업체)	62
〈표 3-3〉 사업별 수매대상 지정 품목	63
〈표 3-4〉 국내 정책 및 사례의 성과 및 한계	74
〈표 3-5〉 수산식품가공기업 물가 체감 인식 조사 개요	76
〈표 3-6〉 주요 가공 원료별 조사 사례 수(수산식품가공기업)	77
〈표 3-7〉 수산식품가공기업 물가 체감 인식 조사 일반 현황	77
〈표 3-8〉 수산가공식품 형태	79
〈표 3-9〉 원료의 원산지별 사용 현황 및 구매단가	80
〈표 3-10〉 최근 3년간 수산식품 가공 원료의 가격 변동 체감(주요 가공 원료 어종)	81
〈표 3-11〉 최근 3년간 수산식품 가공 원료의 가격 변동 체감(주요 가공 원료 외)	82
〈표 3-12〉 전체 원료 구매 비용 중 주요 수산물 원료의 비중	82
〈표 3-13〉 수산가공식품 판매가격 인상 경험 유무	83
〈표 3-14〉 주요 수산물 원료 가격 변동의 최종 판매가격 반영 정도	84
〈표 3-15〉 주요 수산물 원료 가격 변동의 최종 판매가격 반영 시 소요 기간	85
〈표 3-16〉 주요 수산물 원료 외 최종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5
〈표 3-17〉 수입산 수산물 원료의 단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6
〈표 3-18〉 수산물 원료 구매 가격 변동성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 방안	87
〈표 3-19〉 소비자물가 체감 인식 조사 개요	89
〈표 3-20〉 응답자 특성	89
〈표 3-21〉 수산물 및 수산식품 주 구매 장소	92
〈표 3-22〉 전체 소비지출액(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식비 비중	93
〈표 3-23〉 전체 식비 대비 수산물 및 수산식품 구매 비중	94
〈표 3-24〉 수산물 가격 상승 체감 품목	95
〈표 3-25〉 수산식품 가격 상승 체감 품목	95
〈표 3-26〉 수산물 및 수산식품 할인 정책 인식도	100

〈표 3-27〉 주요 가공 원료 사용 현황 조사 결과	104
〈표 4-1〉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	108
〈표 4-2〉 산업연관표의 산업 재분류(38개 부문)	110
〈표 4-3〉 물가 파급효과 유형별 분석 시나리오	110
〈표 4-4〉 수산부문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 파급효과	112
〈표 4-5〉 원유 수입 가격 및 환율 변동의 물가 파급효과	112
〈표 4-6〉 수산부문 생산물 가격변동의 물가 파급효과	113
〈표 4-7〉 자료의 출처	116
〈표 4-8〉 수산식품 CPI와 PPI·IPI 간의 가격전이 분석	118
〈표 4-9〉 고등어 CPI와 PPI, 고등어 CPI와 수산식품 IPI 간의 가격전이 분석	120
〈표 5-1〉 수산식품 물가 변동요인-영향-정책방안 연계표	124
〈표 5-2〉 정책수요자 맞춤형 신규 물가 관리 정책(안)	130
〈표 5-3〉 수산분야 물가안정정책의 성과 및 한계, 개선(안) 제시	133
〈표 5-4〉 수산식품 바우처 사업(안) : 농식품 바우처 사례 활용	136
〈표 5-5〉 해외 원료 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 및 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세부과제	138
〈표 5-6〉 정책과제의 중단기 추진 로드맵	141
〈표 5-7〉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의 기대 효과	142
〈표 6-1〉 수산물 물가안정 관련 법률 신설 또는 개정(안)	14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7
〈그림 2-1〉 수입물가지수(산업별) 추이('00~'24, 월별)	17
〈그림 2-2〉 수입물가지수(농림수산물 및 식료품) 추이('00~'24, 월별)	19
〈그림 2-3〉 수입물가지수(농림수산물 및 식료품) 추이('00~'24, 월별)	20
〈그림 2-4〉 생산자물가지수(산업별) 추이('00~'24, 월별)	22
〈그림 2-5〉 생산자물가지수(농림수산물 및 식료품) 추이('00~'24, 월별)	23
〈그림 2-6〉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어류) 추이('00~'24, 월별)	24
〈그림 2-7〉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어류 외) 추이('00~'24, 월별)	26
〈그림 2-8〉 수산가공품 생산자물가지수(냉동 및 건조) 추이('00~'24, 월별)	27
〈그림 2-9〉 수산가공품 생산자물가지수(냉동 및 건조 외) 추이('00~'24, 월별)	29
〈그림 2-10〉 소비자물가지수(산업별) 추이('00~'24, 월별)	31
〈그림 2-11〉 소비자물가지수(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추이('00~'24, 월별)	32
〈그림 2-12〉 수산물(어류 및 연체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00~'24, 월별)	33
〈그림 2-13〉 수산물(패류·갑각류·해조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00~'24, 월별)	34
〈그림 2-14〉 수산물 가공품 및 외식 소비자물가지수 추이('00~'24, 월별)	36
〈그림 2-15〉 국내산 6대 대중성 어종 생산량 및 비중	42
〈그림 2-16〉 국산 수산물 원료 구매 이유	48
〈그림 2-17〉 수입산 수산물 원료 구매 이유	48
〈그림 2-18〉 엥겔계수('00~'24)	52
〈그림 3-1〉 수산물 수매·비축사업 추진 절차	60
〈그림 3-2〉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절차	62
〈그림 3-3〉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사업추진 체계	66
〈그림 3-4〉 수산물 및 수산식품 선호도	90
〈그림 3-5〉 수산물 및 수산식품 소비 빈도	91
〈그림 3-6〉 수산물 및 수산식품 주 구매 원산지	92
〈그림 3-7〉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 변화 체감	94
〈그림 3-8〉 원산지별 수산물 가격 변화 체감	96
〈그림 3-9〉 원산지별 수산식품 가격 변화 체감	97
〈그림 3-10〉 농축산물 대비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 상승 체감	97

〈그림 3-11〉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 상승 원인(중복 선택)	98
〈그림 3-12〉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 상승 대응(중복 선택)	99
〈그림 3-13〉 수산물 및 수산식품 할인 정책 경험	99
〈그림 3-14〉 대형선망어업의 어업이익 추이(2000-2023)	101
〈그림 3-15〉 고등어 생산량 추이	102
〈그림 3-16〉 고등어 가격(산지, 도매, 소비자)	103
〈그림 4-1〉 수산식품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추이	117
〈그림 5-1〉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제시를 위한 기본 방향	126
〈그림 5-2〉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통합 시스템	132
〈그림 5-3〉 온라인 플랫폼인 ‘마켓컬리’와 ‘해양수산부’ 할인사업 연계 사례	134

약어 목록

- CPI(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 PPI(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
- IPI(수입물가지수): Import Price Index

정책제안

■ 분석 내용 및 방법

1.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해 물가 변동 추이 분석 및 국내외 물가관리 정책 및 사례 분석
 - 수산식품 물가의 변동 현황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국내외 물가관리 정책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기존 정책의 개선 및 도입 가능한 정책 시사점 도출
2. 수산가공업체·수산물 수입업체 등 업계, 소비자, 생산자 대상 물가 체감도 및 인식 조사
 - 공급자(고등어, 오징어, 명태, 참조기, 멸치, 어육살 등의 원료로 가공하는 수산가공업체) 150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물가 결정 및 체감, 인식도, 가격 상승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례조사로 주요 분석 대상인 고등어의 (생산자) 대형선망수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 실시
3.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 및 파급효과와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임금 등 생산요소, 환율, 유가 등 주요 변수 변화가 수산식품 가격과 타산업, 최종수요에 미치는 물가 파급효과를 추정하였고, 비대칭성 가격전이 분석을 통해 유통 단계별 가격 상승·하락 시 가격전이 구조의 비대칭성을 검정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 도출

■ 정책제안

1. 수산식품 물가지수 통계 개선

- 수산식품 물가를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물가지수 품목 표준화 및 세분화, 물가지수의 가중치 개편, 수산 특화 물가지수 개발, 해외 생산부터 국내 소비까지 생산·가격·수출입 등 연계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초 통계 개선 제안

2.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회의 정례화, 데이터 기반 가격 모니터링 분석, 기존의 물가 안정 정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 및 강화, 물가 관리 전담 기관 지정, 법·제도적 정비 제안

3. 수입 수산물 공급망 연계 물가안정정책 추진

- 우리나라의 수산물 공급 측면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내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입 원료 가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한 가격의 변동성 완화 방안 제안

요 약

수산물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박혜진 · 홍재범 · 강한애 · 홍승표

1. 연구의 목적

- 수산물 및 수산물식품의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수산물식품의 물가 변동 추이와 국내외 물가관리정책을 검토하여 수산물식품 물가의 구조적 특성과 관리 현황 분석
- 수산가공업체·수산물 수입업체 등 공급업체와 소비자, 생산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물가에 대한 체감도와 인식 수준을 조사 및 분석
- 수산물식품 물가 변동의 주요 요인과 영향을 파악하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산물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한 추진 과제 제시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선행연구 검토, 통계 자료 분석, 물가에 대한 공급자 및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물가 변동의 주요 요인 및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 가격전이 분석 등 주요 연구 방법 활용

- 문헌 검토를 통해 식품 및 수산물 물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물가 변동 현황, 수산물 수급 및 식품 소비지출 현황, 국내외 물가 안정화 정책 및 사례를 검토하여 이론적·실증적 시사점 도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어업생산동향조사·가계동향조사·소비자물가조사), 한국은행(생산자물가·수출입물가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 조사)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 변동과 식품 소비지출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
- 수산물 가공업체 및 수입업체 등 공급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산물·수산식품 물가 변동에 대한 체감도와 인식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고등어 생산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수행하여 현장의 구체적 애로와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보완적으로 탐색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임금 등 생산요소, 환율, 유가 등 주요 변수 변화가 수산식품 가격과 타 산업, 최종 수요에 미치는 물가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으며, 비대칭성 가격전이 분석을 통해 유통 단계별 가격 상승·하락 시 가격전이 구조의 비대칭성을 검정

2) 정책화 방법

- 전문가 자문 및 결과 검증, 산·학·정 정책협의회 등을 정책화 주요 방법으로 활용
- 수산식품 물가 구조 및 변동성 추이, 물가 변동의 주요 요인 등 파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적용 가능성 검토

-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도 개선 과제, 대응 방안 제시를 위해 업계, 학계,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 개최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수산식품 물가의 변동 현황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한 물가지수 고도화 및 정밀한 물가 관리 체계의 필요성 확인
- 수산식품 물가지수별 변동률,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현황, 수급 및 가공용 원료 소비 현황, 식품 소비지출 추이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물가 변동 및 안정화를 위해 물가지수의 고도화 및 정밀한 물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수입·생산·소비 단계별 물가지수 체계와 품목 구성이 서로 상이하여 단계 간 가격 구조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품목 연계·세분화와 가중치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한 물가지수 고도화 필요
- 수입산 원료 사용은 가격 경쟁력과 대량 납품 가능성이 주요 요인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성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요구
- 엔젤계수 상승은 특히 저소득층의 식품비 부담과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를 키우고 있어, 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과 연계한 소득계층별 취약성 완화 및 저소득층 식품비 경감 대책이 필요
- 국내외 물가관리정책 사례 분석, 수산식품 물가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공급자 조사 결과, 수산가공식품 원가에서 수산물 원료비 비중이 상당히

-
- 높고, 원료 가격 변동이 최종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존재하며, 수입 산의 경우 수입국 생산량이 가격 변동의 최대 영향 요인으로 조사
- 수입산 원료 의존도가 높은 수산가공식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원료 물량·가격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이며, 동시에 인건비 상승이 또 다른 주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나타나 자동화 등 인건비 절감 대책 필요
 - 저소득층은 수산물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수산물 가격 변동에 더욱 취약
 - 수산식품 물가안정화 사업 가운데, 수산물 할인 정책의 경험률은 약 30%에 불과하고, 중요성에 비해 효과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어, 향후 할인 정책의 확대와 홍보 강화가 수산물 소비 기반 유지 및 확대 중요
-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 요인별 파급효과 분석, 수입부터 소비까지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 분석 등 정량적 분석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물가 파급효과 분석 결과, 임금·유가·환율 충격은 주로 양식·가공 부문을 통해 전파되며, 특히 수산가공품은 전후방 연계도가 커 다른 식품·서비스 산업으로 물가 충격을 확산시키는 핵심 경로로 작용
 - 수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가격전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에 빠르고 강하게 전이되는 반면, 하락 충격은 지연·축소 반영되는 비대칭성이 단기·장기 모두 유의하게 확인
 - 고등어 사례에서 수입 가격 및 생산자물가 상승은 단기에 강하게 전가되고, 하락 시에는 소비자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관찰되어, 공급 비용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집중 전가되는 구조
 - 단기적으로 비축 방출, 할당·탄력관세, 공동구매·장기운송 계약, 위기 모니터링, 중장기적으로는 가공단계 원가 절감, 유통 비용 투명화, 경매제 보완·직거래 확대, 수입원 다변화, 장기공급계약, 연료 전환 등 구조적 충격 완화 정책 필요

-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
- 각 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9가지 세부 추진 과제 제시

2) 정책대안 제시 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의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해서 통합적이고 정밀한 물가 안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 제안
- 수산물 어획량, 기후변화,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등 공급 요인으로 인한 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물가지수의 수산품목 확대 및 가중치 개편, 물가 변동이 민감한 품목 지정 및 집중 관리, 물가안정 목표치 설정, 물가지수의 작성과 공표 등 검증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가지수심의회’ 운영 등 전반적인 물가 안정 시스템 구축 필요
- 수산식품 물가안정사업의 고도화와 함께 포용적 소비 기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사업 개선과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 제안
- 기존의 수산물 비축·수매, 상생할인, 할당관세 등 물가 안정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내왔으나,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 설계·운영 측면에서의 강화 및 개선 필요
- 특히 물가 변동성에 취약한 영세 수산식품가공업체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물가 안정 정책 발굴·추진이 필요
- 수산가공식품 관련 조사·통계가 세부 품목별로 미비하여 물가 분석과 정책 설계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공식품 조사 체계의 정교화와 공공 데이터 연계 강화 요구

-
- 즉, 기존 물가안정사업의 체계적 개선과 취약계층·취약산업을 겨냥한 정책 보완,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조사·분석 체계 구축이 수산식품 물가 안정과 소비 기반 확충의 핵심 과제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해외 원료 수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유통 과정의 효율성을 축소하고 가격전이 구조 개선 등의 유통·시장구조 개선 정책 제안
 - 국내산 수산물 원료를 대체하는 수입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원료 가격 단계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국산 및 수입산 수산물 원료 구매 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 등의 재정지원 사업 검토 및 도입이 시급
 - 해외 원료 수입 가격의 변동, 물류비 상승, 환율 불안정 등이 가공업체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해외 원료 수입 및 가공업체를 위한 물가 관리가 필요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등 해외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탄력적 관세 운용,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체 수입국 발굴, 긴급 통관 절차 간소화, FTA 통상 협력 등을 통한 공급 안정화 등이 필요하며, 공급망 안정화 사업과 연계하여 정책 추진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의 정책화를 위한 노력 실시
 - 해양수산부 담당자 사전 협의(2024.12.24.)
 - KMI-해양수산부 수산정책협의회(2025.01.13.)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량적 분석 방법에 관한 전문가 회의(2025.03.26.)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관련 산·학·정 협의회(2025.05.14.)

- 수산식품 물가 파급효과 및 가격전이 분석 결과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2025.09.04.)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관련 정책과제 제시를 위한 업계, 부처 담당자, 전문가 회의 등 수시 개최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 효과

- 수산식품 물가 관리 체계 고도화 및 효율적 정책 수립,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 안정, 나아가 국민 식생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 수산식품 물가변동 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수산식품 공급자 및 소비자의 물가 체감 및 인식 분석 등 정량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과 집행력 강화, 가계 및 산업의 안정성과 후생 증가,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제고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for Seafood Products

HyeJin Park · JaeBeum Hong · HanAe Kang · SeungPyo Hong

1. Purpose

- This study aims to formulate policy strategies for reducing price fluctuations and ensuring price stability of seafood and seafood products.
- Examin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eafood prices and current management systems through analysis of seafood price trends and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ce management policies
- Conducts surveys and analyzes perceptions and awareness levels regarding seafood prices among key stakeholders, including suppliers such as seafood processing companies and seafood importers, as well as consumers and producers
- Identifies key factors and impacts of seafood price fluctuations and quantitatively analyzes their ripple effects to propose policy

tasks for mitigating seafood price volatility and ensuring price stabilization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s

- This study employs key research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data analysis, supplier and consumer surveys on price perceptions, analysis of key drivers and impacts of price fluctuations and their ripple effects, and price transmission analysis.
-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organizes prior research on food and seafood price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urces. The study investigates current price volatility, seafood supply-demand conditions, household food expenditure patterns, and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and practic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These analyses provide both theoretical insights and empirical findings.
- The quantitative analysis uses data from the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Statistics Korea (covering fishery production, household finances, and consumer prices), Bank of Korea (producer and trade price indices), and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raw material consumption patterns). Using these data sources, the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price fluctuations in seafood and seafood

products as well as the structure of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 Surveys are conducted among suppliers, including seafood processors and importers, as well as consumers to assess their perceptions and awareness levels regarding seafood and seafood product price fluctuations. In-depth interviews with mackerel producers are also performed to explore specific field challenges and price formation mechanisms.
- Employing Input-output analysis, the study estimates the price ripple effects of changes in key variables, such as production factors including wages, exchange rates, and oil prices, on seafood product prices, other industries, and final demand. Furthermore,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the asymmetry in price transmission structures across distribution stages during both price increases and decreases.

2) Policy-making Methods

- The research employs expert consultation, result validation, and industry-academia-government policy forums as primary instruments for policy formulation
- Expert advisory meetings were convened to identify the structure and volatility trends of seafood prices and the key factors driving price fluctuations.
- To ensure the validity and robustness of research findings, the study held consultation sessions with relevant experts who

assessed the analytical results and examined their potential for policy implementation.

- Policy forums were held with stakeholders from industry, academia, and government agencie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and response measures for mitigating seafood product price volatility.

3. Result

1) Summary

- This study systematically diagnoses the status and causes of seafood price fluctuations and identifies the need for enhancing price indices and establishing a precise price management system for price stabilization.
- The analysis encompasses variation rates for each seafood price index, consumer price index item weightings, supply-demand dynamics and raw material consumption for processing, and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trends. These finding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price indices and establishing a precise price management system to mitigate price fluctuations and ensure stabilization.
- Price index systems and item compositions differ across import,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s, which limit the analysis of price structures across these stages. This necessitates enhancing price indices through improved item linkage,

segmentation, and weighting methods.

- The use of imported raw materials is primarily driven by price competitiveness and the ability to supply. To address this, domestic seafood competitiveness must be strengthened by improving productivity and reforming distribution structures.
- Rising Engel coefficients increase concerns about food cost burdens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deepening income inequality. This necessitates measures to mitigate income-based vulnerabilities and reduce food costs for low-income households in conjunction with seafood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 The study analyz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ce management policy cases and conducts surveys on stakeholder perceptions of seafood prices. Based on these analyses, it proposes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eafood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 Supplier survey results reveal that raw seafood material costs constitute a substantial proportion of processed seafood production costs. The survey also identifies a time lag in the transmission of raw material price changes to final retail prices. For imported products, production volumes in exporting countries are identified as the primary factor influencing price fluctuations.
- For processed seafood products heavily reliant on imported raw materials, price stabilization requires securing stable raw material supplies at consistent prices. At the same time, escalating labor costs represent another significant factor driving price

-
- increases, calling for labor-saving measures such as automation.
- Low-income households show relatively lower seafood consumption shares, making them more vulnerable to seafood price fluctuations.
 - Among seafood price stabilization initiatives, seafood discount policies have an experience rate of only approximately 30%. Despite their recognized importance, these policies are rated as having low effectiveness, suggesting that expanding discount programs and strengthening promotional efforts are critical for sustaining and growing the seafood consumption base.
 - Quantitative analyses were performed to assess ripple effects of various price fluctuation factors and to examine price transmission patterns across distribution stages from import to consumption
 - Input-output analysis demonstrates that shocks from wages, oil prices, and exchange rates are transmitted mainly through the aquaculture and processing sectors. Given their extensiv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s, processed seafood products act as key pathways through which price shocks spread to other food and service sectors.
 - In the price transmission process from import to final consumption, price increases are transmitted rapidly and strongly to consumer prices, while price decreases are reflected with delays and reduced magnitude. This asymmetr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the short and long term.
 - The mackerel case study shows that import and producer price

increases are transmitted strongly to consumer prices in the short term, while consumer prices exhibit downward rigidity during price declines. This indicates a structure in which rising supply costs are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on consumers.

- A comprehensive policy framework is required to address structural price shocks. In the short term, strategies include releasing stockpiles, implementing tariff quotas and flexible tariffs, establishing group purchasing and long-term shipping arrangements, and strengthening crisis monitoring. For the medium to long term, priorities include reducing processing costs, increasing distribution cost transparency, supplementing auction mechanisms while expanding direct trade, diversifying import sources, securing long-term supply contracts, and transitioning to alternative fuels.
- This study proposes basic directions and policy implementation tasks for mitigating and stabilizing seafood price volatility.
- Based on research findings from each chapter, the study establishes basic directions for seafood price stabilization and presents three major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nine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to achieve these goals.

2) Policy Recommendations and Policy-making Activities

- This study proposes government-level support and investment to mitigate and stabilize seafood price volatility, inclu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and precise price stabilization system.

- A comprehensive price stabilization system is necessary to address volatility from supply factors such as catch volumes, climate change, oil prices, and exchange rates. Key elements include expanding seafood coverage in price indices with revised weightings, designating and intensively managing price-sensitive items, establishing price stability targets, and operating a 'Price Index Review Committee' to ensure objective index compilation and publication.
- Policy recommendations also include advancing seafood price stabilization programs while expanding an inclusive consumption base. This requires both improving existing initiatives and developing new policies to broaden consumer access.
- Existing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such as seafood stockpiling and purchasing, mutual discount programs, and quota tariffs have achieved partial success. However, strengthening and improvement in program design and operation are needed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 Customized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are particularly needed targeting small-scale seafood processing companies and low-income households that are vulnerable to price volatility.
- Existing data collection systems for processed seafood products provide insufficient detail by specific product categories, limiting the reliability of price analyses and evidence-based policy formulation. Addressing this gap requires refining the

processed food survey system and strengthening linkages with public data.

- In other words, core tasks for seafood price stabilization and consumption base expansion include: systematic improvement of existing price stabilization programs, policy supplementation targeting vulnerable groups and industries, and establishment of data-driven precise survey and analysis systems.
- This study recommends reforms to distribution and market structures as essential mechanisms for seafood price stabilization. Key measures include reducing inefficiencies throughout the distribution chain from overseas raw material imports to final consumption and improving price transmission structures.
- To ensure a stable supply of imported seafood raw materials replacing domestic sources,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needed.
- To stabilize seafood prices, securing stability at the raw material price stage is essential. Urgen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reviewing and introducing financial support programs, particularly low-interest loans for purchasing domestic and imported seafood raw materials.
- Fluctuations in overseas raw material import prices, rising logistics costs, and exchange rate instability impose direct financial burdens on seafood processing companies. Therefore, implementing price management frameworks for both raw material procurement and processing sectors is necessary.

-
- When international commodity prices rise and exchange rates fluctuate, overseas supply chains face potential disruption. Contingency measures are essential and should encompass: leveraging existing flexible tariff systems for imported seafood, diversifying import sources to mitigate country-specific dependencies, simplifying emergency customs procedures, and stabilizing supply through FTA trade cooperation. Such interventions must be integrated with comprehensive supply chain resilience programs.
 - The study undertook efforts to translate seafood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into actionable policies;
 - Preliminary consultation with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ficials (Dec. 24, 2024)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vening Fisheries Policy Council (Jan. 13, 2025)
 - Expert meeting on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for developing seafood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Mar. 26, 2025)
 - Industry-academia-government council on research related to seafood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May 14, 2025)
 - Expert meeting to review analysis results of seafood price ripple effects and price transmission (Sep. 4, 2025)
 - Regular meetings with industry representatives, ministry officials, and experts to propose policy tasks related to seafood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3) Expected Outcome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This study contributes to enhancing seafood price management systems, formulating efficient policies, stabilizing seafood prices, and establishing strategic policy directions for national dietary stability.
- This study can be employed as fundamental data for evidence-based policy formulation through its quantitative analyses of seafood price fluctuation factors, ripple effects, and price perceptions among suppliers and consumers.
- Implementing these seafood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is expected to achieve three following objectives: strengthening policy credibility and implementation capacity, improving stability and welfare for households and industries, and enhancing resourc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se combined outcomes would significantly improve polic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25년 2월 기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상승률은 최근 5년 동월 평균('20.2월~'24.2월) 대비 9.3%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10.6%, 수산가공식품은 13.0% 상승하였다.¹⁾²⁾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러-우 전쟁 등으로 에너지·비료·식품·원자재 가격 급등, 장기 인플레이션, 고금리 및 고환율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해 국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국내 수산물 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1)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자료(2020년 2월 ~ 2025년 2월)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2) 소비자물가지수 가운데, 수산물은 갈치, 명태, 조기, 고등어, 오징어, 게, 굴, 조개, 전복, 새우, 마른멸치, 마른오징어, 낙지, 김, 미역, 총 15개 품목을 포함하고, 수산가공식품은 오징어채, 북어채, 어묵, 맛살, 수산물통조림, 젓갈, 맛김, 소금, 총 8개 품목을 포함

국내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는 수급뿐만 아니라 임금 등 본원적 생산 요소 가격, 수입품 가격, 환율, 국제유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준 및 변동성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생산자, 수입업체, 가공 등 식품 공급업체, 소비자 등 유통 단계에 따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조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중심으로 물가 현황 및 변동성을 살펴보고,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수산식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공업체의 가격 결정, 물가 상승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진단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산식품의 판매가를 결정하는 가공업체에서 주요 수산물 원료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판매가 변동은 어떻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소비자 관점에서 이러한 물가 상승 체감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물가 변동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물가 변동의 주요 요인들 변화에 따른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제21대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23개 국정과제 중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과제와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비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산식품(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물가 관리는 농식품과 함께 우리나라 전체 물가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1〉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상어촌	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 해양산업 혁신

자료: 국정기획위원회(2025), p.28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 추이 및 국내외 물가 관리 정책을 살펴보고, 수산가공업체·수산물 수입업체 등 공급업체, 소비자, 생산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물가에 대한 체감도와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산식품 물가 변동의 주요 요인 및 영향을 파악하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한 물가 관리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수산식품 물가 관리 체계 고도화 및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 안정, 나아가 국민 식생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수산분야 물가 관리 품목인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6종과 수입산 및 국산 가공용 원재료를 가공한 수산식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일컬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또는 수산식품이라 재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통계 집계 및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가령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 조사에서 수산물 및 수산물 유래 식품 소재로 분류되고 있는 원료 총 9종 가운데, 소금 및 기타류를 제외한 수산물 범위 6종(명태(동태, 황태), (물)오징어, 김(원초), 마른김, 어육살)에 대한 조사 결과만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와 관련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므로, 수산물 공급에서 양식수산물과 수출품은 제외하였고, 외식 관련 부분도 본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가 관리 품목인 대중성 어종 6종과 수입 가공용 원재료를 활용한 수산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특히, 대중성 어종 6종 중 고등어를 사례로 선정하여, 실제 가격 변동성과 기존 물가 안정 정책의 실효성 및 한계, 그리고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 고등어 수급은 소형어 위주로 어획되어 아프리카 지역에 식용 수출 또는 사료용 가공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내수시장에서는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 크기의 국내 고등어 생산량 감소로 수요 충족을 위해 노르웨이산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해외 쿼터량 감소, 환율 변동, 수입단가 상승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고등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비축 및 방출,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급 및 물가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충격 완화에는 기여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맞춤형 물가 관리 체계 및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 현황, 물가 변동 요인 및 파급효과, 물가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한 물가 관리에 초점을 맞춘 진단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산식품 물가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물가 변동 현황과 식품 소비 지출, 수산물 가공료 원재료 실태 분석, 물가변동 요인 및 영향 분석, 수산식품 공급자 및 소비자에 대한 물가 체감 및 인식 조사를 통해 물가 관리 및 변동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내용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을 제시하고, 수산물 및 농산물 물가 및 수급과 선행 연구를 검토 및 차별성을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산식품 물가 변동 현황을 수입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서 변동성과 증감률을 파악하였고, 소비자물가지

수의 품목별 기준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식품 소비 지출, 수산물 가공용 원재료 등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및 타산업 물가 관련 정책 및 사례를 제시하고, 수산식품 공급자 및 소비자,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물가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생산요소(임금 등), 수입품, 국제유가 및 환율 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 전체 및 산업부문별 물가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산식품의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price transmission) 분석을 통해 수입 원재료 및 수산식품 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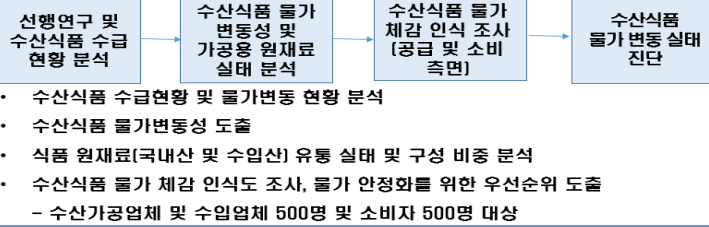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도출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또는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진 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이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연구의 각 장에서 도출된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물가지수 통계 개선, 법·제도 정비, 수입 수산물 공급망 연계 물가 안정 정책 추진 등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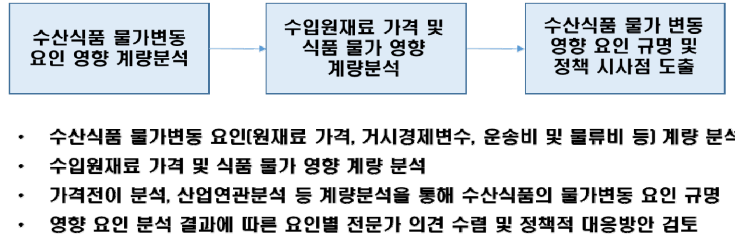
1단계

수산물 물가변동 실태 분석 및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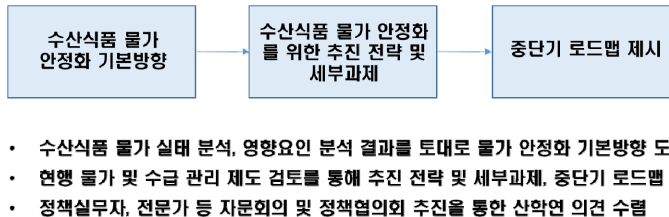
2단계

수산물 물가변동 요인 및 영향 분석



3단계

수산물 물가 안정화를 위한 공급 관리 방안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문헌 검토, 통계 자료 분석, 수산가공업체·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및 생산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 물가 파급효과 및 가격전이 계량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하였다.

식품 및 수산물 물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물가 변동 현황, 수산물 수급 및 식품 소비지출 현황, 국내외 물가안정화 정책 및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가계동향조사·소비자물가조사,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조사·수출입물가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 조사 등을 활용하여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 식품 소비 지출 등을 분석하였다.

수산물·수산식품 물가 변동에 대한 체감 및 인식 조사를 위해 수산물 가공업체 및 수입업체 등 공급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고등어 생산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가 변동의 요인 및 영향, 물가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수산식품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요소(임금 등), 환율, 유가 상승 시의 타 사업과 최종 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였고, 비대칭성 가격전이 분석을 통해 유통 단계별 가격 상승·하락 시 가격의 비대칭 전이 여부를 검정하였다.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강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2〉 연구 방법

구분	세부 내용
문헌 검토	• 식품 관련 물가,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 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물가 안정화를 위한 타 산업 및 해외 정책 사례 조사
통계 분석	• 수산물 및 수산식품 수급 현황 등 통계 조사·분석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 등 • 소비자물가조사, 생산자물가조사, 수출입물가조사 등 물가지수, 식품 소비지출 등 통계 분석(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 조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급자 및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 목적: 수산식품 물가 결정 관련 물가 체감 및 인식 조사 • 대상: 공급자(고등어, 오징어, 명태, 참조기, 멸치, 어육살 등의 원료로 가공 수산가공업체) 150개, 소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대면 및 전화) • 공급자 및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주요 내용 - (공급자) 원산지(국산/수입산)별 수산물 원료 사용 현황, 수산물 원료 가격 변동 체감 정도, 수산물 원료 가격 변동에 따른 최종 판매 제품 가격 인상 경험 및 인상을, 가격 반영 기간, 원료 구매 가격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 - (소비자) 수산물(원물) 및 수산식품(가공) 구매 및 원산지(국산/수입산)별 소비 현황, 수산물(원물) 및 수산식품(가공) 가격 변화 체감에 대한 인식, 가격 상승시 대응 방안, 정부의 할인 정책 경험 유무 및 중요성·효과 인식
심층면접조사	• (생산자) 대형선망수협 담당자 심층면담 조사
물가 파급효과 및 가격전이 분석	• 목적: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 물가 파급효과 및 가격전이 분석 • 수산식품의 물가 파급효과 분석 - 대상: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수산어획, 수산양식, 수산가공) - 방법 및 분석 내용: 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원가 구성 및 품목 간의 물가 영향 경로 파악, 물가의 결정요인 및 영향 정도 도출 • 수산식품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 분석 - 대상: 수산식품, 수산가공식품의 CPI, IPI, PPI, 물가관리품목(고등어) 및 주요 수산가공식품의 CPI, IPI, PPI - 방법 및 분석 내용: 비선형 ARDL 모형 활용, 200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별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원료 수입 및 생산 단계부터 유통 및 가공, 소비 단계까지의 물가 변동 시 물가전이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산·학·정 협의회	• 물가 변동성 추이 및 물가 구조, 물가 변동의 요인 등 전문가 사전 자문 •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 물가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및 결과 검증에 위한 전문가 자문(분석 결과 검증) • 물가안정화방안 제시를 위한 산·학·정 정책협의회 개최(1월, 6월, 9월, 10월) - 대상: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학계, 업계 심층 면담 조사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1)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분석은 건설, 철도, 에너지,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윤영선(1990)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 건설 부문의 생산원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추적하였고, 김신표(2000)는 도시철도 운임 변동이 산업별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농식품의 경우, 이용건 외(2022)에서 수입곡물의 가격 상승 시 가공식품 및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업별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공급 지장 시 물가 상승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고 있는데, 김창길·정학균·김태훈(2011) 연구에서는 농림수산식품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수산부문에서는 김현용·강연실(2001)의 연구에서 국제유가 인상이 근해 어업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현동(2011)에서 수산부문 물가 파급효과를 다양한 가격 변동 요인별로 추정하였으며, 수산부문은 다른 1차산업에 비해 유가 및 환율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산부문의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 가격전이 분석

식품물가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수입 식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용선 외(2011)는 가격지수의 변동률과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물가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 규명하였으며,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화가 가공식품 가격 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그 전이 시차를 추가로 추정하였다.

황의식·황운재·김태이(2012)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GARCH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가공식품 물가의 변동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VECM 모형을 이용해 거시경제 변수와 식품물가지수 간 인과성을 검정하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각각의 변수 충격이 식품물가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가공식품 물가 변동은 국제 식품 원료 가격의 변동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2020)는 비선형 ARDL 모형을 활용하여 수입 곡물 가격의 변동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수입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유의하게 상승하는 반면,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비대칭적 전이 구조가 확인되었다.

김종진 외(2023)는 농식품 물가의 특성과 결정 메커니즘, 그리고 가격 변동의 파급효과를 규명하여 물가 안정 정책과 공급망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표와 비선형 ARDL 모형을 활용해 공급망 각 단계에서의 가격전이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농식품 물가 결정구조와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 물가

안정과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국내외에서 농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 변동성과 전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세부 품목에 한정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식품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생산요소 가격, 수입산 가격, 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기후변화 등 개별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가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식품 물가 안정화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수산분야에는 일부 어종에 대한 연구만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전반적인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분석 및 물가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산식품의 물가 결정 요인 및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산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요소(임금 등), 수입 수산물, 환율 및 유가 등의 변동이 경제 및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수산가공업체·수산물 수입업체와 소비자 대상으로 수산식품 물가에 대한 체감 및 인식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했으나, 본 연구는 물가 관리 품목인 대중성 어종 6종과 수산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물가 변동에 대한 요인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및 세부 과제를 제안하여 정책적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표 1-3〉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주요 선행연구		본 연구
	요약	참고문헌	
연구 목표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의 변동성과 전달 메커니즘을 분석, 가격 안정화와 물가 관리 방안을 모색 - 가격 변동 요인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 김종진 외(2023) - Osei-Asare·Eghan (2013) - 박철형·최치훈(2015) - 박미성 외(2023)	- 수산식품 물가 변동의 요인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한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제시
연구 대상	- 곡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속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분석 - 특정 국가 또는 대륙별 사례 중심 분석	- 황의식·황윤재·김태이(2012) - 김철현·남종오(2018) - 이수진(2012) - F Asche, RE Dahl, M Steen (2015)	수산물 물가 관리 품목(대중성 어종 6종) 및 주요 수산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화 방안 마련
연구 범위	환율, 국제 원자재 가격, 기후변화 등 다각적인 요인 포함	- Jongwanich-Park (2011) - 김덕파·어윤종(2022) - 국승용 외(2021) - 석준호 외(2023)	수산식품 물가 변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주요 품목별 식품 소비 지출 변화, 식품 원료의 원산지별 유통 실태 파악, 식품 물가 변동 추이 및 변동성 분석
연구 방법	GARCH, VECM, VAR,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 등 다양한 계량 분석 기법 활용	- 김종진 외(2023) - 고봉현(2007) - Jongwanich-Park (2011) - Osei-Asare·Eghan (2013) - 문영찬(2017) - 정겨운·김봉태(2021)	- 수산식품 물가 변동에 대한 공급업체 및 소비자 대상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 - 비대칭적 ARDL 모형을 활용한 가격전이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물가 결정 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자료: 저자 작성

02

수산식품 물가 변동 및 식품 소비지출 현황

본 장에서는 수산식품 물가의 변동 현황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한 물가지수 고도화 및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단계별 수산식품 물가지수의 변동성,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성 및 가중치 현황, 수산물 수급 및 원료 소비 등 구조적 특징을 검토하고, 소득계층별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절 수산식품 물가 변동 현황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성은 생산, 소비 등 각 단계에서 계측되는 물가지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수입물가지수(IPI),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해 전반적인 변동성을 살펴보고, 수산물 품목별 물가 변동성 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 품목은 수입물가지수는 237개, 생산자물가지수는 886개, 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개로 차이가 있다. 이 중 수산식품은 수입물가지수는 3

개, 생산자물가지수는 28개, 소비자물가지수는 24개이다. 지수산식도 수입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연쇄 가중 로우식, 소비자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 산식으로 차이가 있다.

세 가지 물가지수에 대해 수산식품 품목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과 변동계수 분석을 통하여 물가 변동성을 파악해 보았다.

〈표 2-1〉 수산물 관련 물가지수 현황

구분	수입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명	수출입물가조사	생산자물가조사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통계		
법적근거	한국은행법 제 86조 통계법 18조 (승인번호 제301004호)	한국은행법 제 86조 통계법 18조 (승인번호 제301002호)	통계법 18조 (승인번호 제101007호)
조사목적	수입상품의 국제가격 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거나 수출입 관련 업체들의 수출 채산성 변동 및 수입 원가 부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해 가격 측면에서의 대외교역조건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	국내 생산자가 생산·출하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함으로써 수급 상황 파악, 경기동향 판단 지표 및 디스플레이터 등으로 이용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정부 재정, 금융정책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 가계수지, 국민소득계정 등 다른 경제지표의 디스플레이터로 사용
조사주기	월		
통계작성기관	한국은행	한국은행	통계청
조사대상	총 237개 품목	총 886개 품목	총 458개 품목
수산식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8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외식 24개

자료: 국가데이터처, 통계설명자료(검색일: 2025.3.20.)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1. 수입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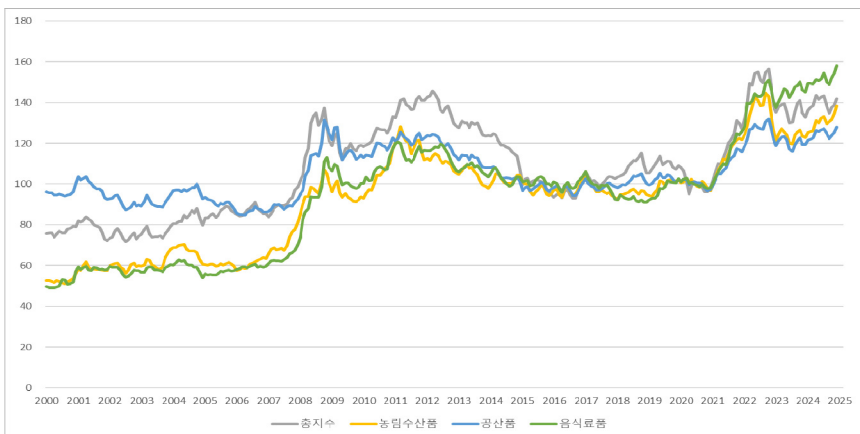
수입물가지수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5%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2000년대에는 연평균 4.9%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에는 연평균 1.4%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2020년대에 연평균 8.7% 상승하여 다시 반등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공산품(음식료품 포함)과 수입물가지수는 연평균 1.1% 상승하여 전체 수입물가지수 증가율을 하회하였는데, 농림수산품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전체 수입물가지수 증가율을 상회하였고, 공산품에 속하는 음식료품 수입물가지수도 연평균 증가율이 4.6%로 높게 나타났다. 총 지수를 비롯해 공산품,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모두 2020년대에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변동성은 총 지수는 0.21이었으며, 공산품(0.12)보다 농림수산물(0.26)과 음식료품(0.31)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 수입물가지수(산업별)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자료: 한국은행, 수출입물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2〉 수입물가지수(산업별)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구분		총 지수	농림수산물	공산품	음식료품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2.5	3.9	1.1	4.6
	변이계수	0.21	0.26	0.12	0.31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4.9	6.8	2.3	8.0
	변이계수	0.19	0.22	0.11	0.26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1.4	0.4	1.5	1.0
	변이계수	0.13	0.08	0.09	0.07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8.7	6.9	5.7	11.0
	변이계수	0.14	0.11	0.09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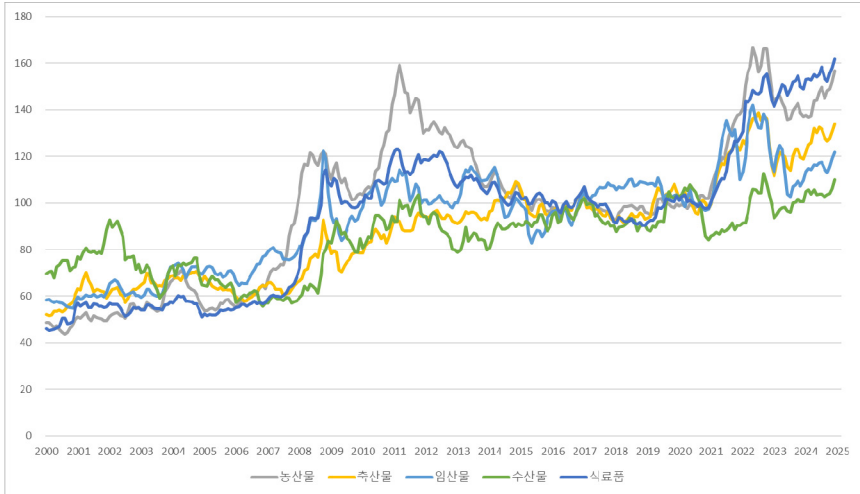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농림수산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농산물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의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대에는 농산물과 축산물은 6% 이상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이 나타났다. 공산품에 속하는 식료품은 연평균 5.0%씩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0년대에도 11.6%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이 나타났다.

변동성은 농산물(0.33), 축산물(0.25), 임산물(0.23), 수산물(0.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료품도 0.3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그림 2-2〉 수입물가지수(농림수산물 및 식료품)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자료: 한국은행, 수출입물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3〉 수입물가지수(농림수산물 및 식료품)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구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료품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4.8	3.6	3.0	1.6	5.0
	변이계수	0.33	0.25	0.23	0.16	0.33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9.7	3.8	5.4	1.8	8.7
	변이계수	0.34	0.11	0.19	0.14	0.28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1.9	2.1	0.1	0.7	1.1
	변이계수	0.15	0.06	0.07	0.06	0.08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9.9	6.5	3.8	1.2	11.6
	변이계수	0.16	0.10	0.11	0.08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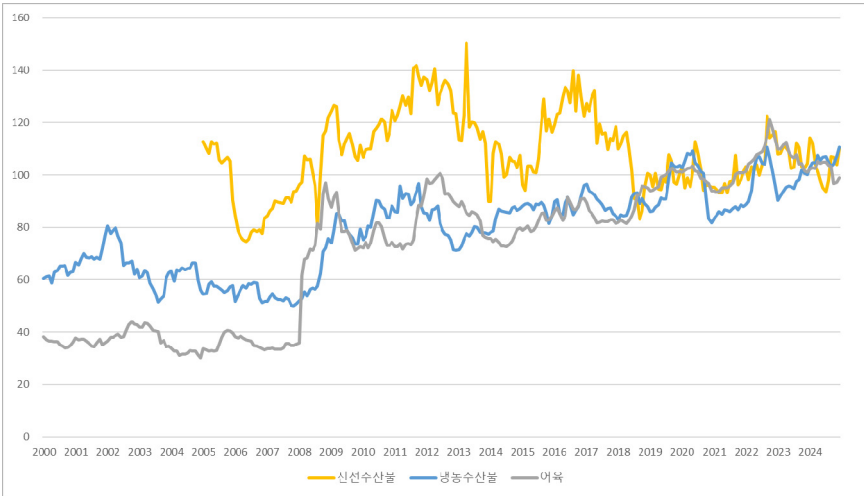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신선수산물, 냉동수산물, 어육 세 개 품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체 기간 동안 어육의 연평균 증가율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냉동수산물은 2.2%로 나타났다. 신선수산물은 연평균 0.2%씩 하락하여 완만한 추세를 보였다. 어육의 경우에는 특히 2000년대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대에는 안정적인 증가세가 나타났다.

변동성은 어육(0.37), 냉동수산물(0.20), 신선수산물(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수입물가지수(농림수산물 및 식료품)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주: 수입물가지수 중 신선수산물은 2005년부터 제공됨
 자료: 한국은행, 수출입물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4〉 수산물 수입물가지수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구분		신선수산물	냉동수산물	어육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0.2	2.2	4.5
	변이계수	0.14	0.20	0.37

구분		신선수산물	냉동수산물	어육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1.7	2.6	9.3
	변이계수	0.15	0.14	0.40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1.7	1.3	3.0
	변이계수	0.12	0.07	0.10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0.9	1.4	0.6
	변이계수	0.07	0.09	0.06

주: 수입물가지수 중 신선수산물은 2005년부터 제공됨
자료: 저자 작성

2. 생산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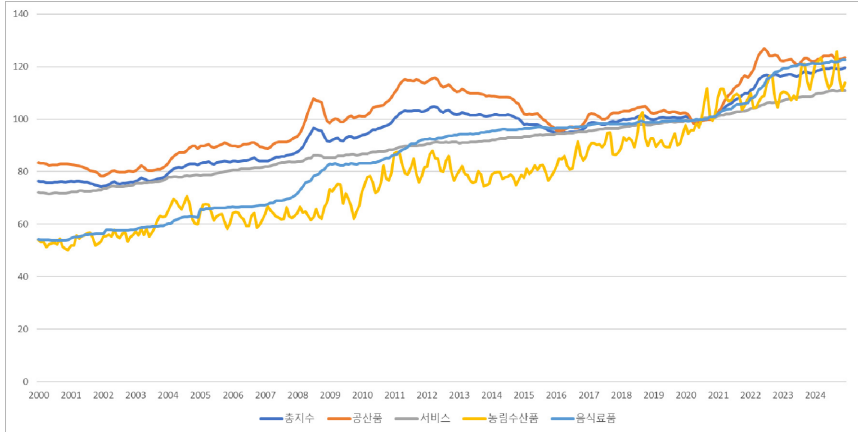
생산자물가지수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0%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2000년대 2.2%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에는 비교적 안정화된 추이가 나타났는데, 2020년대에 다시 반등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공산품(음식료품 포함)과 서비스 부문 생산자물가지수는 연평균 각각 1.7%, 1.9%씩 상승하여 전체 생산자물가지수 증가율을 하회하였는데, 농림수산품의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전체 생산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음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도 연평균 증가율이 3.4%로 높게 나타나 농림수산품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총 지수를 비롯해 공산품, 서비스, 농림수산품 모두 2020년대에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 동안 변동성은 총 지수는 0.13이었으며, 농림수산품(0.24)이 공산품(0.13) 및 서비스(0.12) 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도 농림수산품과 비슷한 수준(0.23)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대의 변동성은 공산품(0.0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림수산품(0.07), 서비스(0.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생산자물가지수(산업별)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5〉 생산자물가지수(산업별)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구분		총 지수	공산품	서비스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1.9	1.7	1.8	3.4	3.4
	변이계수	0.13	0.13	0.12	0.24	0.23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2.2	2.1	2.0	3.3	4.9
	변이계수	0.08	0.09	0.06	0.10	0.14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0.5	0.2	1.3	2.0	1.9
	변이계수	0.03	0.05	0.04	0.08	0.05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4.5	5.4	2.5	4.1	5.0
	변이계수	0.07	0.08	0.04	0.07	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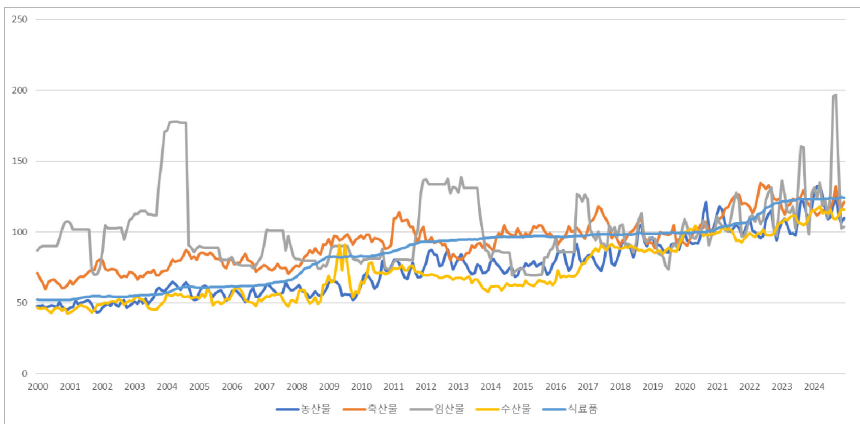
농림수산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기간 동안 수산물과 농산물의 연평균 증가율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축산물, 임산물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동성도 수산물이 0.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산물(0.28), 임산물(0.24), 축산물(0.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과 축산물은 2000년대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2010년대는 약화되었다가

2020년대에 다시 상승세가 강화되었다. 반면, 농산물과 임산물 은 2020년대에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은 전체 기간 동안 연평균 3.7%씩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가 2010년대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2020년대에 다시 상승하여 수산물, 축산물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그림 2-5〉 생산자물가지수(농림수산물 및 식료품)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6〉 생산자물가지수(농축수산물 및 식료품)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구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료품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3.9	2.6	1.5	3.9	3.7
	변이계수	0.28	0.18	0.24	0.29	0.25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2.5	4.4	0.9	4.9	5.3
	변이계수	0.10	0.12	0.26	0.15	0.15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3.1	0.2	1.1	2.4	1.9
	변이계수	0.11	0.08	0.22	0.14	0.05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4.4	4.2	7.7	3.3	5.4
	변이계수	0.10	0.09	0.18	0.07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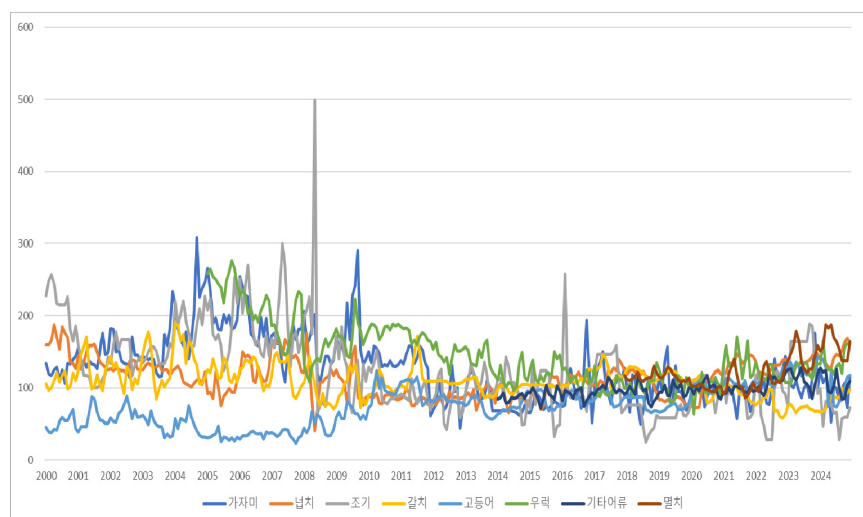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생산자물가지수 중 수산물 세부 품목 28종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어류 품목 가자미, 넙치, 조기 등 8종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등어, 멸치, 기타어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류는 2000년 이후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대에는 가자미, 조기, 갈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류의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은 조기(0.46), 고등어(0.37), 가자미(0.36), 우럭(0.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멸치(0.19), 기타어류(0.12) 등은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어류)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주: 생산자물가지수 중 우럭은 2005년, 기타어류는 2014년, 멸치는 2018년부터 제공됨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7〉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어류)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

구분		가자미	넙치	조기	갈치	고등어	우럭	기타 어류	멸치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1.1	0.4	4.8	1.1	3.1	3.1	2.0	5.7
	변이계수	0.36	0.23	0.46	0.21	0.37	0.30	0.12	0.19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4.2	4.4	6.2	0.9	2.8	9.0		
	변이계수	0.24	0.21	0.34	0.21	0.31	0.22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3.5	0.6	5.6	1.5	3.0	6.4	2.3	0.3
	변이계수	0.30	0.17	0.36	0.12	0.16	0.24	0.10	0.05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0.5	9.9	10.0	4.1	1.1	8.4	1.5	12.6
	변이계수	0.20	0.16	0.41	0.17	0.14	0.16	0.12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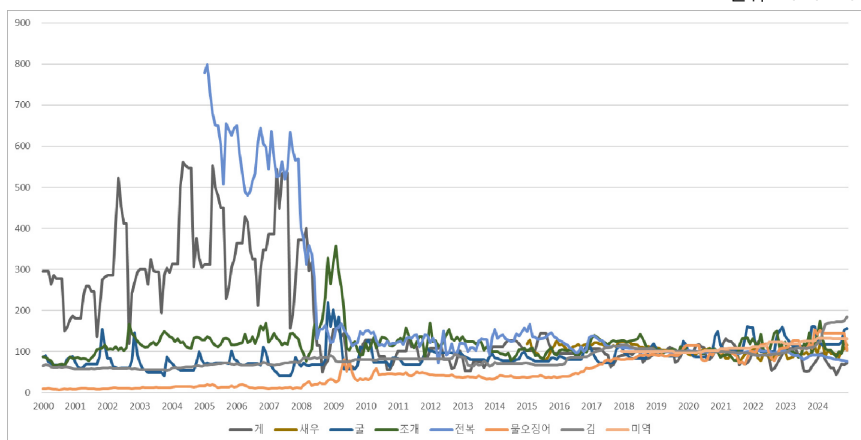
주: 생산자물가지수 중 우럭은 2005년, 기타어류는 2014년, 멸치는 2018년부터 제공됨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어류 외 수산물 8종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살펴보았다. 어류 외 품목에는 갑각류 및 패류 5종, 연체류 1종, 해조류 2종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생산자물가지수가 가장 상승한 품목은 물오징어로 연평균 12.3%씩 증가하여, 어류를 포함한 전체 수산물 중 가장 높은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역, 김, 굴, 조개 순으로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20년대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김과 물오징어로 나타났다. 반면, 전복은 연평균 -10.3%씩 감소하여 가장 크게 하락한 품목이었으며, 그 외 게, 새우도 감소한 품목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은 전복(0.92), 물오징어(0.78), 게(0.73)가 어류를 포함한 전체 수산물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은 2000년대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후 5% 이하의 비교적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물오징어는 200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0년 이후에는 8%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미역(0.11)과 새우(0.12)는 변동성이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어류 외)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주: 생산자물가지수 중 새우는 2015년, 전복은 2005년, 미역은 2018년부터 제공됨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8〉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어류 외)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구분		게	새우	굴	조개	전복	물오징어	김	미역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5.0	0.1	2.1	1.7	10.3	12.3	4.0	4.8
	변이계수	0.73	0.12	0.31	0.29	0.92	0.78	0.27	0.11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8.8		3.4	10.1	32.2	19.9	2.5	
	변이계수	0.44		0.40	0.39	0.50	0.73	0.14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0.1	0.1	1.4	1.8	3.0	8.9	2.5	0.5
	변이계수	0.20	0.10	0.16	0.15	0.15	0.39	0.18	0.01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8.3	0.3	5.7	3.4	4.3	9.0	12.8	7.1
	변이계수	0.25	0.10	0.19	0.18	0.08	0.20	0.24	0.10

주: 생산자물가지수 중 새우는 2015년, 전복은 2005년, 미역은 2018년부터 제공됨
자료: 저자 작성(검색일: 2025.0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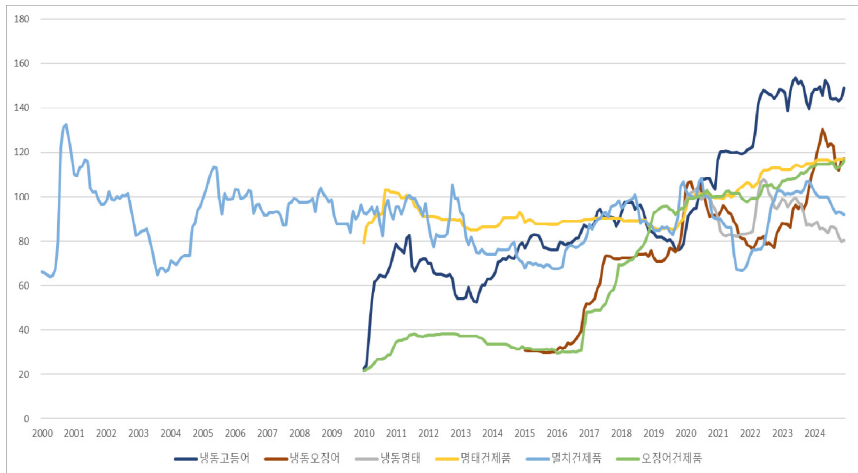
다음으로 수산가공품류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살펴보았다. 냉동 및 건조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냉동 고등어, 냉동 및 건조 오징어, 냉동 및 건조 명태

등 6개이다. 오징어 냉동품과 건제품이 연평균 각각 16.5%, 11.1%로 가장 큰 증가세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냉동 고등어, 명태 건제품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멸치 건제품은 1% 미만의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냉동 명태는 연평균 4%씩 감소하였는데, 명태 건제품은 연평균 1.6%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동성은 오징어 건제품이 0.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냉동 오징어(0.35), 냉동 고등어(0.33), 멸치 건제품(0.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건제품과 냉동 오징어는 앞서 살펴본 물오징어(0.78)보다는 완만한 변동성을 보였으나, 2010년대 연평균 증가율은 물오징어보다 오징어 건제품과 냉동 오징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수산가공품 생산자물가지수(냉동 및 건조)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주: 생산자물가지수 중 냉동고등어·명태건제품·오징어건제품은 2010년, 냉동오징어는 2015년, 냉동명태는 2020년부터 제공됨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9〉 수산가공품 생산자물가지수(냉동 및 건조)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구분		냉동 고등어	냉동 오징어	냉동명태	명태 건제품	멸치 건제품	오징어 건제품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7.2	16.5	4.0	1.6	0.2	11.1
	변이계수	0.33	0.35	0.09	0.10	0.15	0.51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0.2	
	변이계수					0.16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4.1	25.6		0.9	0.4	15.3
	변이계수	0.18	0.35		0.05	0.12	0.47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10.1	4.7	4.0	3.9	0.7	3.4
	변이계수	0.15	0.15	0.09	0.06	0.13	0.06

주: 생산자물가지수 중 냉동고등어·명태건제품·오징어건제품은 2010년, 냉동오징어는 2015년, 냉동명태는 2020년부터 제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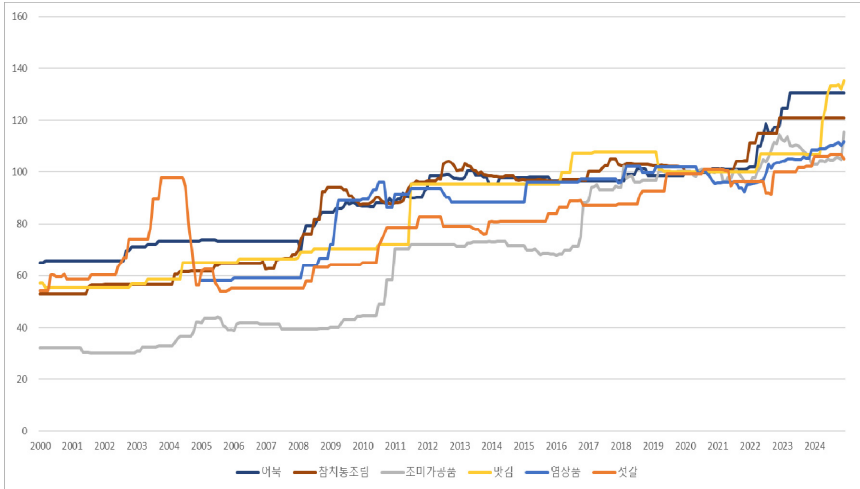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냉동 및 건조 외 수산가공품은 어묵, 참치 통조림 등 6개가 있다. 조미가공품은 연평균 5.1%씩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참치통조림, 염장품, 맛김, 어묵, 젓갈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대에는 어묵의 연평균 증가율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맛김, 참치통조림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은 조미가공품(0.42), 맛김(0.245), 참치통조림(0.243), 젓갈(0.21), 어묵(0.19), 염장품(0.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미가공품은 2010년대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가 2020년대에는 비교적 완화된 증가율을 보였으며, 반면 어묵은 2010년대까지 비교적 완만하던 증가세가 2020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수산가공품 생산자물가지수(냉동 및 건조 외)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주: 생산자물가지수 중 염장품은 2005년부터 제공됨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10〉 수산가공품 생산자물가지수(냉동 및 건조 외) 증감률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구분		어묵	참치 통조림	조미 가공품	맛김	염장품	젓갈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2.9	3.5	5.1	3.4	3.4	2.6
	변이계수	0.19	0.24	0.42	0.24	0.18	0.21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3.2	6.3	3.1	2.6	10.2	1.2
	변이계수	0.09	0.19	0.13	0.09	0.17	0.19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1.3	1.6	8.2	4.0	1.2	3.5
	변이계수	0.04	0.05	0.19	0.12	0.05	0.09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6.9	4.9	1.3	5.7	2.4	1.5
	변이계수	0.12	0.08	0.05	0.10	0.05	0.04

주: 생산자물가지수 중 염장품은 2005년부터 제공됨

자료: 저자 작성

3. 소비자물가지수

1) 변동성 및 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5%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2000년대에 3.2%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에는 연평균 1.6%의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에서 2020년대 연평균 3.4% 증가율로 반등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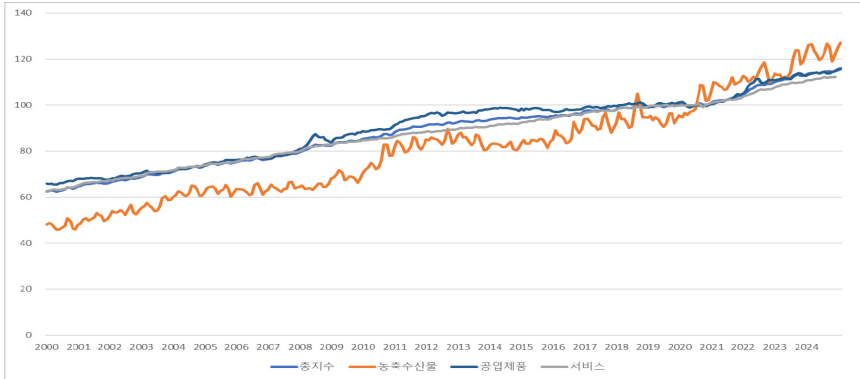
2000년 이후 농축산물은 연평균 4.0%씩 증가하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산업부문 중 가장 큰 증가세가 나타났다. 농축산물은 2010년대에 비교적 물가지수가 안정화되었다가 2020년대에 다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서비스는 연평균 2.4%, 공업제품(가공식품 포함)은 2.3%의 증가율로 전체 소비자물지수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슷하거나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제외하고 총 지수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2020년대에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기간 동안 변동성(변이계수)³⁾을 나타내는 총 지수는 0.16이었으며, 농축수산물(0.26)에 비해 공업제품(0.16), 서비스(0.15) 부문의 변동성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의 변동성도 농축수산물이 0.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추세를 가지는 변수의 변이계수는 평균값에서 멀어질수록 편차가 커지므로 측정 기간이 커짐에 따라 변이계수도 커져 동일 기간 간 비교만 유효함

〈그림 2-10〉 소비자물가지수(산업별)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11〉 소비자물가지수(산업별)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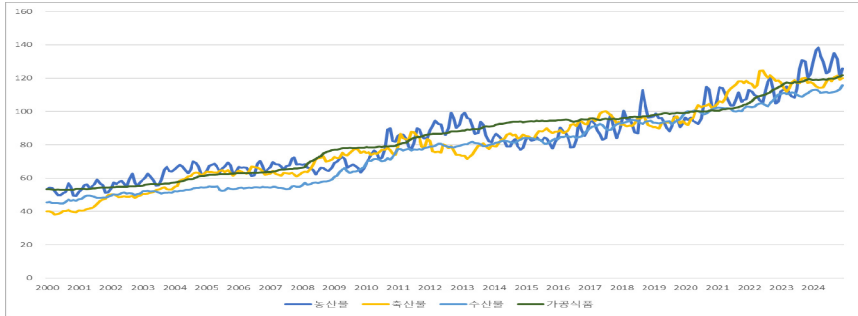
구분		총지수	농축수산물	서비스	공업제품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2.5	4.0	2.4	2.3
	변이계수	0.16	0.26	0.15	0.16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3.2	4.2	3.1	3.0
	변이계수	0.09	0.11	0.09	0.09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1.6	2.4	1.8	1.3
	변이계수	0.04	0.07	0.05	0.03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3.4	5.3	2.8	3.3
	변이계수	0.05	0.07	0.04	0.05

자료: 저자 작성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기간 동안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의 순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은 연평균 3.4% 증가하였다. 축산물과 농산물은 2000년대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농산물은 2020년대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변동성은 축산물(0.283), 수산물(0.276), 농산물(0.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은 0.24로 나타났다.

〈그림 2-11〉 소비자물가지수(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12〉 소비자물가지수(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3.9	4.6	3.8	3.4
	변이계수	0.25	0.28	0.28	0.24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3.0	7.3	3.8	4.4
	변이계수	0.10	0.19	0.09	0.13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2.2	2.3	3.1	2.5
	변이계수	0.09	0.09	0.08	0.07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6.7	4.1	3.0	4.6
	변이계수	0.10	0.07	0.05	0.07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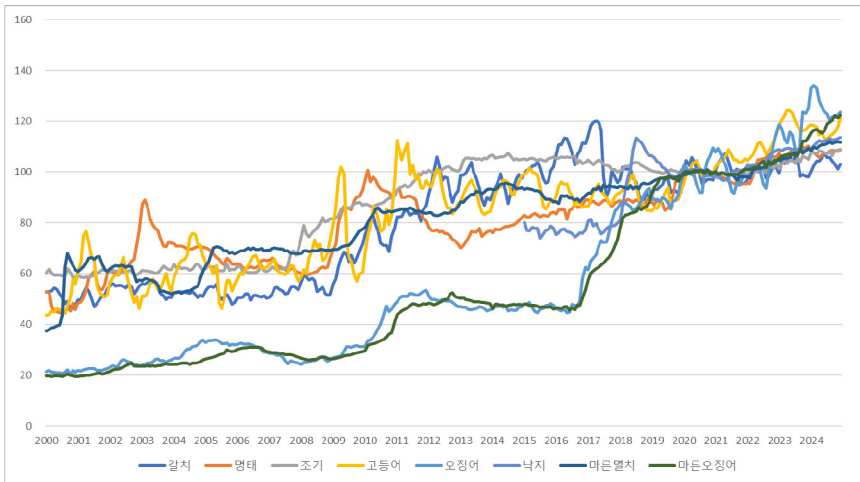
총 23개의 품목별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어류 및 연체류 품목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8개 품목이 포함된다. 어류 및 연체류 소비자물가지수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오징어와 마른오징어가 모두 7.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낙지, 고등어, 명태, 마른멸치, 갈치, 조기, 낙지 등의 순이었다. 오징어와 마른오징어는 특히 201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0년대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갈치, 명태, 조기, 고등어, 마른

멸치는 2000년대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은 마른오징어(0.59), 오징어(0.58), 갈치(0.28), 고등어(0.25), 조기(0.22), 마른멸치(0.21), 명태(0.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수산물(어류 및 연체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주: 소비자물가지수 중 낙지는 2015년부터 제공됨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13〉 수산물(어류 및 연체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구분		갈치	명태	조기	고등어	오징어	낙지	마른멸치	마른오징어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3.1	3.5	2.5	3.8	7.7	4.2	3.4	7.7
	변이계수	0.28	0.20	0.22	0.25	0.58	0.14	0.21	0.59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2.9	6.7	4.0	5.3	3.8		4.3	3.9
	변이계수	0.09	0.17	0.13	0.17	0.15		0.14	0.14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2.4	0.5	1.4	1.0	9.4	7.0	1.7	12.3
	변이계수	0.11	0.08	0.05	0.08	0.31	0.15	0.05	0.33

구분		갈치	명태	조개	고등어	오징어	낙지	마른 멸치	마른 오징어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1.0	1.9	1.9	3.9	5.9	2.9	2.6	4.3
	변이계수	0.03	0.05	0.03	0.07	0.11	0.05	0.05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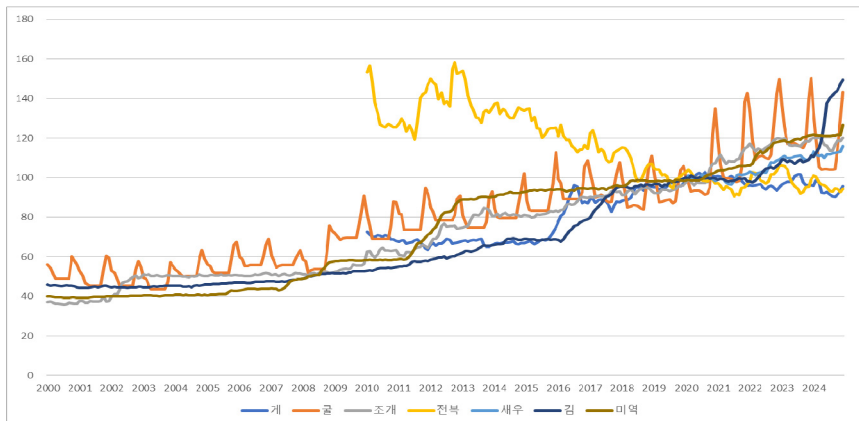
주: 소비자물가지수 중 낙지는 2015년부터 제공됨
자료: 저자 작성

수산물 품목 중 패류, 갑각류, 해조류인 품목에는 게, 전복, 김 등 총 7개 품목이 포함된다. 전복을 제외한 7개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조개, 미역, 김, 굴 등의 순이었다. 해조류(김, 미역)은 201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0년대까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전복은 2010년대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변동성은 미역(0.38), 김(0.36), 조개(0.35), 굴(0.31), 게(0.163), 전복(0.155), 새우(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수산물(패류·갑각류·해조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주: 소비자물가지수 중 게, 전복은 2010년, 새우는 2020년부터 제공됨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14〉 수산물(패류·갑각류·해조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구분		게	굴	조개	전복	새우	김	미역
전체 기간 (‘00~’24)	연평균 증감률	2.1	3.3	5.0	2.4	2.9	4.6	4.8
	변이계수	0.16	0.31	0.35	0.16	0.05	0.36	0.38
2000년대 (‘00~’09)	연평균 증감률		3.7	4.6			1.6	4.4
	변이계수		0.16	0.12			0.05	0.14
2010년대 (‘10~’19)	연평균 증감률	3.5	2.6	4.6	3.2		6.8	6.0
	변이계수	0.15	0.12	0.14	0.12		0.21	0.16
2020년대 (‘20~’24)	연평균 증감률	1.7	3.4	4.2	1.1	2.9	7.3	5.0
	변이계수	0.03	0.14	0.06	0.04	0.05	0.14	0.08

주: 소비자물가지수 중 게, 전복은 2010년, 새우는 2020년부터 제공됨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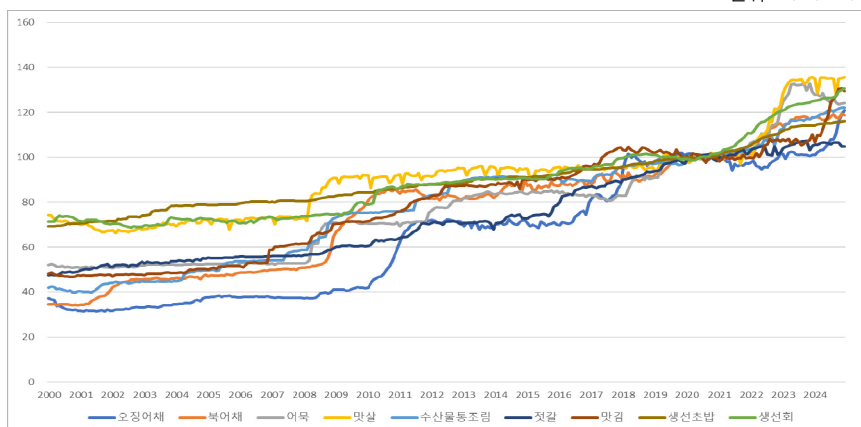
수산물 가공품에는 오징어채, 북어채, 어묵, 젓갈 등 총 7개 품목과 외식은 생선초밥, 생선회 2개 품목이 포함된다. 수산물 가공품 중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북어채로 연평균 5.3%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오징어채, 수산물 통조림, 맛김, 어묵, 맛살의 순이었다. 2020년대에는 특히 맛살과 통조림이 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생선회와 생선초밥은 전체기간 동안 2%대 증가율을 보였는데, 2020년대에 생선회는 연평균 6.2%씩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가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품의 변동성은 오징어채(0.42), 북어채(0.33), 수산물 통조림(0.31), 어묵(0.30), 맛김(0.29), 젓갈(0.27), 맛살(0.20)의 순이었으며, 외식은 생선회 0.19, 생선초밥 0.14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기간 동안 수산가공식품 물가도 수산물과 유사한 모습으로 급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4〉 수산물 가공품 및 외식 소비자물가지수 추이('00~'24, 월별)

단위: 2020=100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검색일: 2025.3.20.)

〈표 2-15〉 수산물 가공품 및 외식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및 변동성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감률)

구분		오징어채	복어채	어묵	맛살	수산물통조림	젓갈	맛김	생선초밥	생선회
전체 기간('00~'24)	연평균 증감률	5.0	5.3	3.8	2.6	4.6	3.3	4.0	2.1	2.3
	변이계수	0.42	0.33	0.30	0.20	0.31	0.27	0.29	0.14	0.19
2000년대('00~'09)	연평균 증감률	2.3	8.7	3.6	2.7	6.9	2.5	4.6	2.0	0.6
	변이계수	0.08	0.21	0.12	0.10	0.20	0.06	0.15	0.06	0.03
2010년대('10~'19)	연평균 증감률	8.3	1.5	3.6	1.0	2.8	4.9	3.7	1.7	1.9
	변이계수	0.19	0.05	0.09	0.03	0.08	0.14	0.10	0.05	0.06
2020년대('20~'24)	연평균 증감률	2.0	4.2	5.9	7.6	4.7	1.5	4.7	3.6	6.2
	변이계수	0.06	0.07	0.11	0.13	0.07	0.03	0.09	0.05	0.09

자료: 저자 작성

본 장의 물가지수 변동성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관련 물가지수 품목은 지수별로 크게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수입물가지수는 3개 품목, 생산자물가지수는 28개 품목, 소비자물가지수는 24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 품목을 기준으로 단계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가공용 원료의 수입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통 단계별 물가지수의 변동 경로와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 요인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 원료 수입 또는 국내 생산 → 국내 유통 및 가공 → 최종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물가지수가 품목별로 연계되고 세분화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가중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대표 품목 가격의 가중 평균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물가 변동을 산출할 때 각 품목은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상대적 중요도는 해당 품목이 전체 가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⁴⁾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소비자물가 품목의 가중치⁴⁾라 하며 5년 주기로 개편된다.⁵⁾ 현행 제도에서는 기준시점의 가중치를 고정하여 물가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지표 제공에 유리하다.

아래의 <표 2-16>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2개 대분류 품목군, 458개의 품목으로 구성되며, 가중치 총합은 1,000점이다. 가장 높은 가중치는 ‘전세’로 54.2이고, ‘어류 및 수산물’의 경우 13이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수산물 비중은 1.3%이며, 식료품 내에서는 9.15%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예를 들어, 고등어의 가구지출 비중이 오징어채보다 3배 더 크다면, 고등어와 오징어채 가격이 동일하게 상승하더라도 고등어 가격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징어채 가격 상승보다 3배 더 크다.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⁴⁾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임

5) 통계청, 통계설명자료(검색일: 2025.3.20)

〈표 2-16〉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2025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2000=100)	품목수(개)	가중치
총지수	458	1,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40	142
• 빵 및 곡물	18	22.4
• 육류	7	28.6
• 어류 및 수산	19	13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오징어채, 복어채, 맛살 등		2~0.2
• 우유, 치즈 및 계란	5	9.6
• 식용유지	2	1.4
• 과일	20	15.6
• 채소 및 해조	30	15.7
• 과자, 빙과류 및 당류	11	10.4
• 기타 식료품	20	15.7
• 비주류 음료	8	9.7
주류 및 담배	7	15.8
의류 및 신발	25	49.6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15	171.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50	45.6
보건	34	84.0
교통	33	110.6
통신	6	46.6
오락 및 문화	47	62.9
교육	20	73.9
음식 및 숙박	44	144.7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7	52.7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검색일:2025.10.1.)

국민 식생활에서 수산물 소비가 차지하는 실질 비중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기준⁶⁾을 고려하면, 가중치가 실제보다 낮게 설정된 것으로 볼 수

6)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비중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분류 기준, 2022~2024년 연평균 구성비는 약 15%임

있다. 즉, 소비 구조 대비 과소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재 소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갱신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배달 및 외식 소비 확대 등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매년 기준 연도를 변경하는 등 소비 행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향후 물가지수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품목별 가중치의 산출 주기를 단축하거나 기준시점 및 산정 방식을 보정하는 방안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제2절 수산식품 수급 및 식품 소비지출 현황

1. 수산물 생산⁷⁾·교역

1) 수산물 생산

국내 연근해 어업을 통해 어획되는 수산물 중 수산물 물가 및 수급 관리 품목이자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관측센터 관측 품목인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마른멸치 6개 대중성 어종 품목의 수급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 58만 4,540톤이었던 대중성 어종 6대 품목의 2024년 생산량은 31만 8,121톤이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및 어선 감축 사업 및 고령화로 인한 어선 감소 등으로 연평균 3.9%씩 감소했다.

7)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에서는 멸치 전체 생산량을 발표하고 있으나,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마른멸치 생산량을 따로 추정 및 발표하고 있어 2009년부터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품목별로 살펴보면 동기간 오징어 생산량(연근해+원양)은 2009년 27만 3,812톤에서 2024년 7만 6,702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생산량 감소 폭이 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갈치(-4.3%), 참조기(-4.2%), 원양 명태(-2.0%), 마른멸치(-1.1%), 고등어(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7〉 대중성 어종 6개 품목 생산량

단위: 천 톤

구분	2009	2011	2013	...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고등어	118.0	138.7	102.1	...	110.9	120.1	124.9	0.4%
갈치	85.5	33.1	47.1	...	54.0	60.7	44.5	-4.3%
오징어	273.8	241.8	254.7	...	84.7	54.9	76.7	-8.1%
명태	39.0	48.8	24.3	...	21.6	28.4	29.0	-2.0%
참조기	3.4	5.9	35.3	...	1.6	1.5	1.8	-4.2%
마른멸치	34.3	47.7	24.3	...	26.3	29.2	25.2	-1.1%
합계	584.5	569.4	487.9	...	313.9	308.5	318.1	-3.9%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5.3.13.)

이에 반해 해당 품목들의 수입량은 2009년 44만 496톤에서 2024년 70만 3,321톤으로 연평균 3.2%씩 증가 추세이다. 품목별로는 생산량 감소가 많았던 오징어 수입량이 2009년 4만 3,926톤에서 2024년 23만 8,639톤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고등어의 경우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수입된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최근 5개년간 5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2-18〉 대중성 어종 6개 품목 수입량

단위: 천 톤

구분	2009	2011	2013	...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고등어	27.6	60.8	16.6	...	52.0	70.5	55.2	4.7%
갈치	35.4	28.9	29.1	...	13.1	14.8	13.3	-6.3%

단위: 천 톤

구분	2009	2011	2013	...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오징어	43.9	69.2	119.6	...	253.2	280.5	238.6	11.9%
명태	290.8	363.0	146.7	...	530.5	371.5	376.8	1.7%
참조기	41.1	36.4	24.9	...	19.1	19.9	19.3	-4.9%
마른멸치	1.7	1.0	1.1	...	0.0	0.1	0.1	-18.3%
합계	440.5	559.4	338.1	...	867.9	757.2	703.3	3.2%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5.3.13.)

대중성 어종 6개 품목의 수출량은 코로나19로 명태 재수출 물량이 급증하였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는 16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오징어를 제외한 품목들은 수출량이 증가추세이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어는 소형어 생산이 증가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 2009년 4만 1,484톤에서 2024년 8만 2,729톤으로 증가했으며, 대중국 수출이 많아진 갈치도 2024년 수출량이 2,563톤으로 2009년(1,341톤)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2-19〉 대중성 어종 6개 품목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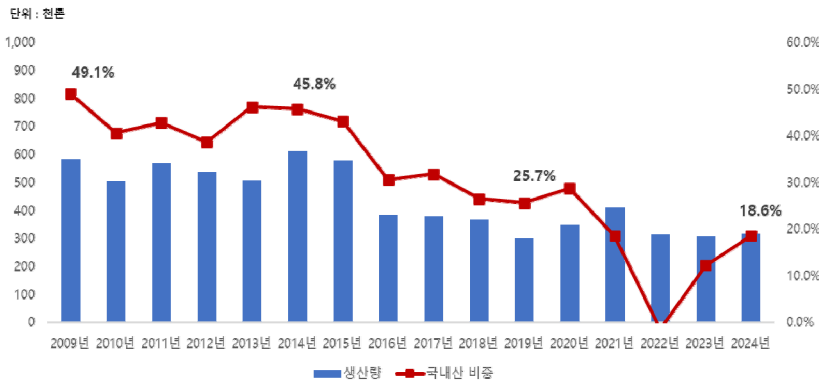
단위: 천 톤

구분	2009	2011	2013	...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고등어	41.5	39.7	40.7	...	76.0	111.5	82.7	4.7%
갈치	1.3	2.0	4.9	...	5.6	4.9	2.6	4.4%
오징어	103.8	66.9	76.0	...	19.0	20.2	22.2	-9.8%
명태	11.8	39.2	92.9	...	224.3	64.7	48.7	9.9%
참조기	0.4	0.6	0.4	...	0.8	0.7	0.4	-0.6%
마른멸치	1.2	1.4	0.8	...	0.9	1.1	1.0	-1.5%
합계	160.0	149.7	215.7	...	326.6	203.0	157.6	-0.1%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5.3.13.)

이에 따라 국내 총 공급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에서 국내산 공급량(생산량-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9.1%에서 2024년 18.6%로 매년 6.3%씩 감소하였다.

〈그림 2-15〉 국내산 6대 대중성 어종 생산량 및 비중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5.3.13.)

총공급량에서 국내 생산된 수산물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반대로 수입 수산물이 국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목 별로 수입 수산물이 국내 공급량에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고등어의 국내 공급량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6.5%에서 2024년 56.7%로 연평균 5.7%씩 증가하였으며, 오징어도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0.5%에서 2024년 81.4%로 연평균 9.6%씩 상승하였다. 그 외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태의 경우 수입산이 국내산 공급량을 초과하고 있다.

〈표 2-20〉 대중성 어종 6개 품목 국내 공급량 대비 수입량 비중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	2020	2021	2022	2023	2024
고등어	26.5	36.8	38.0	34.5	...	53.7	38.4	59.8	89.1	56.7
갈치	29.6	33.8	48.2	47.0	...	23.5	20.5	21.3	21.0	24.1
오징어	20.5	23.6	28.4	39.0	...	76.7	69.7	79.4	89.0	81.4
명태	91.4	98.9	97.4	104.4	...	94.8	135.5	161.8	110.8	105.5
참조기	55.0	58.3	38.3	43.3	...	34.1	42.5	55.0	58.0	52.6
마른멸치	4.9	5.6	2.1	2.1	...	0.1	0.1	0.1	0.3	0.3
합계	50.9	59.3	57.1	61.3	...	71.2	81.4	101.5	87.8	81.4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5.3.13.)

2. 수산물 생산 및 원료 소비

국내 수산물 가공 생산량은 2014년 233만 7천 톤에서 2023년 1,230만 8천 톤으로 연평균 7.1%씩 감소하였다. 반면 가공업체 수는 동기간 2,935 개소에서 3,682개소로 연평균 2.6% 증가하였다.

〈표 2-21〉 수산물 가공 생산량 현황

단위: 천 톤, 개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생산량	2,337	1,829	1,575	1,292	1,357	1,086	1,305	1,373	1,300	1,208
업체 수	2,935	2,881	3,274	3,269	3,276	3,323	3,538	3,600	3,571	3,682

자료: 통계청, 수산물가공업통계(검색일: 2025.3.13.)

제품별 생산량은 냉동품(원형동결) 제품이 2023년 기준 29만 6천 톤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연제품(20만 5천 톤), 해조 제품(18만 8천 톤), 기타(16만 7천 톤) 순이었다.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한 냉동품(원형동결) 제품은 2016년 전체 생산량의 37.3%를 차지했으나, 2023년 24.5%로 감소 추세인 반면 연제품과 기타는 동기간 각각 7.6%에서 17.0%, 2.4%에서 13.8%로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생산 비중이 감소하는 품목으로는 냉동품(원형동결), 냉동품(처리동결), 통조림품, 소건품, 자건품, 조미가공품, 어유분, 염장품이 있으며 생산 비중이 증가하는 품목은 연제품, 염건품, 해조제품, 염신품, 기타로 나타났다.

〈표 2-22〉 수산가공품 제품별 생산량

단위: 천 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냉동품 (원형동결)	588	496	437	268	348	344	361	296
냉동품 (처리동결)	188	96	105	89	99	92	88	102
통조림품	97	73	78	70	49	49	57	52
연제품	120	126	145	158	195	198	184	205
소건품	21	16	24	17	14	26	13	15
염건품	1	2	3	2	4	1	14	6
자건품	5	4	5	4	6	3	4	3
해조제품	184	264	276	198	224	202	228	188
한천	0	0	0	0	0	0	1	1
조미가공품	203	83	89	74	99	102	95	71
어유분	29	17	29	39	40	18	7	5
염장품	55	15	38	23	13	16	16	12
염신품	44	63	66	80	76	69	82	85
수산피혁품	0	0	-	0	0	0	-	-
기타	38	36	61	64	137	254	146	167

자료: 통계청, 수산물가공업통계(검색일: 2025.3.13.)

수산가공품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냉동품(원형동결)의 품목별 생산량은 2023년 고등어가 10만 2천 톤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했으며, 오징어(24톤), 명태(18톤), 전갱이(17톤), 삼치(16톤) 등의 순이었다.

〈표 2-23〉 냉동품(원형동결) 품목별 생산량

단위: 천 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고등어	89	56	114	61	49	87	88	102
오징어	65	57	48	39	36	40	48	24
명태	43	48	37	18	25	41	47	18
전갱이	7	5	5	6	13	18	8	17
삼치	14	12	11	14	17	12	10	16
참치류	19	33	31	18	21	11	20	16
공치	24	20	23	10	5	5	6	9
갈치	7	8	7	6	6	8	12	7
꽃게	11	11	4	4	3	4	5	6
가자미	5	6	4	4	3	3	4	3
새우	6	5	5	3	2	3	4	3
정어리	32	30	25	1	3	3	5	2
조기	5	12	10	10	11	10	2	2
대구	4	6	1	1	1	2	10	2
낙지	1	1	1	1	1	1	1	1
병어	0	0	1	0	0	1	0	0
복어	12	11	11	1	0	1	0	0
옥돔	0	0	0	0	0	1	0	0
부세	1	2	1	2	2	3	0	0
기타	240	173	99	70	151	91	90	267

자료: 통계청, 수산물가공업통계(검색일: 2025.3.13.)

이러한 가공품 생산 현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가공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의 소비 실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공 원

료로 활용되는 어종별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4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 조사⁸⁾와 관련 연구 보고서⁹⁾를 참고하여 재정리 및 검토하였다.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 조사에서는 총 120개 세부 원료를 대상으로 원료 사용량 및 원산지(국산/수입산)별 사용 비중, 조달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수산물 및 수산물 유래 식품소 재로 분류되고 있는 원료는 아래 <표 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종이 있다. 다만, 분류상 가공소금은 ‘기타’ 품목으로 다른 원료(녹차잎, 엿기름, 깻잎 등)과 함께 묶음 처리하여 조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수산물 범위에는 소금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6종에 대한 2023년 기준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재정리하였다.

<표 2-24>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 조사 대상(수산물 및 수산물 유래 식품 소재 원료)

구분	농림축수산물 원료	가공 식품소재 원료
수산물 및 수산물 유래 식품소재	천일염, (물)오징어, 김(원초), 마른 김, 명태(동태, 황태 포함)	정제소금, 가공소금(맛소금 등), 어류부산물(아가미, 알, 내장 등), 어육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5), pp. 45-88.

명태의 경우 총 원료 사용량 중 수입산 사용량이 98.2%로 국산 사용량(1.8%)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오징어, 어육살, 어류부산물 모두 전체 원료 사용량 중 수입산 사용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징어의 경우 수입산 사용 비중은 60.6%, 어육살은 83.6%, 어류부산물은 53.3%로 나타났다. 반면, 김(원초)와 마른김은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이 100.0%로 나타났다.

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5), pp. 45-88.

9) 홍재범·강한애(2024), pp. 19-86.

〈표 2-25〉 국산 및 수입산 수산물 원료 사용량(2023년)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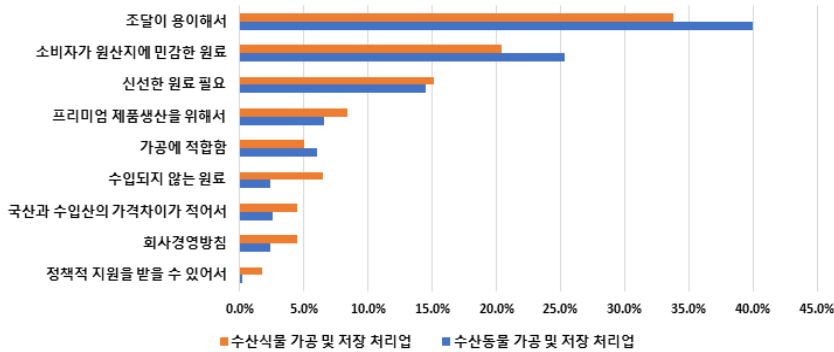
품목	사례수		총 사용량	국산		수입산	
	추정	조사		사용량	비중	사용량	비중
명태	250	151	51,153	897	1.8	50,256	98.2
오징어	318	214	83,406	32,866	39.4	50,540	60.6
김(원초)	174	97	218,050	218,050	100.0	-	-
마른김	338	212	40,665	40,665	100.0	-	-
어육살	156	117	139,968	22,957	16.4	117,011	83.6
어류부산물	76	52	25,442	11,893	46.7	13,549	53.3

자료: 한국농수산유통공사(2025), pp. 45-88.

이러한 표본 조사 결과를 통해 수입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품목을 활용하는 업체에서는 환율 변동 혹은 수입국의 생산량 변화 등에 따라 구매 단가 변동에서의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산 사용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 변화에 따른 구매 단가 변동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수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이유로는 조달의 용이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가 원산지에 민감하다는 점, 신선한 원료의 조달, 프리미엄 제품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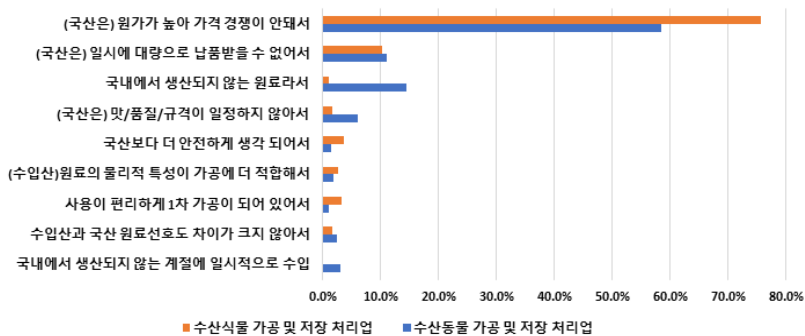
〈그림 2-16〉 국산 수산물 원료 구매 이유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5), pp. 45-88.

반면에 수입산 수산물 원료의 구매 이유를 살펴보면, 국산의 경우에 비해서 가격에 대한 이유로 응답한 비중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국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입산 수산물 원료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료를 구매할 때 물량의 측면에서, 국산에 비해 대량으로 납품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7〉 수입산 수산물 원료 구매 이유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5), pp. 45-88.

예를 들어 오징어의 수입단가와 국내산 단가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2-26>와 같다. 여기서 수입단가는 수입 금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국내산 단가는 생산 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비교 대상은 HS Code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냉동 형태의 오징어 수입품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0307.432090(냉동 기타 오징어)의 주요 수입국별 수입 가격과 국내 연근해어업으로 생산되는 오징어 전체(활어, 선어, 냉동 포함) 및 냉동의 단가로 설정하였다.

단가 비교 결과 앞서 살펴보면 수입산 수산물 원료 구매 이유와 같이, 수입산의 단가가 약 2~3배 가량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6> 국산 및 수입산 단가 비교(예시_오징어)

단위: 원/kg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 평균
국산	전체	8,368	11,009	14,439	11,272
	냉동	6,276	8,764	12,761	9,267
수입산	중국	3,312 (2.4\$/kg)	4,295 (3.1\$/kg)	4,134 (3.0\$/kg)	3,914 (2.8\$/kg)
	칠레	2,625 (1.9\$/kg)	2,382 (1.7\$/kg)	2,956 (2.1\$/kg)	2,654 (1.9\$/kg)
	페루	2,546 (1.8\$/kg)	2,630 (1.9\$/kg)	2,917 (2.1\$/kg)	2,698 (1.9\$/kg)
	아르헨티나	4,408 (3.1\$/kg)	4,773 (3.4\$/kg)	5,415 (3.9\$/kg)	4,865 (3.5\$/kg)

주 : 수입산 가격의 원화 환산은 1,400원/달러 기준 적용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5.3.13.) 원자료 저자 재기공

그리고 수입산 원료 구매 이유에서 두 번째로 큰 이유로 나타난 대량 납품에 있어서도, 최근 3개년 평균 국내 오징어 생산량은 약 2.5만 톤인 반면, 오징어 전체 수입량은 약 14.5만 톤, 냉동 기타 오징어는 10.4만 톤으로 수입 물량이 국내 생산량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7〉 국산 및 수입산 물량 비교(예시_오징어)

단위: 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 평균
국산	전체	36,578	23,375	13,546	24,500
수입산	전체	138,370	155,769	141,292	145,143
	냉동 (0307.432090)	99,171	112,211	100,807	104,063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25.3.13.) 원자료 저자 재가공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등어, 참조기에 대한 원료 소비 실태 조사 결과¹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어의 경우 국산 원료의 사용 비중이 58.5%로 수입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참조기의 경우에는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이 37.8%, 수입산 원료 사용 비중이 62.2%로 수입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원료별 국산,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이유에 살펴보면, 고등어의 경우 원료의 신선도를 고려하여 국산을 이용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입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시에 대량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참조기의 경우에는 수입산을 이용하는 이유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산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원료의 신선도와 원산지에 민감하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8〉 국산 및 수입산 수산물 원료 사용 비중(2023년)

단위: 톤, %

품목	사례 수		국산	수입산
	모집단	조사		
고등어	247	30	58.5%	41.5%
참조기	194	41	37.8%	62.2%

자료: 홍재범·강한애(2024), pp. 19-86.

10) 홍재범·강한애(2024), pp. 19-86.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 수산가공식품 생산에 국산보다 가격, 물량적 측면에서의 이점으로 수입산 원료가 많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산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산지, 신선도를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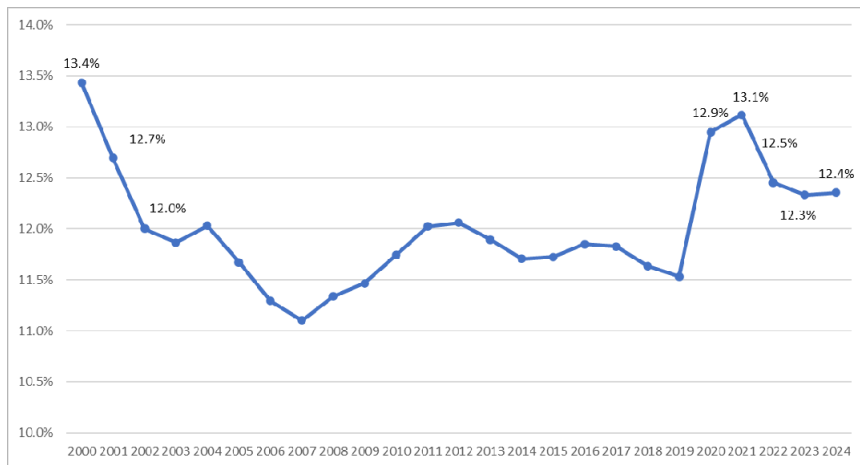
3. 식품 소비지출 추이 및 엔겔계수

물가 변동은 국내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산식품이 포함되는 식품 소비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분위별 엔겔계수 분석을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소득계층별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엔겔계수는 소비지출 대비 식품 지출 비용의 비중으로 이를 통해 식료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2000년 이후 총 국내 소비지출 중 식료품 및 비주류 소비의 비중(엔겔계수)를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12% 미만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엔겔계수가 2020년 급격히 상승하여 13.1%를 기록하였다가, 최근 몇 년간은 다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세에서 2000년대와 2020년대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던 것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대 코로나19로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과 같은 기본 생계 유지를 위한 소비 지출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18〉 엔겔계수('00~'24)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원계열, 명목 기준)(검색일: 2025.3.20.)

다음으로 소득분위별 분석을 위해 월평균 가계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 가계지출은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3백 6십만 원, 이 중 소비 지출은 2백 6십만 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소비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 식료품·비주류음료(11.0%)로 42만 원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음식·숙박, 주거·수도·광열, 교통·운송 등의 순이었다.

〈표 2-29〉 가구당 소비지출 추이('20~'24)

단위: 천 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 평균	비중
가계지출	3,240	3,375	3,591	3,810	3,931	3,589	100.0
소비지출	2,400	2,495	2,640	2,792	2,890	2,643	73.7
01.식료품 · 비주류음료	407	426	419	426	441	423	11.8
02.주류 · 담배	38	39	39	39	38	38	1.1
03.의류 · 신발	118	126	136	139	141	132	3.7
04.주거 · 수도 · 광열	286	298	302	330	352	314	8.7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 평균	비중
05.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126	129	117	119	124	123	3.4
06.보건	195	199	203	211	225	207	5.8
07.교통 · 운송	289	287	316	340	335	313	8.7
08.정보통신	163	169	170	169	165	167	4.7
09.오락 · 문화	96	98	127	160	178	132	3.7
10.교육	159	182	204	212	215	194	5.4
11.음식 · 숙박	319	338	397	427	449	386	10.8
12.기타상품 · 서비스	204	206	210	222	229	214	6.0
비소비지출	840	880	951	1,018	1,040	946	26.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1인 이상, 명목 기준)(검색일: 2025.3.20.)

소득분위별(10분위) 식품(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과 엡겔계수를 세 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5년간 가구당 식품 소비지출은 42만 원이었으며, 엡겔계수는 16.0%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에는 16% 미만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모든 소득분위에서 2020~2021년의 엡겔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엡겔계수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 10분위 가구의 식품 소비지출이 66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엡겔계수는 1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1분위와 2분위의 엡겔계수가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의 가구가 식품 물가 상승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해석된다. 즉 코로나19, 환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소득 분위가 낮은 계층의 가구들은 식품 소비지출 비중이 확대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지출 비중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표 2-30〉 소득분위별 식품 소비 지출 추이('20~'24)

단위: 천 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 평균
전체	식품소비	407	426	419	426	441	423
	엔겔계수	17.0	17.1	15.9	15.2	15.2	16.0
1분위	식품소비	224	249	255	252	266	249
	엔겔계수	24.6	24.2	24.1	22.7	23.3	23.7
2분위	식품소비	273	296	295	299	313	295
	엔겔계수	22.6	23.2	21.4	20.8	21.3	21.8
3분위	식품소비	289	321	312	307	330	312
	엔겔계수	18.9	20.3	18.2	18.1	18.7	18.8
4분위	식품소비	320	329	330	338	356	334
	엔겔계수	18.4	18.2	17.0	16.8	17.1	17.4
5분위	식품소비	352	378	377	392	382	376
	엔겔계수	17.4	17.6	16.6	16.8	15.7	16.8
6분위	식품소비	418	430	425	434	442	430
	엔겔계수	17.6	17.8	16.4	16.1	15.4	16.6
7분위	식품소비	468	469	455	480	490	472
	엔겔계수	17.5	16.8	14.8	14.8	14.7	15.6
8분위	식품소비	517	540	503	518	562	528
	엔겔계수	16.6	16.5	15.1	14.1	14.4	15.2
9분위	식품소비	572	578	578	581	596	581
	엔겔계수	15.4	15.3	14.8	14.0	13.8	14.6
10분위	식품소비	637	667	656	654	668	657
	엔겔계수	13.6	13.8	12.8	11.8	12.0	12.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1인 이상, 명목 기준)(검색일: 2025.3.20.)

다음으로 식품 중 수산물 소비지출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수산물 소비액은 4만 원으로, 전체 식품소비 지출 중 9.4%를 차지하였다. 수산물 항목은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해조 및 해조가공품으로 구분되는데, 소비지출은 신선수산물(5.1%), 기타수산물가공(2.0%), 염건수산물(1.5%), 해조 및 해조가공품(0.9%)의 순이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수산물 소비액이 커져서 1분위(2만 8천원) 대비 10분위(5만 6천원)의 수산물 소비지출이 약 2배 수준이었다. 반면 전체 식품 소비지출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추세로, 소득 5분위 이하는 10% 이상, 5분위 이상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2-31〉 소득분위별 수산물 소비 지출 추이('20~'24 연평균)

단위: 천 원, %

구분		수산물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 동물가공	해조 및 해조가공품
전체	수산물소비	40	22	6	8	4
	비중	9.4	5.1	1.5	2.0	0.9
1분위	수산물소비	28	15	5	5	3
	비중	11.2	6.0	2.0	2.0	1.2
2분위	수산물소비	34	19	6	6	3
	비중	11.6	6.6	2.0	2.0	1.1
3분위	수산물소비	33	18	5	6	3
	비중	10.5	5.7	1.7	2.0	1.0
4분위	수산물소비	33	18	6	7	3
	비중	10.0	5.4	1.7	2.0	0.9
5분위	수산물소비	35	19	6	8	3
	비중	9.4	5.0	1.5	2.0	0.9
6분위	수산물소비	40	21	6	9	4
	비중	9.2	4.9	1.4	2.1	0.9
7분위	수산물소비	43	23	6	10	4
	비중	9.1	4.8	1.4	2.1	0.9
8분위	수산물소비	47	25	7	10	5
	비중	8.9	4.7	1.4	2.0	0.9
9분위	수산물소비	51	27	7	12	5
	비중	8.8	4.6	1.3	2.0	0.8
10분위	수산물소비	56	31	8	12	5
	비중	8.5	4.8	1.2	1.8	0.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1인 이상, 명목 기준)(검색일: 2025.3.2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수산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를 통해 단계별 구조, 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산물 관련 물가지수별 변동률,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 현황, 수급 및 원료 소비 현황, 식품 소비지출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물가 변동 및 안정화를 위해 물가지수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정밀한 물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입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5% 증가했으며, 특히 2020년대 들어 증가율(3.4%)이 두드러졌다. 농축수산물의 물가 변동성은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수산물 중 오징어와 마른오징어는 물가 증가율(연 7.7%) 및 변동성(CV 약 0.58~0.59)이 가장 높았다. 어류 및 연체류는 2000년대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패류·갑각류·해조류는 201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오징어, 미역, 김, 마른오징어 등 오징어류와 해조류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들 품목의 변동성 완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물가지수 변동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관련된 품목은 수입물가지수는 3개, 생산자물가지수는 28개, 소비자물가지수는 24개로 품목이 상이하다.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 가공용 원료부터, 즉 수입부터 소비까지의 유통 단계별 물가지수가 품목별로 연계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물가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는 매년 기준연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나, 가중치를 새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시점 가중치를 고정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물가지수 고도화 및 현행화를 위해서는 품목별 가중치 기준시점 및 산정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가공용 수산물 원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김(원초)과 마른 김은 전량 국산 원료로 활용되는 반면 명태, 오징어, 어육살, 어류부산물은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명태의 수입산 사용 비중은 98.2%, 오징어는 60.6%, 어육살은 83.6%, 어류부산물은 53.3%으로 국산에 비해 수입산 사용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주 이유는 가격 경쟁력과 대량 납품 가능성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오징어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수입산 가격은 국산 대비 약 2~3배 낮은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오징어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 고등어의 경우에는 표본 조사 결과 수입산 사용 비중이 41.5%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시에 대량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에 따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기의 경우에는 수입산 사용 비중이 62.2%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생산 부족 등에 따른 영향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의 경우 국제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에서의 물가 변동에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 가격 및 환율 등의 리스크 관리,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게다가, 식품 소비지출 추이 및 앵겔계수 분석을 통해, 최근 앵겔계수의 상승은 식료품 가격 상승이 가계 소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앵겔계수가 높아 물가 상승 시 생계비 부담으로 작용

하여 소득 불균형 심화 우려가 있다. 또한, 수산물 소비 비중 전체 식품의 약 10% 수준으로 식료품 물가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물가 안정 정책에서 소득계층별 소비 취약성 완화하는 관점에서, 저소득층의 식품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03

수산식품 물가 관리 사례 분석 및 인식 조사

3장에서는 국내외 물가관리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공급자와 소비자 대상 수산식품 물가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절 물가 관리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을 운용 중이며, 기금의 목적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FTA 체결 등 국제 어업 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육성·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또한, 기금설치 근거법

물에 명시된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수산물 안전 관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관리 등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는 것을 운용 방침으로 하고 있다.

수산물발전기금에서 수급 및 물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수산물 구매지원 사업,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수산물자조금 사업 등이 있다.

(1) 수산물 정부비축사업¹¹⁾

수급 여건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큰 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당 수산물을 비축하고, 가격 증감이 큰 경우 소비자가격 안정과 생산자 소득 지지에 목적을 두는 정부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비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수산물의 비축사업)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비축사업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 대상 품목은 대중어 6개 품목(냉동갈치, 냉동오징어,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마른멸치)와 삼치, 천일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이며, 주관은 수협중앙회와 회원수협, 지정된 산지중도매인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진다.

〈그림 3-1〉 수산물 구매·비축사업 추진 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검색일: 2025.3.15.)

11) 2022년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검색일: 2025.3.15.)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에 정부비축사업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와 구매사업 실시 기관 등 사업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매년 초 발표되는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추진계획’에 소비량·산지 가격·구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비축 예산을 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은 당해 연도 생산과 수급 동향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구매 물량과 구매·판매 시기를 등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가격은 소비자 판매가격을 고려하여 그 수산물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 도매가격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은 수급 여건에 따라 증감은 있으나, 2018년 627억 원에서 2023년 1,088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비축물량도 2018년 2만 3천 톤 수준에서 2023년 4만 5천 톤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23년 천일염 가격 상승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천일염 정부 비축도 처음 시행되었다.

〈표 3-1〉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현황

단위: 톤,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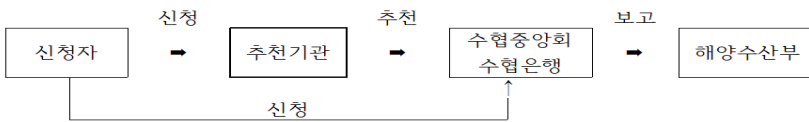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고등어	3,069	49	528	14	1,485	44	1,280	44	771	29	1,064	28
갈치	1,056	108	938	123	1,138	141	1,477	173	1,886	194	2,595	268
오징어	2,570	157	1,134	85	1,696	135	4,158	197	4,649	314	1,388	112
명태	15,995	202	12,422	288	7,514	120	14,589	217	17,901	300	27,391	454
참조기	468	111	984	160	1,229	142	2,091	217	519	70	220	49
마른멸치	-	-	130	19	262	32	61	5	181	20	234	26
천일염	-	-	-	-	-	-	-	-	-	-	12,560	151
합계	23,158	627	16,136	690	13,324	613	23,674	862	25,922	936	45,452	1,088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검색일: 2025.3.15.)

(2)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에 근거한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은 주 생산 시기 대량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적기 수매를 지원하여 산지 가격 안정화 도모 및 중소 유통·가공업체 경영 안정 지원, 가격 급등 등 필요한 시기에 정부 방출 명령으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앞서 살펴본 정부비축사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반면,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은 용자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림 3-5〉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지원대상은 수협중앙회(자회사 포함), 지구별·업종별 조합, 어촌계 등 생산자 조직, 수산물 가공·유통업체(수입업체 포함) 등이며 〈표 3-2〉와 같다. 수매지원 사업을 통해 수매하는 품목은 원료 수매와 가공 수매로 구분되며 원료수매 품목은 저장·가공이 가능한 수산물, 가공수매 품목은 가공이 가능한 수산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세한 구분은 〈표 3-3〉과 같다.

〈표 3-2〉 사업별 사업대상자(업체)

구분	사업별	수매대상 지정품목
원료 수매	수협중앙회 (자회사 포함) 회원조합 일반유통·가공업체	수협중앙회(자회사 포함) 및 지구별 또는 업종별수협(임가공업체 포함)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구분	사업별	수매대상 지정품목
가공 수매	냉동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냉동·냉장업 등록을 하고 처리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통조림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산물통조림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연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어육연제품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훈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훈제품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조미·염장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포류, 절임식품류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해조류	김, 미역 등 해조류 가공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
	산지가공 (어가공동)	정부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수산물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어가 5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 또는 개별어가가 단독 운영하는 가공업체(어업인후계자법인, 영어조합법인, 여촌계, 수산물·수산물특산품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지정업체)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검색일: 2025.3.15.)

〈표 3-3〉 사업별 수매대상 지정 품목

구분	사업별	수매대상 지정품목
원료 수매	수협중앙회 (자회사포함)	저장·가공이 가능한 연근해산, 원양산 또는 내수면 수산물
	회원조합	저장·가공·양식사료가 가능한 연근해산, 원양산 또는 내수면 수산물
	일반유통·가공업체	(공동수집판매가 가능한 톳·천초 등 포함)
가공 수매	냉동품	냉동품 가공이 가능한 수산물
	통조림	통조림 가공이 가능한 수산물
	연제품	연제품 가공이 가능한 수산물(연육포함)
	훈제품	훈제품 가공이 가능한 수산물
	조미·염장품	조미 또는 염장품 가공이 가능한 수산물(김, 미역 제외)
	해조류	해조식품 가공이 가능한 해조류
	산지가공 (어가공동)	산지가공이 가능한 수산물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검색일: 2025.3.15.)

(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¹²⁾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응하고, 소비 촉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 가격을 최대 50%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우리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생산한 국내산 수산물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효과가 우리 어업인의 소득으로 환류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6대 대중성 어종뿐 아니라, 산지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서도 사업이 이루어진다. 2020년 210억 원의 규모로 시작되었으며 2021년 590억, 2022년 610억, 2023년 1,581억 원으로 매년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¹³⁾

(4) 기타¹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산물 수급관리에서는 국내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법률을 명시하고 있다. 제38조에서 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 정보, 생산 면적, 작황, 재고 물량, 소비 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9조에서 계약생산, 제40조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매사업, 제41조 비축사업, 제42조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제44조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

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검색일: 2025.3.12.)

13) 한국일보(2014.10.07.)(검색일: 2025.3.12.)

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물유통법) 제19807호

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경우에 이를 관리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담당 부처나 기관, 위원회, 법률적 기반 등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법률과 연계하여 물가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수산물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체계적인 물가 관리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물가 관리를 수행하는 담당 부처나 기관, 물가 관리 위원회 등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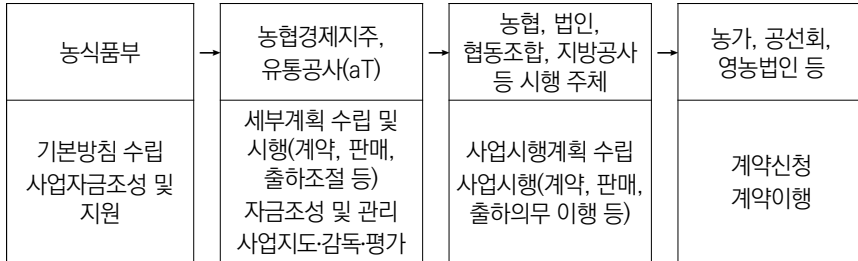
(1)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농산물의 수급조절 등) 및 제6조(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책)에 의거 주요 채소류의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수급 조절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대상 품목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겨울양배추 엽근 및 양념 채소이다. 약정 농가에 대해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 가격 80% 이내)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가격 급등·급락 시 약정물량(또는 매월 출하계획량) 중 잔여 물량의 일부에 대해 출하의무(출하처, 출하기간 등)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격 폭락 시 생산과잉으로 시장 격리(산지폐기)를 통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15)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검색일: 2025.4.15.)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림 3-6〉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사업추진 체계



자료: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검색일: 2025.4.15.)

(2) 농산물 비축사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13조(비축사업 등) 및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에 의거, 농산물의 공급 불안정, 가격 급·등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산물을 직접 비축하고, 필요한 시기에 시장에 방출하여 수급 안정과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수단이다. 쌀, 보리, 콩, 감자,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을 대상 품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축유형에는 정부비축, 수매비축, 수입비축(TRQ), 순환비축이 있다.

(3) 수급조절 및 산지폐기지원사업

농산물 과잉 공급 시 가격 폭락 및 농가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단기적 대응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과 제6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책)에 근거하여 정책을 시행 중이다.

계약재배를 실시한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협, 산지유통센터(APC), 출하조절 협의체 등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출하 연기 지원, 산지 폐기 지원, 수매 후 처분 등을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관측센터의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조절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건고추 등 채소류 주요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산지폐기가 실시된 사례로는 2022년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결과에 따라 소비 부진으로 하락한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비축 물량 9.5톤 시장격리, 저장 양파 17.1천 톤 출하 연기(창고 봉인), 22년산 조생양파 144ha에 대해 산지폐기한 사례¹⁶⁾가 있다. 또한 2020년 2월 통계청 예상 재배면적(^{19.12월})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면적 실측 조사(^{20.2월}) 결과 평년 대비 재배면적이 증가하며, 작황이 좋아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500ha 내외의 산지폐기를 실시하였다.¹⁷⁾ 이외에도 고추(2021년) 산지폐기 사업, 배추·무(2019년) 산지폐기 및 시장격리 등의 사례가 있다.

2. 해외 사례

1) 일본¹⁸⁾

일본은 수산업 생산 감소와 소비 감소라는 두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안정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품목에 대한 수요 및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비축제도 활용, 수산물 가격 안정 기구, 수입 품목 수급 조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6)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3.28.)(검색일: 2025.3.25.)

17)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2.28.)(검색일: 2025.3.25.)

18) 일본농림수산성(2023), 수산백서(令和5年度)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정부비축사업, 수산물 구매지원 사업,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등 정부가 주도로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어업인·지자체·국가 공동 기금을 통해 운영되며, 유통 구조 개선, 소비자 행동 분석, 저장 인프라 활용 등을 통해 시장 기반의 자율적 가격 안정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다.

(1) 일본 수산물 가격안정제도

수산물 가격 안정 제도(価格安定制度)를 통해 특정 어종의 시장 가격 급변 시 어업인 보호를 위한 보조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와 생산자 단체(수협 등)가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참치와 어획량 변동이 큰 오징어, 방어(부리), 고등어, 멸치, 정어리 등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획량이 많아져 시장에 공급과잉이 발생할 경우, 수협이 시장 격리 및 저장조치를 시행하며 저장 비용 및 구매 손실액은 기금을 통해 일부 보조하고 있으며 소비촉진 캠페인과 편의점, 학교급식,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판로 다변화한다.

반대로 어획량이 적어 산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협이나 어업조합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가격에서 차액 일부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금 구성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업인단체에서 부담하며 주로 참치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다.

(2) 냉동·비축 및 저장 인프라 강화 정책

수산물 유통 체계가 다단계 유통에서 소비자에게로 바로 유통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지 시장의 통합과 고도화, 냉동·냉장시설

정비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ICT 및 최신 냉동기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통 루트를 구축하고, 거래 선택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대상은 산지 시장 및 하역장이며, 냉동·냉장 창고와 하역장 자동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가격 안정화,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3)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확대 및 수출 연계

일본 수산물 내수 확대를 위해 2012년 8월부터 ‘물고기 나라의 행복(魚の国のしあわせ)’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어식(魚食)의 행복과 장점 등을 홍보하여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관 협력으로 시행한다. 어업인, 수산 관련 단체, 유통업자, 제조업체, 학교, 교육 기관, 행정 등 수산업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가 주체가 되며, 2019년 3월 말 기준 115개 기업·단체가 등록 되어있다.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소형 어종이나 비규격 어종을 활용하여 학교 급식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 수업과 연계해 수산물 자원 교육 및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즉석조리 수산물 반찬과 레토르트 및 간편 조리용 식품을 개발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해외시장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냉동 수산물의 고급화 및 생산기술 향상을 지원하여 고품질·고안전성 일본 수산물을 아시아 등 해외로 수출하려는 정책이다. 양식 수산물의 안정 생산 기반 구축 및 HACCP 인증, 수출용 생산지 정비, 상품 개발, 현지 소매업체와의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수산물 수급 안정 공급 추진 기구¹⁹⁾

수산물 수급 안정 공급 추진 기구는 1951년 12월 「재단법인어가 안정 기금」으로서 설립되었으며, 2015년 4월, 「공익재단법인 수산물 안정 공급 추진 기구」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어가 소득 안정과 수산 및 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 국민 소비 생활의 안정 향상이 기구 설립의 목적이다.

일본의 수산물 안정 공급 추진 기구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수산물 수급 안정에 관한 사업과 APLS 처리수 관련 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산물 수급 관련 사업은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수산물 공급 안정화 사업(特定水産物供給平準化事業)은 수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경비 조성 및 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 둘째, 식량안보 평준화 사업(食料安全保障平準化事業)은 어업자 단체 등이 수산물을 매입·가공·운반·보관 등의 과정 이후 판매할 때, 사업의 손실 또는 조성 대상 경비에 대해 보조하는 사업. 셋째, 노토반도 지진 대책 평준화 사업(能登半島地震対策平準化事業)으로 노토 반도 지진으로 인해 수산 가공 원재료의 조달이 어려워진 가공업체에 수산물을 매입 후 제공하는 활동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넷째, 수산가공 연계 플랜 지원 사업(水産加工連携プラン支援事業)은 생산·가공·유통·판매를 포함한 공급망(Supply Chain) 상의 관계자 등이 협력하여 활동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자·양식업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또는 이들의 단체가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타 민간사업자 등과 2자 이상으로 구성된 연계 협의회를 통해 활동할 경우 자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수출 가속화 연계 추진 사업(水産物輸出加速化連携推進事業)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의 밸류체인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19) 수산물 수급 안정 공급 촉진 기구(검색일 : 2025.5.15.)

2) 기타 국가

정부 주도하에 수산물 수급 및 물가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위에서 살펴본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에 국한된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공급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EU와 노르웨이, 미국의 수산물 수급 정책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과 ‘공동수산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을 시행 중이다.

공동수산정책(CFP)은 EU 역내의 수역에서의 유럽 수산업 관리 및 해양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일련의 규칙 체계로 어업 및 양식업 활동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CFP의 목적이다. CFP에는 EU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추적 가능성, 안전성, 품질 확보, 소규모 어업을 포함한 어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공정한 생계 수준 보장, 안정적인 시장 유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식량 공급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⁰⁾

수산물 수급 안정 정책은 공동수산정책(CFP)하에서 운영되며,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42조 및 제43조(2)항에 근거한 시장 공동 조직(CMO: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²¹⁾에서 찾을 수 있다. 어업 및 양식업 제품에 대한 CMO는 농업 부문과 그 제품에 대해 제시된 목표와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수산 및 양식 CMO는 생산자 단체, 마케팅, 소비자 정보 및 인증(에코라벨), 경쟁 규칙, 그리고 시장 정보에 대한 법적 체계를 수립하였다.

주로 1차 생산자(수산 및 양식 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CMO의

20) European Union(검색일: 2025.3.15.)

21) Fact Sheets on the European Union(검색일: 2025.3.15.)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지원, 둘째, 수산업 및 양식업이 적절한 수준에서 CFP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셋째, 생산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의 어업 및 양식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넷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급망에 따른 부가가치가 균형 분배, 마지막으로 소비자 정보를 개선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 및 라벨링 등이 있다.

CFP 하에서 수산물 시장가격이 하락 할 경우 수급 조절을 통해 시장가격 급락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 가격 이하로는 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도 (Withdrawal price)가 있었으나, 시장 기능 회복 및 생산자 자율성 강화를 위해 CMO의 최신계정(EU Regulation 2021/2115)에서 폐지되면서 정책 방향이 시장 개입 중심에서 시장 수요 예측 기반의 계획 생산 체계로 전환되었다.

노르웨이의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중 수산물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으로는 총허용어획량(TAC)과 개별양도쿼터(ITQ)가 있다. 두 제도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생산된 수산물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국가의 수급에 따라 저장 및 출하를 조절한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 주도가 아닌,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를 통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에서는 수급조절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조사 및 수요예측,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의 활동도 한다.²²⁾

마지막으로 2023년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OAA)에서 발표한 국가수산 전략(National Seafood Strategy)에서는 향후 5년간 미국 국내 수산 경제를 번성시키고 기후변화에 직면한 수산 부문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22)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검색일: 2025.3.26.)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목표로 지속 가능한 어획 생산 유지 또는 확대, 지속 가능한 미국 양식 생산 확대, 미국 수산업의 국내 및 해외시장 접근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생산 및 공급 인프라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 수산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세부 전략으로 수립하고 있어 생산과 공급, 수출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3. 시사점 : 정책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 수산물 및 수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효과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으며, 기존의 물가 안정화 정책의 성과는 강화 및 확대하고, 문제 및 한계점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표 3-4〉 국내 정책 및 사례의 성과 및 한계

구분	성과 및 효과	한계	참고문헌	
수산물 분야	수산물 정부비축 (수매) 사업	• 수매 품목의 변동이 심하고, 비축률이 품목별로 편차가 커 실질적 가격안정효과에 논란이 있음 • 수매물량·판매 시기 등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적정 비축 규모 산정을 위한 재고통계의 신뢰성 낮아 추정 왜곡 발생(수품원의 재고조사의 법적 근거, 범위 한계 등) • 단기적 사후적 대응으로 선제적 관리 부족	• 장홍석 외 (2016)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 가격안정화 효과 - 투입 예산 대비 1.7배~4.9배 효과 - 신선냉장 부문에서 가격 안정화 효과 뚜렷(냉동보다 신선냉장 수요가 많고 할인 품목 비중이 큰 탓) - 생산량 급변 품목(갈치, 참조기 등)의 가격 변동성 확대 • 소비진작 효과 - 대상 업체 확대, 유통사별 효과는 대형마트 > 온라인쇼핑몰 > 중소기업 > 생협 순으로 효과가 나타남	• 최신·가용 가능한 데이터 제약으로 성과 반영 어려움 • 유통사 유형 간 효과 비교의 대표성 제약(전통시장 등 일부 자료 미포함) • 성과가 대형 유통사 집중 및 산지 어업인의 직접 효과 반영 및 분석에 제약 • 할인 정책 체감도 낮고, 참여 경험 (30% 내외) 및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체감도 낮음	• 이현동, 안병일 (2023) • 남종오 외 (2025)
농업 분야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	• 계약재배 및 가격위험관리제도를 통해 생산 조정과 판로 확보 가능하며, 일을 통해 단기적 가격 급등락 완충 가능	• 저장 및 가공 인프라, 전문인력 부족, 도매시장 가격 신호 왜곡으로 비축 및 수급 조절의 효과가 불균등하게 나타남	• 최병옥 외 (2013)
	수급조절 및 산지 폐기지원 사업	•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 수급조절 조치는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민감채소의 가격 변동성 완화에 유의한 효과	• 운영 기준, 기준 물량 산정의 불확실성으로 과잉·과소 개입 위험 • 기준 수급 물량 산정의 고도화 필요	• 안병일 외 (2017)

자료: 장홍석 외(2016), 이현동·안병일(2023), 남종오 외(2025), 최병옥 외(2013), 안병일 (2017)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2절 물가 체감 및 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수산식품 물가와 관련하여 물가 체감 및 인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심층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각 조사 대상에 맞추어, 관련 선행연구²³⁾ 참고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구성하였다.

면담조사는 제3장에서 살펴본 현황 분석, 설문조사 과정에서 수산식품 물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생산단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물가관리품목인 고등어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물가 변동에 관한 의견과 함께 최근 경영 상황 등의 현황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1. 수산식품 가공업체

1) 조사 개요

수산물·수산식품의 물가 변화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우선 국내 수산식품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산 혹은 수입산 수산물 원료를 활용하여 수산가공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수산식품가공기업 중에서도 국가 물가 관리 및 비축 대상 품목, 가공식품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요 6개 수산물 원료를 활용하는 기업을 중점적인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5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23) 김종진 외(2023), 홍재범·강한애(2024)

조사 방법의 경우에는 이메일,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수행²⁴⁾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주요 가공 원료인 수산물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제품 형태 및 원료의 원산지별 사용 현황, 원료 가격 변동에 대한 체감 정도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 가격 인상 경험 및 과정, 그리고 원료 구매 가격 변동성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3-5〉 수산식품가공기업 물가 체감 인식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수산식품가공기업 (원료 : 고등어, 오징어, 명태, 참조기, 멸치, 어육살)
조사 방법	• 이메일, 전화, 직접방문 조사
표본 크기	• 150개
조사 기간	• 2025.03. ~ 2025.06.
조사 내용	• 원산지(국산/수입산)별 수산물 원료 사용 현황 • 수산물 원료 가격 변동 체감 정도 • 수산물 원료 가격 변동에 따른 최종 판매 제품 가격 인상 경험 및 인상률, 가격 반영 기간 등 • 원료 구매 가격 변동성 대응 방안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 결과

주요 가공 원료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기업의 수를 살펴보면 참조기(조기류) 가공기업이 35개(23.3%), 명태 29개(19.3%), 오징어 26개(17.3%), 멸치·고등어·어육살 각 20개(13.3%) 순이다.

24) 조사기관 : (주) 리서치 앤 리서치

〈표 3-6〉 주요 가공 원료별 조사 사례 수(수산식품가공기업)

(단위 : 개, %)

구분	사례 수	비중
참조기	35	23.3
명태	29	19.3
오징어	26	17.3
멸치	20	13.3
고등어	20	13.3
어육살	20	13.3
합계	150	100.0

주1 : 표본 수 기준 정렬

주2 : 조기류를 주요 가공 원료로 활용하는 가공기업의 경우 '참조기'로 분류, '명태' 원료에는 명태육 및 명란포함

자료 : 조사 결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일반 현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영 형태의 경우 멸치, 어육살, 참조기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어, 명태, 오징어의 경우에는 법인 경영형태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수도권 비중은 낮고 대부분 경남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많았다.

〈표 3-7〉 수산식품가공기업 물가 체감 인식 조사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고등어	멸치	명태	어육살	오징어	참조기
경영 형태	개인	45.0	85.0	37.9	70.0	46.2	85.7
	법인	55.0	15.0	62.1	30.0	53.8	14.3
소재지	수도권	-	15.0	10.3	10.0	19.2	-
	전라권	25.0	20.0	-	-	-	85.7
	경북권	-	15.0	-	-	26.9	-
	경남권	50.0	50.0	17.2	90.0	30.8	-
	강원권	-	-	72.4	-	23.1	-
	제주권	25.0	-	-	-	-	14.3

구분		고등어	멸치	명태	어육살	오징어	참조기
종사 기간	10년 미만	10.0	15.0	37.9	35.0	26.9	14.3
	10년 이상 20년 미만	50.0	25.0	34.5	45.0	23.1	65.7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	30.0	20.7	15.0	34.6	17.1
	30년 이상	10.0	30.0	6.9	5.0	15.4	2.9
직원 수	5인 미만	25.0	70.0	20.7	70.0	15.4	80.0
	5인 이상 10인 미만	25.0	15.0	44.8	-	26.9	17.1
	10인 이상	50.0	15.0	34.5	30.0	57.7	2.9
연매출액	1억 미만	10.0	15.0	-	40.0	-	2.9
	1억 이상 10억 미만	25.0	60.0	34.5	30.0	15.4	68.6
	10억 이상 50억 미만	35.0	20.0	55.2	5.0	57.7	25.7
	50억 이상	30.0	5.0	10.3	25.0	26.9	2.9
국산/수입산 사용 여부	국산만 사용	25.0	100.0	-	10.0	7.7	20.0
	수입산만 사용	35.0	-	96.6	90.0	80.8	-
	모두 사용	40.0	-	3.4	-	11.5	8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조사 결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조사 대상 어종별, 원료로 활용되어 생산되는 수산가공식품 형태를 살펴 보면, 명태의 경우 총 6가지 종류로 다른 어종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건품(31.0%)으로 가공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어의 경우에는 냉동품(처리동결)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90.0%, 멸치는 염신포 55.0%, 어육살은 연제품 90.0%, 참조기는 염건품의 형태가 60.0%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징어의 경우에는 냉동품(처리동결), 소건품, 조미가공품 형태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3-8〉 수산가공식품 형태

(단위 : %)

구분	고등어	멸치	명태	어육살	오징어	참조기
1	냉동품 (처리동결) (90.0)	염신품 (55.0)	자건품 (31.0)	연제품 (90.0)	냉동품 (처리동결) (26.9), 소건품 (26.9), 조미가공품 (26.9)	염건품 (60.0)
2	염장품 (10.0)	자건품 (30.0)	냉동품 (처리동결) (24.1)	어유분 (10.0)		염장품 (25.7)
3	-	염장품 (15.0)	냉동품 (원형동결) (20.7)	-		냉동품 (처리동결) (14.3)
4	-	-	염신품 (13.8)	-	냉동품 (원형동결) (19.2)	-
5	-	-	조미가공품 (6.9)	-	-	-
6	-	-	염장품 (3.4)	-	-	-

자료: 저자 작성

원산지별 원료 사용량에 대한 조사 결과, 국산 사용 비중이 큰 어종으로는 고등어(63.5%), 멸치(100.0%), 참조기(83.7%)로 나타났다.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고등어 및 참조기의 경우 조달의 용이성에 따른 것이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멸치의 경우에는 신선한 원재료가 필요함에 따라 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사용 비중이 큰 어종으로는 명태(99.5%), 어육살(99.99%), 오징어(96.5%)이다.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명태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라는 이유가 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육살의 경우에는 사용의 편리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의 경우에는 원료의 단가가 수입산이 국내산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 원산지별 원료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부록에 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9〉 원료의 원산지별 사용 현황 및 구매단가

구분		원산지별 원료 사용 비중 ²⁵⁾	평균 구매단가	원산지별 원료 사용의 주요 이유
고등어	국산	63.5%	4,673원/kg	• 조달이 용이해서
	수입산	36.5%	6,047원/kg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라서
멸치	국산	100.0%	6,670원/kg	• 신선한 원재료가 필요해서
	수입산	-	-	-
명태	국산	0.5%	4,000원/kg	• 신선한 원재료가 필요해서
	수입산	99.5%	4,766원/kg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라서
어육살	국산	0.01%	14,500원/kg	• 소비자가 원산지에 민감한 원재료라서 • 신선한 원재료가 필요해서
	수입산	99.99%	3,628원/kg	• 사용이 편리하게 1차 가공이 잘 되어 있어서
오징어	국산	3.5%	12,170원/kg	•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위해서
	수입산	96.5%	9,043원/kg	• (국내산은) 원가가 높아 가격경쟁이 안돼서
참조기	국산	83.7%	37,980원/kg	• 조달이 용이해서
	수입산	16.3%	24,250원/kg	• (국내산은) 맛/품질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자료 : 저자 작성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각 가공 생산을 위한 원료 구매 단계에서 원산지별 가격 변동에 대한 체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어종 모두 상승하였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항의 경우 '매우 하락', '하락', '유지', '상승', '매우 상승' 5개 척도로 설문하였으나, 상승 및 매우 상승 외의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원산지별 원료 사용 비중은 조사한 표본별, 원산지별 원료 사용량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원산지별 가격 변동률 체감 정도를 평균 값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멸치, 참조기를 제외하고 수입산의 가격 상승에 대해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최근 3년간 수산물 가공 원료의 가격 변동 체감(주요 가공 원료 어종)

(단위 : %)

구분		상승	매우 상승	가격 변동률
고등어	국산	84.6	15.4	+ 38.1
	수입산	66.7	33.3	+ 47.3
멸치	국산	75.0	25.0	+ 58.0
	수입산	-	-	-
명태	국산	100.0	-	+ 10.0
	수입산	48.3	51.7	+ 19.1
어육살	국산	100.0	-	+ 20.0
	수입산	100.0	-	+ 20.6
오징어	국산	60.0	40.0	+ 16.0
	수입산	58.3	41.7	+ 79.0
참조기	국산	17.1	82.9	+ 53.7
	수입산	25.0	75.0	+ 34.6

자료 : 저자 작성

주요 가공 원료 외에 가공에 활용되는 원료들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일부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격 변동률 체감 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멸치 가공품에 활용되는 멸치 외 기타 원료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최근 3년간 수산식품 가공 원료의 가격 변동 체감(주요 가공 원료 외)
(단위 : %)

구분	유지	상승	매우 상승	가격 변동률
고등어	10.0	85.0	-	+ 20.1
멸치	30.0	60.0	10.0	+ 56.8
명태	6.9	55.2	37.9	+ 14.8
어육살	-	100.0	-	+ 18.0
오징어	34.6	57.7	7.7	+ 25.3
참조기	65.7	25.7	8.6	+ 27.3

주 : 문항은 '매우 하락', '하락', '유지', '상승', '매우 상승'이었으나, 하락 및 매우 하락했다는 응은 없었음
자료 : 저자 작성

다음으로, 가공식품 생산에 필요한 전체 원료 구매 비용 중 원료 어종의 구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고등어의 경우 75% 이상 100% 미만을 차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응답을 평균하면 약 53.1%로 나타났다.

멸치의 경우에는 100.0%를 차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75.8%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어종들의 경우에도 원료 어종에 대한 구매 비용이 전체 원료 구매 비용의 약 60% ~ 90%사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전체 원료 구매 비용 중 주요 수산물 원료의 비중
(단위 : %)

구분	고등어	멸치	명태	어육살	오징어	참조기
25% 미만	20.0	-	13.8	10.0	7.7	14.3
25 ~ 50% 미만	25.0	-	-	-	15.4	-
50 ~ 75% 미만	15.0	10.0	-	60.0	11.5	8.6
75 ~ 100% 미만	40.0	25.0	24.1	30.0	23.1	71.4

구분	고등어	멸치	명태	어육살	오징어	참조기
100%	-	50.0	62.1	-	42.3	5.7
평균	53.1	75.8	85.9	67.8	75.0	79.6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응답 결과를 통해 해당 어종을 원료로 활용하는 수산가공식품의 가격은 원료 어종의 가격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원료 어종을 활용한 수산가공식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명태를 활용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인상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수산가공식품 판매가격 인상 경험 유무

(단위 : %)

구분	고등어	멸치	명태	어육살	오징어	참조기
유	80.0	65.0	48.3	75.0	88.5	100.0
무	20.0	35.0	51.7	25.0	11.5	-

자료: 저자 작성

판매가격 인상 경험 유무에 대한 설문에 이어서 원료의 가격 변화가 발생한 경우, 최종 판매가격 결정에 원료 가격 변화분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그 결과 고등어의 경우에는 100% 이상 150% 미만을 반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들을 평균해 보았을 때 약 67.8%의 가격 변화분을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치의 경우에는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을 반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35.5%의 가격 변화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태와 어육살의 경우에는 20% 이상 50% 미만의 원료 가격 변동분을 최

중 판매가격에 반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들을 평균하면 각 32.8%, 25.8%의 가격 변화분을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의 경우에는 원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 100% 미만을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참조기는 100% 이상 150% 미만을 반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응답들을 평균하면 각 60.6%, 125.8%의 원료 가격 변화분을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주요 수산물 원료 가격 변동의 최종 판매가격 반영 정도

(단위 : %)

구분	고등어	멸치	명태	어육살	오징어	참조기
10% 미만	5.0	30.0	-	25.0	3.8	-
10 ~ 20% 미만	15.0	30.0	24.1	15.0	15.4	-
20 ~ 50% 미만	25.0	20.0	48.3	35.0	15.4	-
50 ~ 100% 미만	15.0	-	24.1	20.0	42.3	17.1
100 ~ 150% 미만	30.0	20.0	3.4	5.0	15.4	68.6
150% 이상	10.0	-	-	-	7.7	14.3
평균	67.8	35.5	32.8	25.8	60.6	125.8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원료 구매 가격 변화를 최종 제품의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고등어 및 명태의 경우에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응답이 각 25.0%, 34.5%로 가장 많았다. 반면, 멸치, 어육살, 참조기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각 50.0%, 30.0%, 45.7%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오징어의 경우에는 원료 어종의 단가가 변경될 경우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약 2~3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표 3-15〉 주요 수산물 원료 가격 변동의 최종 판매가격 반영 시 소요 기간

(단위 : %)

구분	고등어	멸치	명태	어육살	오징어	참조기
즉시	5.0	5.0	-	-	3.8	-
1주일 이내	15.0	-	-	5.0	-	5.7
2~3주	-	5.0	3.4	25.0	19.2	8.6
1개월	25.0	10.0	34.5	5.0	11.5	-
2~3개월	15.0	5.0	24.1	20.0	57.7	-
4~6개월	5.0	20.0	17.2	10.0	3.8	-
6개월~1년	15.0	5.0	13.8	5.0	3.8	40.0
1년 이상	20.0	50.0	6.9	30.0	-	45.7

자료: 저자 작성

원료 외 최종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어육살 외의 어종들을 원료로 활용하는 수산물가공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인건비 상승'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어육살의 경우에는 부자재 등의 기타 비용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는 최종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다.

〈표 3-16〉 주요 수산물 원료 외 최종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

구분	고등어	멸치	명태	어육살	오징어	참조기
인건비 상승	68.4	50.0	53.6	10.5	75.0	34.3
부자재 등 기타 비용 및 물가 상승	21.1	30.0	42.9	78.9	16.7	22.9

구분	고등어	멸치	명태	어육살	오징어	참조기
환율 상승 및 경기 불안정	10.5	5.0	3.6	10.5	8.3	22.9
수급 불안정	-	15.0	-	-	-	20.0
원료 가격 외 가격 영향 정도	10.5	18.3	32.0	22.6	16.0	33.4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단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4가지 요인에 대해 순위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각 순위별로 가장 많은 응답한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1순위 요인으로는 어육살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 ‘수입국 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어육살의 경우에는 환율에 따른 원료 가격 변동에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각 어종별 수산식품가공기업의 순위별 응답 비중은 부록의 ‘3. 설문조사 결과’에 제시하였다.

〈표 3-17〉 수입산 수산물 원료의 단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

구분	고등어	명태	어육살	오징어	참조기
1순위	수입국 수산물 생산량	수입국 수산물 생산량	환율	수입국 수산물 생산량	수입국 수산물 생산량
2순위	환율, 관세율	물류비용	수입국 수산물 생산량	물류비용	환율
3순위	물류비용	환율	물류비용	환율	물류비용
4순위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자료: 저자 작성

원료의 구매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고등어, 어육살을 활용하는 기업은 ‘필요한 물량만큼만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다. 오징어, 참조기를 활용하는 수산식품가공기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재고 확보'를 통해 원료 구매 가격 변동성에 대응'한다는 응답이 각 50.0%, 51.4%로 가장 많았다.

반면 멸치, 명태를 활용하는 수산물식품가공기업의 경우에는 원료의 구매 가격 변동성에 대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각 60.0%, 34.5%로 가장 많았다. 기타 대응 방안으로는 명태, 오징어, 참조기를 활용하는 수산물식품가공기업에서 거래처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안 등의 응답도 있었다.

〈표 3-18〉 수산물 원료 구매 가격 변동성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 방안

(단위 : %)

구분	고등어	멸치	명태	어육살	오징어	참조기
사전에 충분한 재고 확보	30.0	10.0	17.2	20.0	50.0	51.4
필요한 물량만큼만 구매	45.0	25.0	27.6	45.0	23.1	34.3
장기계약, 원료 구매가격을 일정 기간 고정	10.0	5.0	10.3	-	3.8	-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음	5.0	60.0	34.5	35.0	19.2	5.7
기타	5.0	-	10.3	-	3.8	8.6
기타 상세	-	-	거래처 추가확보 직거래 업체와의 계약	-	완제품 중량 조절, 거래처 추가 확보	거래처 추가확보 직거래 업체와의 계약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수산물식품가공기업의 입장에서, 수산물 원료 구매 단가가 안정되기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내용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정부

의 매입가격조정 등의 비축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물 확보를 위한 관리 등의 수급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원산지 단속 강화, 환율 안정화, 수산물 판매가격 정찰제, FTA 협상 활용, 수입 원료 확보 강화, 금리 안정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특히 명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미미한 어종으로, 명태를 포함하여 기타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 확보가 불가한 원료를 활용하는 가공식품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수산물 소비자

1) 조사 개요

소비자 측면에서의 물가 체감 및 인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 구성은 관련 선행연구²⁶⁾ 참고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구성하였다.

소비 측면에서의 체감하고 있는 수산물·수산식품의 물가 변화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5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수행²⁷⁾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수산물(원물) 및 수산식품(가공)에 대한 구매 현황, 원산지(국산/수입산)별 소비 현황, 가격 변화 체감 인식, 가격 상승 시 대응 방안, 정부의 할인 정책 경험 유무 및 중요성·효과 등으로 구성하였다.

26) 김종진 외(2023), 한기욱 외(2023)

27) 조사기관 : (주) 리서치 앤 리서치

〈표 3-19〉 소비자물가 체감 인식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수산물(원물), 수산식품(가공) 소비자
조사 방법	• 이메일, 전화 조사
표본 크기	• 500명
조사 기간	• 2025.03. ~ 2025.06.
조사 내용	• 수산물(원물) 및 수산식품(가공) 구매 및 원산지(국산/수입산)별 소비 현황 • 수산물(원물) 및 수산식품(가공) 가격 변화 체감에 대한 인식 • 가격 상승 시 대응 방안 • 정부의 할인 정책 경험 유무 및 중요성·효과 인식

자료: 저자 작성

전체 응답자는 총 500명이며, 성별,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소비자 표본을 선정하였다. 최종 응답한 소비자들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0〉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중(%)
전체		500	100.0
성별	여성	258	51.6
	남성	242	48.4
연령	20대	62	12.4
	30대	92	18.4
	40대	103	20.6
	50대	107	21.4
	60대 이상	136	27.2
지역	서울	102	20.4
	인천/경기	159	31.8
	대전/세종/충청	53	10.6
	광주/전라	42	8.4
	대구/경북	46	9.2
	부산/울산/경남	75	15.0
	강원/제주	23	4.6

구분		사례 수(명)	비중(%)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4	8.8
	200~299만원	61	12.2
	300~399만원	81	16.2
	400~499만원	71	14.2
	500~699만원	109	21.8
	700~999만원	90	18.0
	1,000만원 이상	44	8.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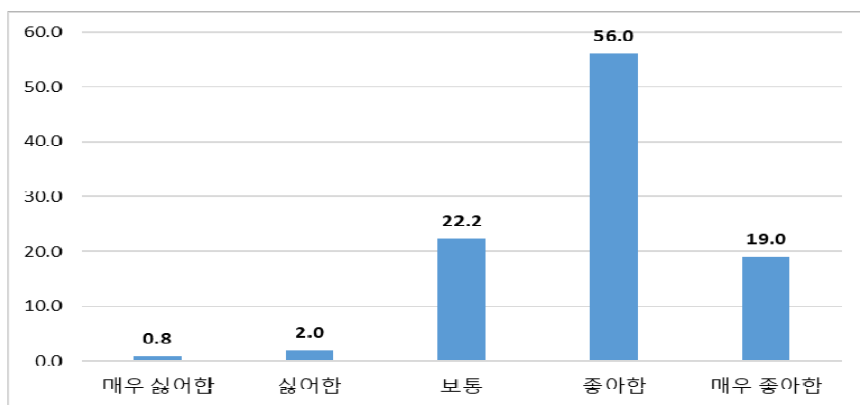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1) 수산물 및 수산식품 소비 현황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조사에 앞서, 우선 일반적인 수산물 및 수산식품 소비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보통 이하가 25.0%에 불과하고 ‘좋아함’이 56.0%, ‘매우 좋아함’이 19.0%로 나타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7〉 수산물 및 수산식품 선호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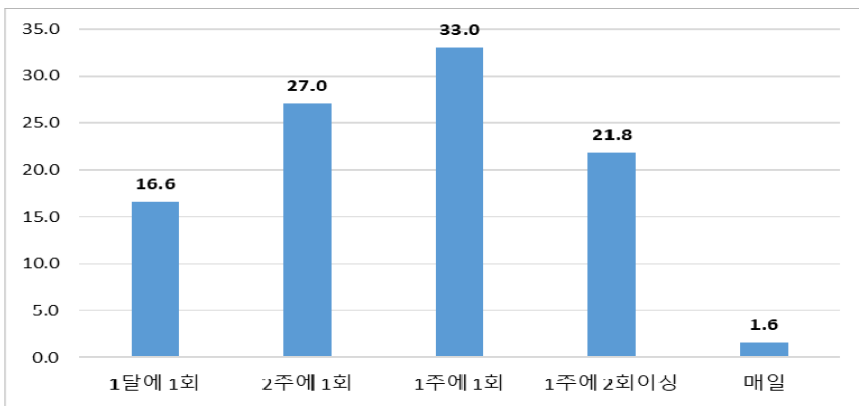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 빈도는 주 1회 이상이 5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1회 소비하는 경우가 3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주에 1회가 27.0%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수산물 및 수산식품 소비 빈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수산물 및 수산식품 주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가 60% 이상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장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장소는 전통시장 및 수산시장(20.2%),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13.4%), 식당(5.6%)의 순이었다. 수산식품의 경우에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18.6%), 전통시장 및 수산시장(16.2%), 식당(5.0%)의 순이었다. 수산식품은 수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3-21〉 수산물 및 수산식품 주 구매 장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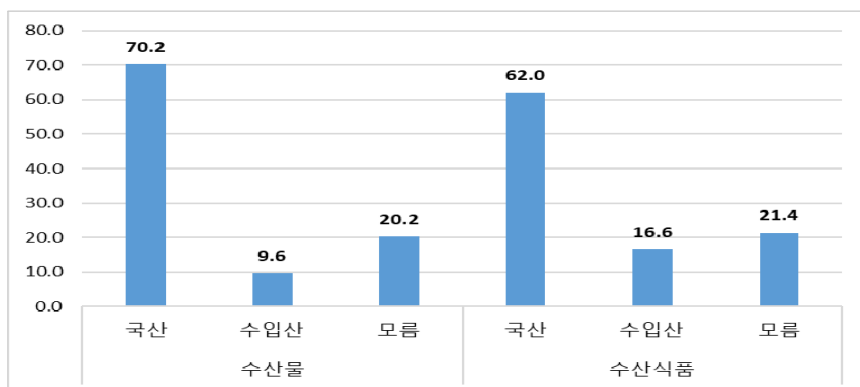
구분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수산시장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식당 (횃집, 일식 집 등)	기타	모름 /무응답
수산물	1순위	60.6	20.2	13.4	5.6	0.2	0.0
	2순위	22.4	30.0	23.8	14.0	0.0	9.8
수산식품	1순위	60.0	16.2	18.6	5.0	0.2	0.0
	2순위	21.8	26.6	29.2	6.2	0.2	16.0

자료: 저자 작성

주 구매 원산지는 수산물은 국산 70.2%, 수입산 9.6%, 수산식품은 국산 62.0%, 수입산 16.6%로 나타났다.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모두 국산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데, 수산식품의 경우가 수입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9〉 수산물 및 수산식품 주 구매 원산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조사 대상 소비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식비 지출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식비 지출이 50% 이상인 비

중이 가장 높았으며, 300만 원 이상부터 7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30~40% 미만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7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식비 지출 비중이 20~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식비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으며,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식비 비중이 30% 미만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식비 지출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2〉 전체 소비지출액(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식비 비중

단위: %

구분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
199만 원 이하	6.8	20.5	15.9	20.5	9.1	27.3
200~299만 원	0.0	16.4	29.5	16.4	8.2	29.5
300~399만 원	4.9	18.5	22.2	30.9	2.5	21.0
400~499만 원	9.9	11.3	16.9	33.8	9.9	18.3
500~699만 원	3.7	14.7	26.6	33.9	8.3	12.8
700~999만 원	5.6	17.8	32.2	16.7	11.1	16.7
1,000만 원 이상	2.3	31.8	36.4	22.7	2.3	4.5

자료: 저자 작성

식비 비중에 이어서 식비 중 수산물 및 수산식품 구매 비중을 조사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 구매 비중이 20% 미만인 경우가 60%를 넘었으며,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 구매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이에 따라 식비와는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산물 및 수산식품 소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3〉 전체 식비 대비 수산물 및 수산식품 구매 비중

단위: %

구분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
199만 원 이하	31.8	43.2	9.1	4.5	0.0	11.4
200~299만 원	18.0	45.9	16.4	11.5	4.9	3.3
300~399만 원	29.6	25.9	21.0	17.3	1.2	4.9
400~499만 원	29.6	29.6	23.9	8.5	4.2	4.2
500~699만 원	26.6	32.1	23.9	14.7	1.8	0.9
700~999만 원	21.1	28.9	25.6	14.4	2.2	7.8
1,000만 원 이상	25.0	22.7	34.1	13.6	4.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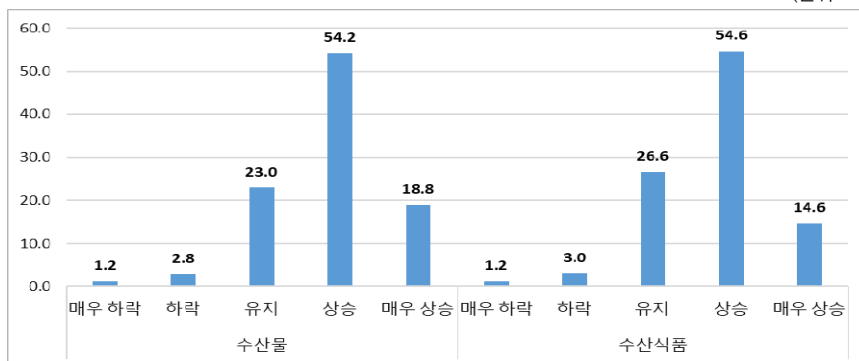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 체감 조사

소비자들이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의 변화에 대한 체감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수산물과 수산식품 모두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 응답자는 4%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상승한 것으로 체감하는 응답자가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는 경우는 수산물과 수산식품 각각 23.0%, 26.6%로 나타났다.

〈그림 3-10〉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 변화 체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수산물 품목 중 가장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품목은 오징어(48.5%), 갈치(19.5%), 고등어(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쳤을 때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앞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분석과 비교하였을 때, 오징어와 고등어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바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갈치의 경우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변동성을 보였으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3-24〉 수산물 가격 상승 체감 품목

단위: %

구분	명태	고등어	조기	갈치	멸치	오징어	기타
1순위	6.6	16.4	5.2	19.5	2.5	48.5	1.4
1+2순위	21.4	36.2	15.1	46.8	9.3	65.2	2.5

자료: 저자 작성

수산식품 중 가장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품목은 오징어채(28.9%), 조미김(20.8%), 참치캔(17.3%), 마른멸치(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쳤을 때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앞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분석과 비교하였을 때, 오징어채, 맛김, 수산물 통조림, 마른멸치의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품목들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바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25〉 수산식품 가격 상승 체감 품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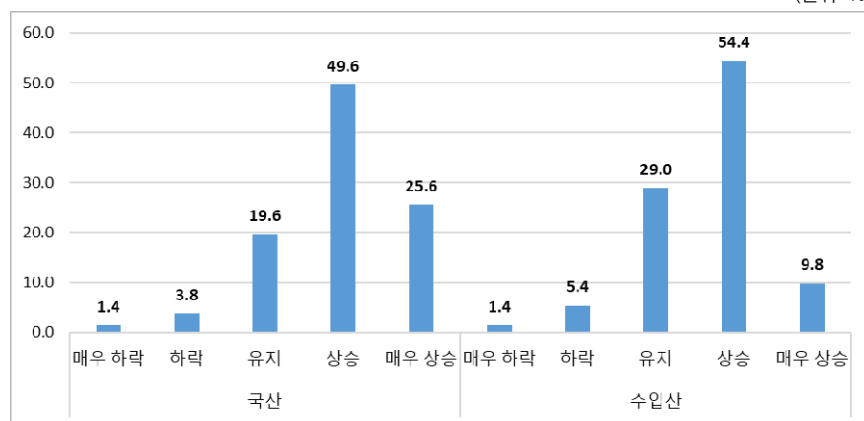
구분	고등어 통조림	쥐치포	게맛살	어묵	오징어 채	참치캔	조미김	마른 멸치
1순위	4.6	5.2	5.5	7.5	28.9	17.3	20.8	10.1
1+2순위	9.2	11.3	11.6	16.5	43.1	33.8	41.3	30.6

자료: 저자 작성

원산지별 수산물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을 살펴보면, 국산과 수입산에 대해 모두 상승했다고 체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수산물 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은 하락 5.2%, 유지 19.6%, 상승 75.2%로 체감하였으며, 수입산 수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하락 6.8%, 유지 29.0%, 상승 64.2%로 나타났다.

〈그림 3-11〉 원산지별 수산물 가격 변화 체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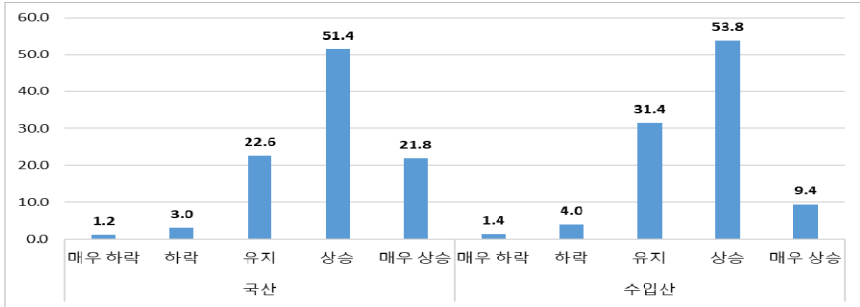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원산지별 수산식품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을 살펴 보았다. 수산물과 유사하게 국산과 수입산에 대해 모두 상승했다고 체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수산식품 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은 하락 4.2%, 유지 22.6%, 상승 73.2%로 체감하였으며, 수입산 수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하락 5.4%, 유지 31.4%, 상승 63.2%로 나타났다. 수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산식품 가격이 덜 상승한 것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2〉 원산지별 수산물 가격 변화 체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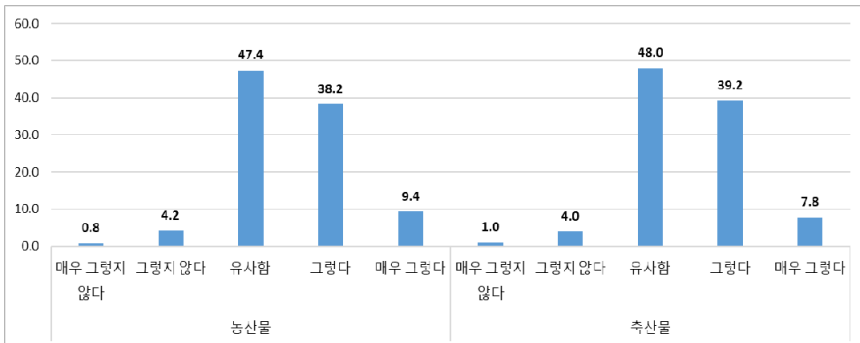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농축산물과 비교하여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가격 상승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바를 조사하였다. 농축산물과 비교하여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가격은 유사하거나 상승했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에 비해 상승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0%, 유사하다는 응답은 47.4%, 상승했다는 응답이 47.6%로 나타났으며, 축산물에 비해서는 상승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0%, 유사하다는 의견이 48.0%, 상승했다는 응답이 47.0%로 나타났다.

〈그림 3-13〉 농축산물 대비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 상승 체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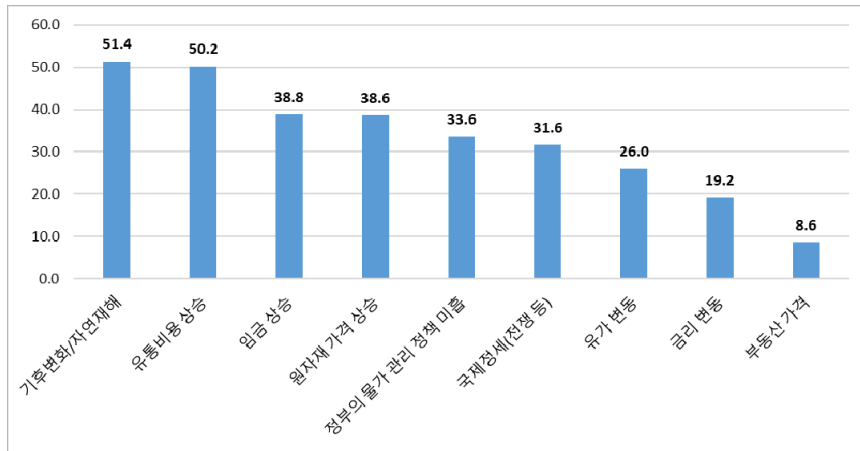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자연재해’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통비용 상승’(50.2%), ‘임금 상승’(38.8%), ‘원자재 가격 상승’(38.6%),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 미흡’(33.6%), ‘국제정세(전쟁 등)’(3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 상승 원인(중복 선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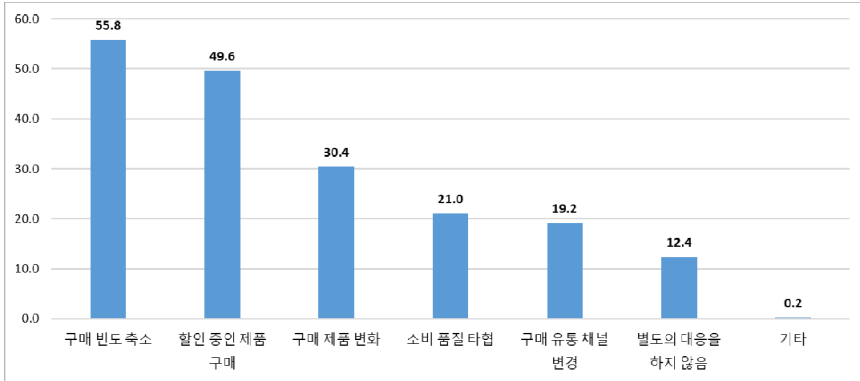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 상승 시 구매 빈도를 축소하거나 할인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응 방안으로 ‘구매 빈도 축소’(55.8%), ‘할인 중인 제품 구매’(49.6%), ‘구매 제품 변화’(30.4%), ‘소비 품질 타협’(21.0%), ‘구매 유통 채널 변경’(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 상승 대응(중복 선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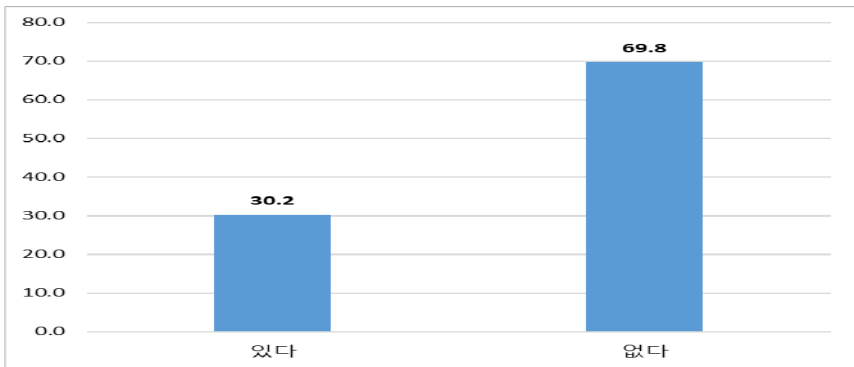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수산물 및 수산식품 할인 정책

소비자들의 수산물 및 수산식품 할인 정책에 대한 경험과 인식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수산물 및 수산물 할인 정책을 경험한 소비자는 30.2%에 불과하여 경험한 소비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16〉 수산물 및 수산식품 할인 정책 경험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소비자들은 수산물 및 수산식품 할인 정책에 대해 대부분 중요성과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 정책의 중요성이 낮다는 응답은 5.6%, 보통 29.4%, 높다 65.0%로 나타났다. 할인 정책의 효과성은 낮다는 응답이 10.8%, 보통이 37.4%, 높다는 응답이 51.8%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할인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26〉 수산물 및 수산식품 할인 정책 인식도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요성	1.6	4.0	29.4	49.0	16.0
효과성	3.2	7.6	37.4	40.4	11.4

자료: 저자 작성

3. 수산물 생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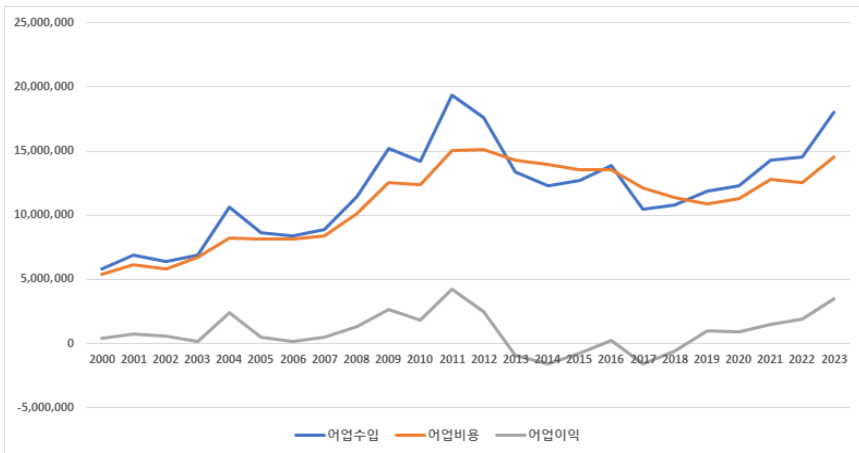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수산식품 물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생산단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산자 대상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였다. 물가관리품목인 고등어의 주요 생산자인 대형선망수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가 변동에 관한 의견과 함께 최근 경영 상황 등의 현황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어를 생산하는 주요 업종인 대형선망수협의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어업이익은 2013년에서 2018년에서 대부분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비용 증가 및 판매단가 하락 중 가장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한 주요 이유는 주요 생산 어종인 고등어 단가는

큰 변화가 없으나, 유류비, 임금 등의 비용 상승의 영향이며, 이 중에서도 유류비 변동이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최근 러-우 전쟁 등의 여파로 유류비 변동이 크게 발생하였고, 수리비의 경우 어선 규모도 크고 선단 조업이므로 한 경영체가 부담하는 어선 수가 여러 척이므로 다른 업종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대형선망어업의 어업이익 추이(2000-2023)



자료: 통계청, 어업경영조사(검색일: 2025.6.24.)

이처럼 어업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휴어기를 늘리고,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지급을 통해 선원 임금 지급 등 선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답변하였다. 또한, 러-우 전쟁 시기에 일시적으로 유류비 지원이 있었던 것처럼, 일시적인 비용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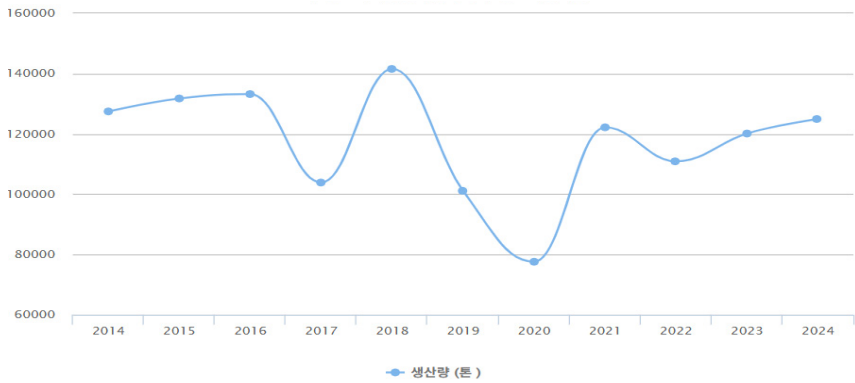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대형선망어업에서 필요한 정책 사항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이 대규모 투입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화된 어선 또

는 중고선을 구입하여 어획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규 어선 건조가 필요하다. 또한, 휴어기 기간 동안 고용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개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계절근로 지원 및 장기고용제 등이 필요하다.

향후 어업비용을 더욱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단 조업에 활용되는 어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성어기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운반선이 3척이 필요하나, 비성어기에는 각 선단별로 운반선 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다. 따라서, 운반선을 선단별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된다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최근 국내 고등어 어획은 중·대형 크기가 적고,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근해보다는 연안에 가까운 곳에서 어획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형어 위주로 어획된 국내산 고등어는 최근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러-우 전쟁의 여파로 기존 우크라이나 고등어를 수입 하던 국가에서 대체 수요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3-18〉 고등어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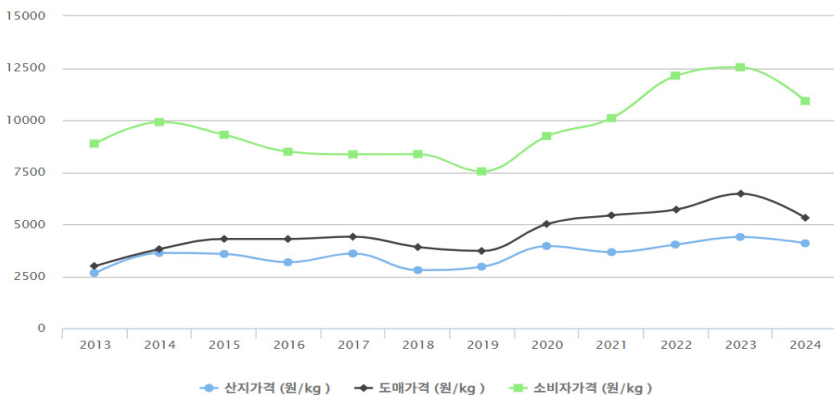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5.6.24)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업 이익을 적정 수준 달성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공급되기 위해서,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유통구조 개선을 꼽았다.

고등어 산지가격의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통구조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비, 저장비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거나, 유통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안정된 수준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어 원물을 가공하는 방법 및 시설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고등어 생산량, 어선규모를 고려할 때 위판 가능한 곳은 부산공동어시장 한 곳밖에 없는 실정임. 다만 하역 및 선별 인력의 제한 등으로 곧바로 위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선도가 저하되거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으로 대체 위판장 마련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물류 저장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많은 물량에 대한 선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3-19〉 고등어 가격(산지, 도매, 소비자)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5.6.24.)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공급자 및 소비자 측면에서 최근 수산식품 물가 변화에 대한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공급자 대상 조사에서는 주요 수산식품 원료인 참조기, 명태, 오징어, 멸치, 고등어, 어육살 6개를 활용하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산식품가공업체 대상 조사 결과, 원료 어종의 원산지별 사용 비중에 있어서 참조기, 멸치, 고등어의 경우에는 국산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특히 멸치는 전량 국산 원료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태, 오징어, 어육살의 경우에는 수입산 사용 비중이 더 많고, 특히 어육살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국산 및 수입산 원료 어종의 구매 단가 변화에 대해서는 모두 상승(상승, 매우 상승)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어종을 활용한 수산가공식품의 전체 원료 구매 비용 중 수산물 원료 구매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주요 가공 원료 사용 현황 조사 결과

구분		원료 사용 비중 (%)	평균 구매단가 (원/kg)	가격 변동률 (%)	전체 원료 비용 대비 원료 비중 (%)	원료 가격 변동의 최종 판매가격 반영 비율 (%)
참조기	국산	83.7	37,980	+ 53.7	79.6	125.8
	수입산	16.3	24,250	+ 34.6		
명태	국산	0.5	4,000	+ 10.0	85.9	32.8
	수입산	99.5	4,766	+ 19.1		
오징어	국산	3.5	12,170	+ 16.0	75.0	16.0
	수입산	96.5	9,043	+ 79.0		

구분		원료 사용 비중 (%)	평균 구매단가 (원/kg)	가격 변동률 (%)	전체 원료 비용 대비 원료 비중 (%)	원료 가격 변동의 최종 판매가격 반영 비율 (%)
멸치	국산	100.0	6,670	+ 58.0	75.8	35.5
	수입산	-	-	-		
고등어	국산	63.5	4,673	38.1	53.1	67.8
	수입산	36.5	6,047	47.3		
어육살	국산	0.01	14,500	20.0	67.8	25.8
	수입산	99.9	3,628	20.6		

자료 : 저자 작성

이렇듯 수산가공식품의 가격, 즉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산식품 물가 변동에는 원료가 되는 수산물의 구매 단가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수산물 원료 구매 단가의 변화가 최종 수산가공식품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기간에 있어서는 어종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원료의 구매 단가 변동에 있어서는 특히 수입산의 경우, 어떠한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수입국의 수산물 생산량이 1순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수입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수산가공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당 원료의 물량과 가격 측면에서의 안정적인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주요 수산물 원료 가격 변동 외에 수산가공식품의 판매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대체하는 등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동화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연구 및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비자 설문 결과, 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수산물 중 오징어, 고등어 등과 수산식품 중 오징어채, 조미김, 참치통조림, 마른 멸치 등에 대해서 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국산과 수입산 수산물 및 수산식품 모두 가격이 상승했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 대비 식비의 비중이 20~40%인 소비자 비중이 가장 많았는데, 소득 구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식비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 앞 장에서 분석한 앵겔계수 추세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식비 중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비중은 10~20%인 소비자가 가장 많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식비 중 수산물 및 수산식품 소비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저소득층은 식비의 비중은 높으나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고가의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 변동에 더 취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상승에 대해 소비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대응은 구매 빈도를 줄이거나 할인 중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할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수산물 및 수산식품 할인 정책을 경험한 소비자는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할인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중요성에 비해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할인 정책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정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04

수산물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 분석

4장에서는 수산물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을 파악하고, 수산물과 관련한 생산요소(임금 등), 수입품, 국제유가 및 환율 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 전체 및 산업부문별 물가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수입 원재료 및 수산물 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산물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수산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수산물 가격은 어획량, 기후, 국제 원자재 가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공급·수요·유통·정책 영역에서 상호작용하며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므로, 물가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요인별 구조적 특성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장과 3장을 통해 파악한 수산물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

구분	주요 변동 요인	영향
공급 요인	• 어획량 변동, 기후변화	• 생산량 불안정, 가격 급등락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 생산비 증가, 가격 전가
	• 환율 변동, 수입의존품목 비중 확대	• 원료 가격 변동 및 국내 가격 상승
수요 요인	• 계절적 수요 집중	• 단기적 가격 급등
	• 소득 수준 및 선호 변화 (대체재 가격 변화)	• 소비 패턴 변화, 수요 변동성 확대
유통 및 시장구조 요인	• 도매시장 중심의 경매제 구조	• 가격 변동성 확대
	• 단계별 유통비용 전가	• 소비자가격 불안정
정책·외부 요인	• 수입규제, 통상환경 변화	• 공급 차질, 가격 상승
	• WTO 보조금 규율 강화	• 정부의 직접적 가격 개입 한계

자료: 저자 작성

수산식품 물가 변동은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어획·생산 불안정과 국제 요인, 소비 패턴 변화는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안정, 수입 다변화, 유통 효율화, 정책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적 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수산식품 물가 안정은 생산자·소비자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제2절 수산식품 물가 파급효과 분석

1. 개요 및 분석 방법

산업연관표(2022년 연장표)를 이용하여 외생 및 내생부문 가격 변동의

물가 파급효과를 수산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표에서 수산 부분을 수산어획, 수산양식, 수산가공품 3개 부문으로 식별하고, 재분류하였다. 이렇게 재분류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 등 외생적 변동 혹은 국내 산업의 내부적 가격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수산 및 연관산업,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1) 분석 방법²⁸⁾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간 투입·산출 구조를 활용하여, 특정 산업에서 소비·투자·수출입 등 최종수요가 변할 때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과 고용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론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를 행(行) 기준의 수급균형식으로 해석하여, 특정 산업 부문의 최종수요가 변동할 경우 생산, 부가가치, 노동 유발효과 등을 추정하는 물량 중심의 분석 기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연관표를 열(列) 방향으로 바라보면 각 세부 산업부문의 투입 구성이 곧 해당 산업의 비용 구조를 의미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가격 변동이 다른 산업과 경제 전반에 어떻게 파급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산업연관표(2022년 연장표)²⁹⁾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목적에 맞춰 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을 분류·통합하여 국내산업을 168개 부문으로 집계한 소분류표를 이용하였다. 물가 파급효과 분석에 이용되는 총산출액, 부가가치내역, 국산 및 수입투입계수를 도출하기 위해 생산자가격평가표, 국산거래표, 수입거래표를 활용하였다.

28) 물가 파급효과 분석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2014), 김종진 외(2023), 이현동(2011)를 참고함

29)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산업연관표(2022년 연장표))(검색일: 2025.4.15.)

〈표 4-2〉 산업연관표의 산업 재분류(38개 부문)

재분류한 산업부문		재분류한 산업부문	
1	농산물	20	제1차 금속제품
2	축산물	21	금속제품
3	임산물	22	일반기계
4	수산업	23	전기 및 전자기기
5	수산물	24	정밀기기
6	농림어업서비스	25	수송장비
7	원유	26	기타 제조업제품
8	광산물(원유 제외)	27	전력·가스·수도
9	육류 및 낙농품	28	건설
10	수산물	29	도소매
11	정곡 및 제분	30	음식점 및 숙박
12	기타 음식료품	31	운수 및 보관
13	섬유 및 가죽제품	32	통신 및 방송
14	목재 및 종이제품	33	금융 및 보험
15	인쇄 및 복제	3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6	연료유	35	공공행정 및 국방
17	석유 및 석탄제품	36	교육 및 보건
18	화학제품	37	사회 및 기타서비스
19	비금속광물제품	38	기타

자료: 저자 작성

수산물(수산물, 수산물, 수산물)과 관련한 물가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임금 등 본원적 생산요소 가격변동, 유가 및 환율 변동, 외생부문으로 취급되는 요인인 수산부문의 생산물 가격 변동에 대해 각각의 가격 변동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3〉 물가 파급효과 유형별 분석 시나리오

구분	분석 유형	변동 산업	시나리오	비고
본원적 생산요소가격 변동	임금	수산물, 수산물, 수산물	10%, 30%, 50%, 100% ↑	-

구분	분석 유형	변동 산업	시나리오	비고
환율 및 원유 등 수입상품가격 변동	국제유가 변동	원유	10%, 30%, 70% ↑	-
	환율 변동	전 산업	10%, 30% ↑	-
내생적 생산물 가격 변동	수산부문 생산물 가격 변동	수산어획 수산양식 수산가공품	10, 30% ↑	해당 부문 외생화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임금이 상승하면 부가가치 비용이 증가하여 수산부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수산어획, 수산양식, 수산가공품 모두 임금인상률에 비례적으로 물가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수산부문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10%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수산어획’이 3.6%, ‘수산양식’ 8.0%, ‘수산가공품’ 8.3%으로 나타났으며, 수산양식과 수산가공품 부문이 수산어획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민감도를 보인다.

100% 임금 상승 시 수산가공품의 물가 파급효과는 8.29%로, 세 부문 중 가장 큰 폭을 기록한다. 이는 가공단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 임금 상승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산부문은 노동집약도가 높아 임금 상승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임금정책 변화는 단순 어획보다는 양식과 가공 중심의 수산업 물가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4-4〉 수산부문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 파급효과

구분		임금인상 시나리오			
		10%	30%	50%	100%
4	수산어획	0.036	0.109	0.181	0.362
5	수산양식	0.080	0.240	0.400	0.800
10	수산가공품	0.083	0.249	0.414	0.829

자료: 저자 작성

원유 수입 가격 상승은 주로 연료·에너지 의존도가 큰 수산어획 부문에서 강한 파급효과를 보인다. 10% 상승 시 ‘11.53%’에서 70% 상승 시 ‘80.7%’까지 확대된다. 수산양식과 수산가공품은 어획보다 상대적으로 원유 가격 충격에 덜 민감하다.

반면, 환율 상승은 수산양식과 수산가공품에서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 30% 상승 시, 수산양식은 ‘106.8%’, 수산가공품 ‘80.6%’에 달한다. 이는 양식 사료·가공 원재료 등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화가 직접적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원유) 충격은 어획 중심, 환율 충격은 양식·가공 중심으로 물가 파급효과가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원유 수입 가격 및 환율 변동의 물가 파급효과

구분		원유 수입 가격			환율	
		10%	30%	70%	10%	30%
4	수산어획	11.528	34.585	80.698	26.015	78.045
5	수산양식	3.181	9.542	22.264	35.587	106.761
10	수산가공품	3.557	10.670	24.897	26.858	80.575

자료: 저자 작성

수산어획 부문의 가격 충격은 특히 수산가공품 부문에 큰 영향을 주며, 10% 상승 시, ‘1.803%’, 30% 상승 시 ‘5.410%’로 확대된다.

수산양식 부문의 가격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수산가공품과 음식점·숙박 부문에서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수산가공품의 가격 충격은 파급 범위가 가장 넓으며, 기타 음식료품과 음식점·숙박에도 강한 영향을 준다. 특히 음식점 및 숙박 부문은 수산가공품 가격 충격 30% 시 약 0.526%의 물가 상승을 보인다. 이는 가공품이 최종 소비재로 직결되며 외식·가공식품 산업과 연계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수산어획과 수산양식 충격은 직접소비 비중이 낮아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수산가공품은 전후방 연계도가 크므로, 가격 충격이 다른 식품·서비스 산업으로 쉽게 전파된다. 따라서 수산업 전체 물가안정에서 가공부문 가격안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부문 가격 변동은 단순히 원물 생산이 아니라 가공-유통-소비단계 연계효과를 통해 더 큰 물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공단계의 원가 절감, 가격안정 장치가 소비자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4-6〉 수산부문 생산물 가격변동의 물가 파급효과

구분		수산어획		수산양식		수산가공품	
		10%	30%	10%	30%	10%	30%
4	수산어획	-	-	0.001	0.004	0.003	0.010
5	수산양식	0.010	0.031	-	-	0.015	0.045
10	수산가공품	1.803	5.410	0.851	2.552	-	-
12	기타 음식료품	0.017	0.052	0.009	0.028	0.079	0.237
30	음식점 및 숙박	0.080	0.241	0.086	0.258	0.175	0.526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수산식품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 분석

1. 개요 및 분석 방법

가격전이에 관한 연구는 장기 균형 관계를 의미하는 공적분(co-integration)을 포함하는 ARDL(Auto Regressive Distributed Lagged) 설정에 기반한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이 주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Shin et al.(2014)의 연구에서 제안한 비선형 ARDL 모형(Nonlinear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이 추정의 간편성과 함께 장단기 비대칭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으로 국내외 물가전이 분석 연구에 활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비선형 ARDL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³⁰⁾

비선형 ARDL 모형은 1차 적분된 변수들(I(0)) 사이에서 공적분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허용하는 모형으로,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된다.

$$\begin{aligned} \Delta y_t = & \rho y_{t-1} + \theta^+ x_{t-1}^+ + \theta^- x_{t-1}^- + \sum_{i=1}^{p-1} \gamma_i \Delta y_{t-i} \\ & + \sum_{i=0}^{q-1} (\pi_i^+ \Delta x_{t-i}^+ + \pi_i^- \Delta x_{t-i}^-) + \epsilon_t \end{aligned} \quad \text{식(1)}$$

여기서 x_t^+ 와 x_t^- 는 각각 기준시점에서 t시점까지의 가격 상승분 및 하락분의 누적 합을 나타내며, Δx_t^+ 와 Δx_t^- 는 각각 $\max(\Delta x_t, 0)$ 와 $\min(\Delta x_t, 0)$

30) 가격전이 분석 모형 및 방법은 Shin et al.(2014), Meyer & von Cramon-Taubadel(2004), 김종진 외(2023)의 연구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승 및 하락 시의 단기 효과는 $\sum_{i=0}^{q-1} \pi_i^+$, $\sum_{i=0}^{q-1} \pi_i^-$ 로, 그리고

장기 효과는 $-\theta^+/\rho$ 와 $-\theta^-/\rho$ 으로 계산된다. ρ 는 장기 균형으로의 수렴 속도를 나타낸다. 또한, 장기와 단기 효과가 서로 대칭적인지 여부는,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에서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전이의 추정 결과는 사용된 분석 모형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메뉴 비용 등의 존재로 인해 상위 단계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만 변동하는 경우에는 하위 단계로의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가격 변동 폭이 특정 임계값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적용한 비선형 ARDL 모형의 추정치는 판매가격 조정비용으로 인해 단위당 원가의 상승 또는 하락 폭이 판매가격 대비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한다는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격조정 행태를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추정 결과에는 편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단기 영향 정도 및 비대칭성은 장기 균형으로부터 이탈 정도가 확대될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즉, 원료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장기균형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시기에는 단기 가격전이가 본 연구의 추정치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장기균형에 대한 결론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가 전이 모형에서는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로 인해 모든 원가 요인을 동시에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변수 선택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임의성이 불가피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은 개별 품목 수준이 아니라 품목군 단위로 분석할수록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한 비용 구조를 참고하여 주요 원가 요인을 선별한 뒤 물가 전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인 해석과 결론은 산업연관 분석 결과와의 비교·보완을 통해 종합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가격전이 분석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통계청 KOSIS의 월별 물가지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4-7〉 자료의 출처

구분		출처	기간 (단위)
소비자물가지수	수산물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0년 1월 ~ 2024년 12월(월별) (2020=100)
	수산가공품		
생산자물가지수	수산물	통계청, 생산자물가조사	
	수산가공품		
수입물가지수	수산물	통계청, 수출입물가조사	
	수산가공품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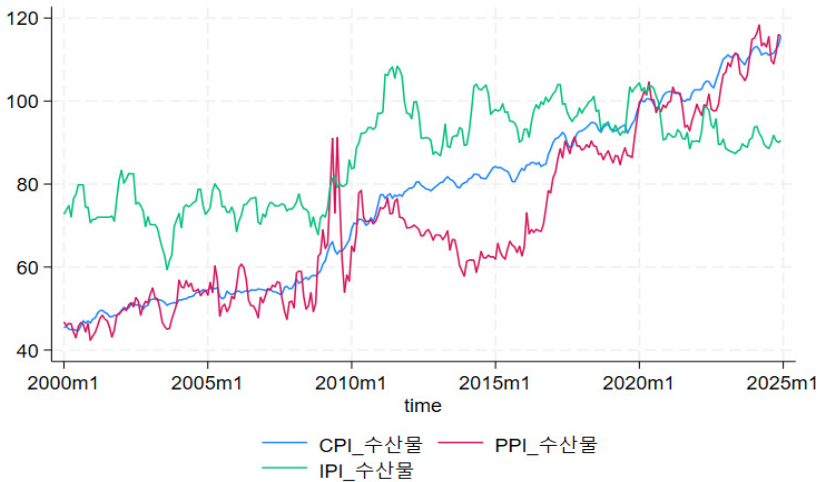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1) 수산식품 CPI, PPI, IPI 간의 가격전이

전반적인 물가 추이를 살펴보면, 수산식품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수입물가지수(IPI)는 비슷한 우상향 모습을 보인다. 2008년~2010년 전후의 PPI와 IPI 모두 급격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 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충격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2015년 이후 PPI와 CPI가 유사한 상승 추세를 보이며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PPI의 변동이 CPI로 가격전이 효과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PI의 경우,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2010년

전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조정되어, 2020년 이후 다소 정체 또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 이후 공급 불안정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추이



자료: 저자 작성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수산물은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되며, 일부는 가공식품으로 전환된 후 가구나 외식업체에서 소비된다. 또한 일부 가공식품은 유통 단계를 거쳐 바로 소비지에 도달한다. 이러한 유통 단계별 물가전이를 비선형 ARDL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산물 IPI 물가 변동이 CPI에 미치는 장기 효과는 크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다. 단기적인 IPI 상승은 CPI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하락은 즉시 반영되지 않는 비대칭적 가격전이 현상이 확인된다. 즉, 수산식품의 경우 IPI 상승이 CPI에 신속히 전가되는 반면, IPI 하락은 신속하게 CPI로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하며, 비대칭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가 안정화 방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산식품 PPI 상승은 CPI에 더 강하게, 빠르게 전이되며, 하락은 그에 비해 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가 상승 시에 소비자물가에 빠르게 전이되나, 하락 시엔 탄력적으로 전이거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기·장기 모두에서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보다 장기일 때 전이 효과가 더 크며, 비대칭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급자 비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더 강하게 반영되므로, 수립 시 가격 상승 시 전이를 억제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물가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표 4-8〉 수산식품 CPI와 PPI·IPI 간의 가격전이 분석

구분		수산식품 IPI → 수산식품 CPI	수산식품 IPI → 수산식품 PPI	수산식품 PPI → 수산식품 CPI
수렴 속도		0.031***	0.074***	0.073***
단기 효과	상승	0.1076***	0.438***	0.056***
	하락	-0.0437	-0.562	-0.101***
장기 효과	상승	0.152	0.379	0.371***
	하락	-0.165	-0.748**	-0.216***
비대칭성 검정	장기	89.24***	37.42***	129.80***
	단기	5.616	5.672*	3.016*

자료: 저자 작성

물가안정 대상 품목인 고등어의 경우, 최근 소형어 위주로 어획되면서 중·대형 사이즈의 경우 노르웨이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고등어의 수입부터 국내 소비까지의 가격전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등어의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 분석 결과, 수산식품 IPI와 고등어 CPI 간의 장기적인 비대칭성은 있으나, 단기적인 비대칭성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식품 IPI가 고등어 CPI에 미치는 장기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기 상승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수산식품의 수입물가지수가 단기적으로 오를 때 고등어의 소비자물가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전이가 발생하므로, 수입 가격 상승 시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 정책, 즉 비축, 할당관세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수입물가지수의 하락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소매점 가격 공개 등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고등어의 생산자 물가(PPI)는 고등어의 소비자물가(CPI)에 장단기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장기적인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어의 PPI가 1% 상승 및 하락 시, 단기적으로 CPI가 각각 0.12%, -0.14% 반영되며, 장기적으로는 CPI가 각각 0.3%, -0.25%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고등어의 생산자 물가가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로 빠르고 강하게 가격이 전이되지만, 하락 시에는 그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전형적인 비대칭적 가격전이 현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생산자 물가 급등 시에 가격 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어 재고 비축 확대 또는 장기 수입계약 등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가격전이 패턴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이상 전이 발견 시 이를 조정하는 맞춤형 물가 안정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고등어 CPI와 PPI, 고등어 CPI와 수산식품 IPI 간의 가격전이 분석

구분		수산식품 IPI → 고등어 CPI	고등어 PPI → 고등어 CPI
수렴 속도		-0.119***	-0.177***
단기 효과	상승	0.410*	0.122***
	하락	-0.026	-0.137***
장기 효과	상승	0.226	0.303***
	하락	-0.031	-0.249***
비대칭성 검정	장기	47.09***	62.42***
	단기	1.221	0.329

자료: 저자 작성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물가 파급효과와 비선형 ARDL 기반의 가격전이를 통해 물가 변동 요인이 산업 간 연계 및 전파되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산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원유 및 환율 상승 시에 산업별로 물가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임금 충격은 양식·가공에, 유가 충격은 어획에, 환율 충격은 양식·가공에 더 크게 파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 상승 충격은 가공단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 임금 상승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산업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단순 어획보다는 양식과 가공 중심의 수산업 물가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 충격은 연료비 비중이 큰 어획 비용을 통해 직접 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율 상승 충격은 수입 사료·가공 원재료

를 통해 양식·가공에 집중적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획과 수산양식 충격은 직접소비 비중이 낮아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수산가공품은 전후방 연계도가 크므로, 가격 충격이 다른 식품·서비스 산업으로 쉽게 전파된다. 따라서 수산업 전체 물가안정에서 가공부문 가격 안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산부문 가격 변동은 단순히 원물 생산이 아니라 가공-유통-소비단계 연계 효과를 통해 더 큰 물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공단계의 원가 절감, 가격안정 장치가 소비자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 수입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수산식품의 가격전이를 분석한 결과, 수산식품의 경우 수입 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신속히 전가되는 반면, 수입 물가 하락은 신속하게 소비자물가로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하며, 비대칭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화 방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식품 생산자 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에 더 강하게, 빠르게 전이되며, 하락은 그에 비해 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시에 소비자물가에 빠르게 전이되나, 하락 시엔 탄력적으로 전이거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단기·장기 모두에서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보다 장기일 때 전이 효과가 더 크며, 비대칭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급자 비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더 강하게 반영되므로, 수립 시 가격 상승 시 전이를 억제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물가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고등어의 가격전이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수입 가격 상승의 단기 전이와 생산자 물가 상승의 강한 전이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가격 하락 시에는 지

연 또는 축소되어 소비자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방안은 비축 방출, 할당관세·탄력관세, 공동구매·장기 운송계약, 위기 사전 모니터링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공 단계 원가 절감(에너지 효율·자동화), 유통비용 투명화, 경매제 보완·직거래 확대, 수입원 다변화, 장기 공급계약, 연료 전환 등 구조적 충격 완화 장치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05

수산물 물가 안정화 방안

제1절 목표 및 기본 방향

본 연구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 추이 분석, 국내외 물가관리정책 및 사례 분석, 공급자, 소비자, 생산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물가 체감 및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을 파악하고, 정량적으로 요인별 물가 파급효과와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 등을 분석함으로써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성 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물가관리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5-1>과 같다. 수산식품 물가 변동은 공급·수요·유통·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어획·양식의 생산 불안정, 국제 원자재·환율, 계절 수요, 경매 중심 유통구조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물가의 변동요인과 영향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5-1〉 수산식품 물가 변동요인-영향-정책방안 연계표

구분	주요 변동 요인	영향	정책 방안	
			단기(1~2년)	중장기(3년 이상)
공급 요인	• 어획량 변동, 기후변화	• 생산량 불안정, 가격 급등락	• 비축·방출 제도 확대 • 피해어업인 지원금 지급	• 양식 기술 보급 등 • 어장 환경 모니터링 강화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 생산비 증가, 가격 전가	• 사료 및 연료비 일부 보조 • 저리 정책자금 지원	• 대체사료 개발, 국산 사료산업 육성 •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기반 양식 전환
	• 환율 변동, 수입의존품목 비중 확대	• 원료 가격 변동 및 국내가격상승	• 저율관세할당(TRQ) 및 할당관세 활용한 긴급 수입 조정 • 특정국 수입 의존 완화	• FTA협정 활용한 안정적 공급선 확보 • 수입 다변화 전략 구축
수요 요인	• 계절적 수요 집중	• 단기 가격 급등	• 비축 물량 적기 방출 • 대체재 소비 홍보	• 가공·저장 능력 확충(신선냉장 창고 건설) • 수요예측기반공급망관리
	• 소득 수준 및 선호 변화(대체재 가격 변화)	• 소비 패턴 변화, 수요 변동성 확대	• 저소득층 수산물 바우처 도입 • 급식 및 공공급식에 수산물 공급 확대	• 장기적 식습관 개선 및 홍보·교육 • 수산물 소비 기반 확대(가공식품 개발 등)
유통 및 시장 구조 요인	• 도매시장 중심의 경매제 구조	• 가격 변동성 확대	• 가격 정보 실시간 제공 • 온라인 직거래·산지직송 확대	• 유통구조 개편(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유통비 절감형 인프라구축
	• 단계별 유통비용 전가	• 소비자가격 불안정	• 산지-도매-소매 간 유통 효율화 • 구매·방출로 가격 조절	• 저온물류 및 저장시설 확충 • 가공·냉동 능력 강화
정책· 외부 요인	• 수입규제, 통상환경 변화	• 공급 차질, 가격 상승	• 대체 수입국 확보(수입국 다변화) • 긴급 통관 절차 간소화	• FTA 통상협력 통한 공급 안정화 • WTO 규제 고려한 지원체계 정비
	• WTO 보조금 규율 강화	• 정부의 직접적 가격 개입 한계	• 보험·융자 등 간접지원 활용	•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중심 구조적 전환 •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자료: 저자 작성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의 어획량 변동과 기후변화 등 생산 측면의 불확실성으로 가격 급등락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은 생산·유통 전반의 비용 압력을 확대하여 국내 수산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급 요인으로 인한 물가 변동성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통합 체계 구축을 통해 물가지수의 수산물목 확대 및 가중치 개편, 물가 변동이 민감한 품목지정 및 집중 관리, 물가안정 목표치 설정, 물가지수의 작성과 공표를 검증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가지수심의회’ 운영 등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수산식품의 물가안정사업의 고도화 및 포용적 소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산물의 계절적 수요 집중과 소비자 선호 변화가 단기적인 수요 급증을 유발하여 가격 급등 및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물가 안정 정책이 잘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사업의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하며,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 및 추진도 필요하다.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비축 및 구매 지원 사업,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할당관세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 및 사업의 개선과 물가 변동성에 취약한 영세한 식품가공업체 또는 저소득층 중심의 물가 정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또한, 수산가공식품 관련 조사 및 통계가 세부 품목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신뢰성 및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공식품 관련 조사 강화, 공공 데이터를 연계한 수산식품 물가 관련 조사·분석 강화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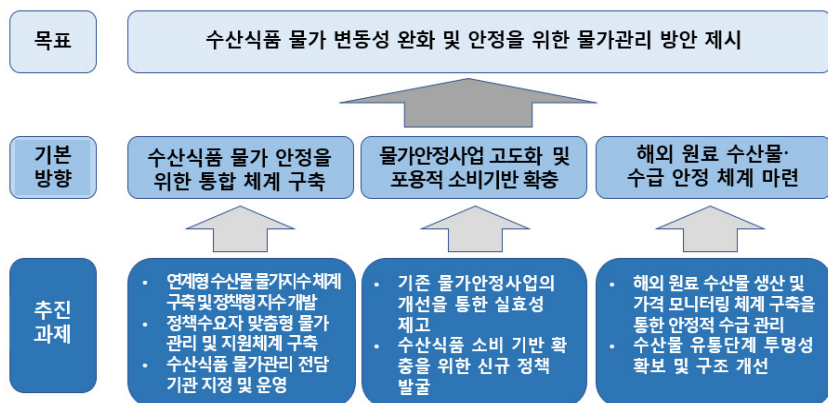
셋째, 수산식품의 유통 체계 및 시장구조 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성 확대, 소비자가격 불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물가 변동의 또 다른 요인인, 유통 및 시장구조 요인으로서는 고등어 등의 경우 경매를 통한 판매 형태

로 인해 유통 단계별로 비용 전가로 소비자가격 불안정과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장의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 조사 결과와 3장의 물가 체감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종별 차이는 있으나 수입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 해외 원료 수산물 수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장에서 가공용 원재료 수입부터 국내 가공 및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 되는 전체 수산식품 공급망에서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검증되었으며, 이는 해외 원료 수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유통 단계에서 비효율성이 발생 하게 되므로, 이러한 비효율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정책 및 외부 요인으로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공급망 위기, 수입규제, 노동 및 환경 규범 강화 등이 공급 차질을 발생시켜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킨다.

따라서, 수산식품 생산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투입재인 수산물 원료가 물가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5-1〉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제시를 위한 기본 방향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

1.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1) 연계형 수산물 물가지수 체계 구축 및 정책형 지수 개발

최근 기후변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수입물가지수(IPI)를 활용한 체계적인 물가 분석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행 물가지수 체계는 품목 연계성이 부족하고, 소비 패턴 변화 반영에도 한계가 있어 정책 대응에 제약이 있다.

2장의 물가지수 변동성 현황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관련 수출입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동일 품목을 기준으로 단계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가공용 원료의 수입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통 단계별 물가지수의 변동 경로와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 요인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 원료 수입 → 국내 유통·가공 → 도매/소매 → 최종 소비 단계까지 품목 단위로 매핑되도록 물가지수의 연계형 물가지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통계청에서 산출 및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는 5년 주기로 개편된다.³¹⁾ 이는 단기적으로 지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년 대비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배달

31) 통계청, 통계설명자료(검색일: 2025.3.20.)

및 외식 소비 확대 등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매년 기준 연도를 변경하는 등 소비 행태 변화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변경하는 것이 현행 제도에서 제약이 있다면, 공식적인 표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유지하되, 수산분야에 특화된 소비자물가지수를 개발하여 연 1회 또는 격년 단위로 수산분야의 특성에 맞게 가중치를 재산정하거나 품질 및 계절 등을 보정하여 가중치 산정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의 고려도 필요하다.

이처럼 단계별 물가지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충격 전파 경로와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수입 수산물을 포함하는 등 대상 품목을 소비 트렌드에 맞춰 확대하거나,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소매점들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물가지수 개발된다면, 빠른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할 수 있고, 조기에 물가 변동성 예측과 정책 개입을 통해 변동성 완화, 이후 사후적인 평가와 개선이 가능하여 수산식품 물가안정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수요자 맞춤형 물가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4장에서 도출한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유가 및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이 수산물 원료 수입 가격과 국내 유통·가공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어업인 소득 안정성, 수입 및 가공업체의 원가 구조, 최종 소비자의 구매력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 관리 및 지원 제도는 주로 전체 물가 변동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산물·수산식품의 특수성과 이해관계자별(어업인·업

체-소비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수요자별 맞춤형 물가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물가관리 및 정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생산량이 불안정하고, 국제 원료가격 및 환율 변동,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어업인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어획 및 양식 생산비 변동을 반영하여 가격 폭락에 대비한 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하고, 농업과 같이 수입보장보험 등을 운영하여 어업인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원료 수산물 가격 급락의 경우에는 수매 및 비축제도를 통한 안정적 수요 확보가 필요하다.

농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시범 사업으로 수입안정보험³²⁾을 운영하였는데, 농가 소득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본사업으로 올해 전환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의 농작품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가입연도)이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준 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에 과거 5년간 평균 시장 가격을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어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산업에도 '수입안정(보장)보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 원료 수입 및 가공업체를 위한 물가관리가 필요하다. 3장의 공급업체의 물가 체감 및 인식 조사 결과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해외 원료 수입 가격의 변동, 물류비 상승, 환율 불안정 등이 가공업체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국산 및 수입산 수산물 원료 구매 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 등의 재정지원 사업 검토 및

32) Farminsight(검색일 : 2025.8.22.)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등 해외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탄력적 관세 운용,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체 수입국 발굴, 긴급 통관 절차 간소화, FTA 통상 협력 등을 통한 공급 안정화가 필요하며, 공급망 안정화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를 위한 물가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 변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며,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과 건강한 식생활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3장에서 분석한 물가 체감 및 인식 조사와 4장의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수요 예측에 기반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고, 대체재 소비 홍보를 강화하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수산물 바우처 도입, 급식 및 공공급식에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물 상생할인사업과 같은 기존사업의 체감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 식습관 개선 등 교육과 사업 홍보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계절적 수요 집중 따른 단기 가격 급등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가공 및 저장할 수 있는 신선·냉장 창고 건립 등의 장기적인 대안 마련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5-2〉 정책수요자 맞춤형 신규 물가 관리 정책(안)

구분	내용 및 관련 사례
수산업 수입보장보험 도입	• 어획 및 양식 생산비 변동을 반영하여 가격 폭락에 대비한 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 • 정책대상: 어업인(생산자) • 관련 사례: 농업의 수입안정보험, 가격안정기금

구분	내용 및 관련 사례
탄력적 관세 운용 및 원료 구매 자금 지원	• 국내 생산 부족 및 가격 급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확대 유인 • 정책대상: 가공 및 수입업체 • 관련 사례: 할당관세, 한시적 TRQ 확대, 원료 구매자금지원
수산물 소비 확대 사업	• 소득 수준 및 선호 변화 등으로 수산물 수요 유인 • 정책대상: 소비자 • 관련 사례: 상생할인사업, 저소득층 농산물 바우처 도입

자료: 저자 작성

3) 수산물 물가관리 전담 기관 지정 및 운영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국민 식생활, 어업인 소득, 수입 및 가공업체의 상업 경쟁력, 소비자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주요 분야이다. 기후변화, 국제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K-푸드 선호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고등어, 오징어, 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수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의 물가 관리 체계는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물가를 포괄하여 추진되는 한계가 있어 수산 특화 물가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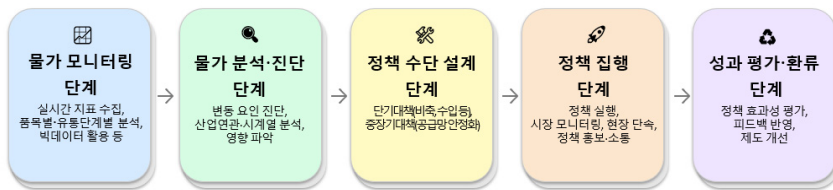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지표 산출 및 조기경보, 변동 요인 분석, 물가안정정책 추진, 정책 평가 및 환류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관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담 기관을 통해서, 수산 특화 물가지수 개발, 데이터 수집 및 관리하고, 정책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비축 및 방출, TRQ, 할당관세 등 정책 추진 및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환류하는 등 종합적으로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통합적인 수산식품 물가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AI를 활용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품목별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변동 요인 및 시기 등에 따라 분석 및 진단하여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가격 급등 또는 폭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품목별, 가격, 생산량, 환율, 유가, 물류 등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될 필요하며,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수산물 및 수산식품 전반의 물가 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5-2〉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통합 시스템



자료: 저자 작성

2. 물가안정사업 고도화 및 포용적 소비 기반 확충

1) 기존 물가안정사업의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수급 및 물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수산물자조금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물가 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 어업인 소득 안정, 소비 기반 확대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표에 제시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5-3〉 수산분야 물가안정정책의 성과 및 한계, 개선(안) 제시

성과	한계	개선 방안
가격 안정 효과 (정부비축 및 구매)	• 단기적 사후적 대응으로 선제적 관리 부족	• 수급 예측 시스템 강화 • 사전 비축 및 탄력적 방출 제도 도입(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적정 비축량 및 방출 시기 도출 및 적용) • 비축사업의 성과 분석 월/분기 단위 정례화를 통해 사업의 환류를 통한 실효성 강화
어가 소득 안정	• 예산 규모 제한으로 정책 효과 미흡	• 예산 확대 • 생산자 조직을 통한 가격 모니터링 및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 도입 검토 • 가격안정기금, 수입보장보험 등 검토
소비 기반 확대 (상생할인, 자조금)	• 할인 정책 체감도 낮고, 참여 경험(30% 내외) 부족	• 소비자 맞춤형 지원 제도 확대 •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제고
식량안보 및 공급망 안정 확보 (정부비축)	• 자조금의 경우, 어업인 자율성 부족	• 자조금 자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소비자 참여형 운영 구조 도입 • WTO, FTA 등을 활용한 해외 원료 공급망 정책과 연계
가격·소득·소비 다층적 안정 효과	• 정책 홍보 부족으로 국민 인지도 및 체감도 낮음	• 정책 홍보·캠페인 강화 • 수산물 영양·환경적 가치 부각(건강식품·저탄소·단백질원)

자료: 장흥석 외(2016), 이현동·안병일(2023), 남종오 외(2025), 안병일 외(20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특히, 기존 상생할인 정책의 경우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서 사업의 체감도가 낮게 나타났다. 상생할인 사업을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 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케컬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온, 냉장, 냉동 상품 등 신선 식품을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아침 7시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 ‘샛별배송’을 시장에 안착시키며 물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³³⁾

또한, ‘컬리 수산대전’ 등 프로모션을 통해 신선한 수산물을 빠르게 배송하고, 높은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33) 콜드체인뉴스(2022.1.25.)(검색일: 2025.8.26.)

마켓컬리에서 함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컬리 외에도 쿠팡, 배민 등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정책 활용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5-4〉 온라인 플랫폼인 ‘마켓컬리’와 ‘해양수산부’ 할인사업 연계 사례



자료: 소비자경제(2024.2.1.)(검색일: 2025.8.12.)

또한, 수산물 정기구독 모델 등 새로운 유통방식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 실제 사례로, 국내 굴 생산 선도기업인 중앙씨푸드(주)³⁴는 저속노화 트렌드 맞춰 제철 수산물 구독 서비스인 ‘아는어부’를 올해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매월 정기구독을 통해 전문 어업인의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선정해 배송하며, 원산지 정보가 아닌 어부의 이름, 선박명, 조업 날짜 등이 상세히 적혀있다. 올해 5월 정기구독 꾸러미에는 참병어, 백조기, 정치망 생멸치, 순살 고등어, 손질 키조개 등 5가지 제철 수산물이 구성되었다.

이처럼 기존 정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급 관리로 수산

34) 프레시안(2025.6.16.)(검색일 : 2025.8.31.)

물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정부 비축 및 민간 구매 등 가용 수단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물가 안정 정책을 위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 행사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전통시장 환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축 및 구매 지원의 대상 품목을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민간의 자발적 수급 조절 지원 등을 위해 구매 지원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수산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

2장의 엔겔계수 추이 및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 비중은 10~20%인 소비자가 가장 많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식비 중 수산물 및 수산식품 소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전체 식비 비중은 높으나, 식비 중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산물이 고가 식품으로 인식되어 저소득층일수록 가격 접근성이 낮아 소비가 제한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수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충격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취약할 가능성이 크므로, 저소득층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내수 소비 기반 확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식품 정책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신선한 농식품 접근성이 제한되어 영양 불균형,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식품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내 농업의 소비 기반 확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³⁵⁾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20년 시범 도입 후, 2025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 중인데, 생계급여 수급 가

구 중 임신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국내 농축산물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 외에도 임신부·영유아 식품 꾸러미 지원, 아동 과일 무상지원, 쌀 할인쿠폰 및 식품 가격 지원 등이 있다. 매년 바우처 사용처 확대, 지원 가구 수 확대, 예산 대폭 증가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청년층·1인 가구를 포함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업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농식품 정책 사례와 같이 수산식품도 저소득층 중심의 바우처, 꾸러미, 학교 무상급식과 연계 등의 신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수산식품 지원을 위해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등 유통 경로 확대를 통한 어가 소득 안정화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식품바우처와 지역의 푸드뱅크 정책 등과 연계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수산식품 지원이 필요하다. 농식품 바우처 사례를 수산식품에 적용하여 제시한 ‘수산식품 바우처 사업(안)’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5-4>와 같다. 제시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온라인, 정기배송 등을 연계할 업체와의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하며, 예산 확보 등이 중요하며, 사업의 시행 착오를 줄이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 수산식품 바우처 사업(안) : 농식품 바우처 사례 활용

구분	세부 사업 내용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신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지원 품목 : 국산 어류, 새우, 대게 등 갑각류, 전복, 굴 등 패류, 오징어, 낙지 등 연체류, 어란, 젓갈 등 • 지원 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 금액 : 4만원 (1인 기준)~ 18.7만원(10인), 인원별 차등 지급

35) 농식품바우처(검색일 : 2025.8.22.)

구분	세부 사업 내용
바우처 사용처	• (오프라인) 수산물 바우처 사용처 지정(30업체 이상, 지역별 배분 고려) -예를 들어, 하나로마트 등 일반마트, 편의점, 지역 로컬푸드직매장 • (온라인) 수산물바우처 지정 온라인 사용처 - 수협몰, 대형마트 온라인몰,마켓컬리, 아는어부(정기구독서비스) • (꾸러미 또는 정기구독 배송) 수산물 바우처 사업 신청 시 꾸러미 또는 정기구독 신청 여부 표기, 신청된 이용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정기배송

자료: 저자 작성

3. 해외 원료 수산물 수급 안정 체계 마련

최근 물가 변동성 확대 원인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러-우 전쟁,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등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수산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해외 수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 공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장과 3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산식품의 경우, 수입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아서 대외적인 환율 및 유가 상승, 임금 및 물류비 상승, 공급망 위기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수급 안정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3장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인 6개 어종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산물 원료를 원산지로 구분하면 수입산 사용 비중이 어육살 99.9%, 명태 99.5%, 오징어 96.5%, 고등어 36.5% 등으로 나타났다. 이때 전체 원료 구매 비용 중 수산물 원료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53.1%(고등어), 최대 85.9%(명태)이다. 그리고 수산물 원료 가격 변동에 따라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가공식품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비율은 최소 16.0%(오징어), 최대 125.8%(참조기)이다. 또한, 4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공용 원재료 수입부터 국내 가공 및 유통을 거쳐 소비

자에게 전달되는 전체 수산식품 공급망에서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검증되었다. 해외 원료 수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유통 단계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비효율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산식품 생산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투입재인 수산물 원료가 물가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원료로 활용되는 수산물의 공급망, 즉 국내 및 수입국에서의 수산물 생산 및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로는 원료 수산물 구매지원 사업, 국내 생산 부족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입 수산물 관세의 탄력적 운용,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산 가격 하락에 대한 보전을 제시할 수 있다.

〈표 5-5〉 해외 원료 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 및 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세부과제

구분	내용 및 관련 사례
원료 수산물 구매지원 사업	• 국산/수입산 수산물 원료 구매 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 • 관련 사례: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수입 수산물에 대한 탄력적 관세 운용	• 국내 생산 부족 및 가격 급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확대 유인 • 관련 사례: 고등어,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할당관세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산 가격 하락 보전	•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 수산물 확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 생산자에 대한 보전 • 관련 사례: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자료: 저자 작성

원료 수산물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관련 사례로 현재 우수수산물지원자금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국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원료 수산물 수매 및 해외 매출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으로, 농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와 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를 해주는 사업³⁶⁾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현재 국산 수산물 및 농산물 원료에 대한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탄력적 관세 운영의 경우에는 24년에 고등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에 따른 가격 상승을 안정화 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산 고등어 6천 톤에 관세를 인하(할당관세, 관세 10→0%)³⁷⁾하였다. 그리고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 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당관세, 마른김 20→0%, 조미김 8→0%)³⁸⁾한 사례가 있다.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국내 각 어종의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이처럼 국내 생산 감소에 따른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해당 품목에 빠른 시간 내에 적용되어, 국내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료 수산물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생산과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전담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설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5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검색일: 2025.8.20.)

3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2.23)(검색일: 2025.8.20.)

38)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5.09.)(검색일 : 2025.8.20.)

마지막으로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산 가격 하락 보전은 관련 사례로 수산물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있다. 이는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어 수입량이 증가하여, 국내 어업인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5년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으로 가리비와 붕장어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 대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앞서 제시한 원료 구매에 대한 지원과 수입 수산물 관세 인하 방안은 안정적인 수입 수산물 확보를 통해 일정 부분 국내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정책 지원을 통해 기존에 비해 증가하게 될 경우 국내 생산자의 측면에서는 가격 하락의 피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 생산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확대 시행 혹은 유사한 형태의 국내 어업인에 대한 가격 피해 보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산물의 수입부터 소비까지의 유통 단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직거래 및 산지직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제3절 추진 과제별 로드맵 수립 및 기대 효과

1. 추진 과제별 로드맵 수립

지금까지 수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 방안을 위한 추진 전략과 세부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안의 실현 가능성,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단계별 추진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6〉 정책과제의 중단기 추진 로드맵

정책과제		단기 (~1년)	중기 (~5년)	장기 (5년~)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 수산물 가격관리 전담 기관 지정 및 운영			
	• 연계형 수산물 물가지수 체계 구축 및 정책형 지수 개발			
	• 정책수요자 맞춤형 물가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물가안정사업 고도화 및 포 용적 소비 기 반 확충	• 기존 물가안정사업의 개선			
	• 비축사업의 체계 정비 - 운영 방식 다양화(비축 시기, 수입시점 확대 등)			
	• 수산물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 - 저소득층 대상 정책 마련, 공공급식 연계			
해외 원료 수산물 공급 안정 체계 마련	• 해외 원료 수산물 생산 및 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외 생산-가공 및 유통-도소매-소비자 단계별 데이터 수집 및 통계 개선			
	• 해외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유통 단계 투명성 확보 및 구조 개선			

자료: 저자 작성

2. 기대 효과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마련을 통해서는 정책의 신뢰성과 집행력 강화, 가계·산업의 안정성과 후생 증가,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지표 고도화-정책 개입-인프라 확충-성과 평가를 결합한 통합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유통정책과, 수출가공과 등 종합적인 부처 간 연계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비축 및 수매를 담당하는 수협, 생산자단체, 수입 및 가공업체, 물가 변동 현상 파악 및 정책 성과 분석 등을 추진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련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산·학·연·정을 연계한 물가 및 수급 관리 회의가 정례화된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수산식품 물가 관리 체계 고도화 및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안정, 나아가 국민 식생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7〉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의 기대 효과

정책	경제·사회	환경
• 시의성·예측 가능성 제고 - 물가관리 통합체계 운영 - 데이터 인프라 확충 • 효율성 극대화 - 유통 투명성 제고 및 구조 개선	• 후생 증가 - 취약계층 보호 및 공급망 회복력 제고 - 지역경제의 파급 • 공급망 회복력 제고 - 해외 원료 수급 안정화를 통한 가격 변동성 축소	• 지속가능성 - 과도한 어획 완화 및 자원 회복에 기여 - 지속 가능한 생산 전환 촉진 -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생산 부문의 탄소 효율 개선

자료: 저자 작성

06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 요인,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수산가공업체·수산물 수입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물가에 대한 체감 및 인식도를 파악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물가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정량적인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수산식품 공급자 및 소비자의 물가 체감 및 인식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 및 물가 관리 전략 수립에 활용이 가능하다.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 또는 상승이 국민경제에 부담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정책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식품 물가 상승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수산물 생산자 입장에서는 총수입 또는 이윤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수산물 생산자의 경우 생산비가 상승해 수산물 가격도 올라야 경영 안정화가 가능하나, 이를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물가관리 정책 수립 및 방안 제시를 위해서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을 파악하고, 수산식품 공급자 및 소비자의 물가 체감 및 인식 조사 분석 및 주요 요인 변동에 따른 물가 파급효과 및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산식품 물가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물가 변동 현황과 식품 소비 지출, 수산물 가공료 원재료 실태 분석,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 분석, 수산식품 공급자 및 소비자에 대한 물가 체감 및 인식 조사를 통해 물가 관리 및 변동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내용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목적을 제시하고, 수산물 물가, 수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산식품 물가 변동 현황, 수급 및 식품 소비지출 현황, 가공용 원료 소비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및 식품 소비 지출, 수산물 가공료 원재료 실태분석 등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및 타산업 물가 관련 정책 및 사례를 제시하고, 수산식품 공급자 및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물가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생산요소(임금 등), 수입품, 국제유가 및 환율 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 전체 및 산업부문별 물가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산식품의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 분석을 통해 수입 원재료 및 수산식품 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도출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또는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진 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각 장에서 도출된 결과와 시사점을 기반으로 5장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제언 및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산식품 물가 관리는 단순히 가격을 억제하는 차원을 넘어 어업인 소득 안정, 영세 가공업체 경영 부담 완화, 소비자 생활 안정 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종합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물가관리 전담 기관과 물가관리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법률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통계 개선 및 조사·수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해관계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물가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가지수 및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전반적인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 변동 요인 및 영향,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그쳤으며, 그 품목 또한 한정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향후 과제에서는 주요 품목별 심층분석을 통한 품목별 물가 관리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해외 생산부터 국내 소비까지 종합적인 물가관리방안을 도출이 필요하며, 정책수요자 맞춤형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및 가격 정보, 물가지수 통계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인 물가관리 시스템 구축, 기존의 물가 정책 개선 및 신규 정책 발굴, 해외 원료 수산물 및 가공식품 관련 수급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수산식품 물가지수 통계 개선,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수입 수산물 공급망 연계 물가안정정책 추진을 설정하였다.

1. 수산식품 물가지수 통계 개선

수산식품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 통계의 정합성과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수입물가지수(IIP)의 품목 체계가 상이하고 연계되지 않아 가격 전이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물가지수 품목 세분화 및 연계까지 필요하다. 수산물·수산식품의 세부 품목을 원료, 가공, 외식 등 단계별로 구분하고, 주요 소비 품목(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물가지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수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동일 품목이 수입-생산-소비 단계에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코드체계를 마련하고, CPI-PPI-IIP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유통, 비용 및 마진 분석이 가능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셋째,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 패턴 변화(1인 가구, 외식·간편식 확대 등)를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중치 산정 방식을 주기적으로 개편하고, 필요 시 매년 보정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및 공표는 통계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수산물 및 수산식품 특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발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넷째, 가공식품 통계 강화가 필요하다. 원료 소비 실태 및 가공식품 수급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산가공품 전용 통계조사를 신설·보완하여, 원료가격 상승이 가공품·외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품목별 가격 정보, 생산 정보, 해외 생산 동향 등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 생산부터 국내 소비까지 연계된 가격 데이터 조사 및 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하다.

2.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환율, 기후변화, 물류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며, 이는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 물가 관리 체계를 넘어, 수산물 특성에 기반한 물가관리 및 안정화 체계를 일원화·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첫째, 물가관리 전담 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수산물 가격 변동 요인을 상시적으로 분석·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입-유통-가공-소비 단계별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이상 가격 신호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 차원의 물가안정화 정책 시행 및 조율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가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이 요구되며, 해당 위원회는 정책 방향 설정, 위기 대응, 지원 제도 심의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선제적이며 종합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통해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연계하거나 별도의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수산물 유통법)에 물가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산물 물가안정 관리 체계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물가안정 정책을 수산업에도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6-1〉 수산물 물가안정 관련 법률 신설 또는 개정(안)

현행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 명령) (생략) 〈신설〉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 명령) 제42조의2(수산물 수급 및 물가 관리 위원회의 설치) ① 수산물 수급 및 물가 관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급 및 물가 조절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제42조1항에 따른 수산물 비축 및 방출

현행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물가 변동성이 악화되거나 물가 안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물 수급 및 물가 조절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현행 법령(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3. 수입 수산물 공급망 연계 물가안정정책 추진

수산물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일부 품목의 경우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요 원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하여 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국제 수산물 가격 변동과 환율·물류비 상승은 국내 수산식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사 사례를 보더라도 고환율의 영향 등에 따라 2025년 4월 기준 수입 고등어 가격이 평년 대비 23% 상승³⁹⁾하였으며, 2024년 12월 기준 수입 수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3.6% 상승⁴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국내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입 수산물 공급망을 연계한 정책 추진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가공식품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입 원료 가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9) 한국경제신문(2025.4.25.)(검색일: 2025.8.20.)

40) 한겨레(2025.1.16.)(검색일: 2025.8.20.)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정책 사업의 확대 운영, 기존 대응체계의 전담 기능화 등을 통한 대응력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원료 구매지원 사업 내용을 국산 원료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산 원료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탄력적 관세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생산과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 기관 지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산식품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수입 수산물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어업인이 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온전히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의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형태와 같이 피해에 대한 보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도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원료 구매지원을 통해 가공업체의 안정적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력적 관세 운용으로 공급 부족 및 국내 가격 급등 시 이를 신속히 대응하며, 국내 생산자에 대한 보전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등의 정책 균형성을 확보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고봉현(2007), GARCH 모형을 이용한 수산물 가격변동성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22(2), pp. 29-54.
- 국승용·외(2021),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pp. 1-25.
- 국정기획위원회(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국정기획위원회.
- 김덕파·어윤중(2022), 코로나 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의 원인 분석: 지출목적별 물가지수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포럼, 15(2), pp. 1-20.
- 김신표(2000), 도시철도 요금의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국경제학회, 제48권 제4호, pp. 139-162.
- 김종진(2020), 농산물 가격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세계 곡물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워킹페이퍼 W52.
- 김종진 외(2023),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창길·정학균·김태훈(2011),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철현·남종오(2018), 신선 물오징어의 도·소매시장 간 가격 변동성의 전이 및 비대칭성 분석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49(2), pp. 21-35.
- 김현용·강연실(2001), 원유가상승이 근해어업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수산경영론집, 제32권 제1호, pp. 1.-39.

-
- 남종오 외(2025),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 효과분석,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25.4.
- 문영찬(2017), 국제곡물과 배합사료 간의 가격 및 변동성 전이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미성의(2023), 포스트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과 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박철형·최치훈(2015), 수산물 소비자 및 생산자가격지수 정보전달 메커니즘의 동태적 분석, 한국도서연구, 27(1), pp. 93-112.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10.31.).
- 서상택·김태후·김성섭(2012), 축산물 가격변동의 물가 파급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농업경제연구, 53(1), pp. 63-83.
- 석준호·정대희·문한필(2023), COVID-19 전후 환율이 식품 물가에 미치는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46(3), pp. 129-148.
- 안병일·최병욱·박미성(2017), 산지폐기 및 수매비축사업이 노지채소 가격변동성에 미친 효과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4(2), pp.185-209.
- 윤영선(1990), 유가인상에 따른 건설생산원가 파급효과 분석, 국토연구, 제10권, pp. 50-55.
- 이수진(2012), 가공식품에 대한 소매, 원당, 대두수입 가격의 비대칭적 가격전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건 외(2022), 수입곡물의 물가영향 및 공급지장효과 분석, 농촌경제, 45(2), pp.1-20.
- 이용선의(2011),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p. 1-91.
- 이현동(2011),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수산부문 물가파급효과 분석, 해양수산, 통권 제3호, pp. 66-85.
- 이현동·안병일(2023),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효과분석, 해양정책연구, 제38권 제2호, pp. 91-108.
- 장홍석 외(2016),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6.11.
- 정겨운·김봉태(2021), 주요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양정책연구, 36(1), pp. 1-18.
- 최병욱 외(2013),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5), 2024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 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기옥외(2023), 우리나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은행(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 홍재범·강한애(2024), 수산물 원료 소비 실태 조사 개선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황의식·황윤재·김태이(2012), 가공식품물가의 장단기 변동요인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외 문헌

- Adjemian, M. K., Arita, S., Meyer, S., & Salin, D. (2024). Factors affecting recent food price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46(2), pp. 648-676.
- Atems, B., & Sardar, N. (2021). Exploring asymmetries in the effects of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on US food and agricultural stock prices.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81, pp. 1-14.
- Aruga, K., Islam, M. M., Jannat, A.(2023), The impacts of COVID-19 on seafood prices in Japan: A comparison between cheap and luxury products, *Plos one*, 18(10), e0291395.
- Asche, F., Dahl, R. E., & Steen, M. (2015). Price volatility in seafood markets: Farmed vs. wild fish. *Aquaculture Economics & Management*, 19(3), pp. 316-335.
- Asche, F. (2014). Exchange rates and the seafood trade. *GLOBEFISH research programme*, 113.
- Awan, A. G., & Imran, M. (2007). Factors affecting food price inflation in Pakistan. *Economic Survey*, 2009, 2013.
- Baines, J. (2014). Food price inflation as redistribution: towards a new analysis of corporate power in the world food system. *New Political Economy*, 19(1), pp. 79-112.

-
- Bandara, J. S., & Cai, Y. (2014).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food crop productivity, food prices and food security in South Asia.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44(4), pp. 451-465.
- Chen, S. T., Kuo, H. I., & Chen, C. C. (2010). Mod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il price and global food prices. *Applied Energy*, 87(8), pp. 2517-2525.
- Deb, P., Dey, M. M., & Surathkal, P. (2022). Fish price volatility dynamics in Bangladesh. *Aquaculture Economics & Management*, 26(4), pp. 462-482.
- Gilbert, C. L. (2010). How to understand high food prices.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1(2), pp. 398-425.
- Gonzales, F., Guillotreau, P., Le Grel, L., & Simioni, M. (2002). Asymmetry of price transmission within the French value chain of seafood products, *Inter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Economics and Trade*.
- Goodwin, B. K., & Holt, M. T. (1999). Price transmission and asymmetric adjustment in the US beef sector.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1(3), pp. 630-637.
- Howard, P., & Sterner, T. (2014). Raising the temperature on food prices: Climate change, food security, and the social cost of carbon.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Association Conferences*.
- Ikuemonisan, E. S. Analysis of inflation volatility for fish and meat markets in Nigeria using ARMA and GARCH types.
- Jongwanich, J., Park, D. (2011), Inflation in developing Asia: pass-through from global food and oil price shocks.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25(1), pp. 79-92.
- Jaffry, S. (2004),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 A case study of the french hake value chain. *Applied Economics*, 19(4), pp. 511-523.
- Kim, G., & Mark, T. (2017). Impacts of corn price and imported beef price on domestic beef price in South Korea. *Agricultural and Food Economics*, 5(1), 5.
- Kitworawut, P., & Rungreunganun, V. (2019). Corn price modeling and forecasting using Box-Jenkins model. *Applied Science and Engineering Progress*, 12(4), pp. 277-285.

- Ng, F., & Aksoy, M. A. (2008). Food price increases and net food importing countries: lessons from the recent past. *Agricultural Economics*, 39, pp. 443-452.
- Meyer & von Cramon-Taubadel (2004),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A Survey,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5(3), pp. 581-611.
- Mueller, S. A., Anderson, J. E., & Wallington, T. J. (2011). Impact of biofuel production and other supply and demand factors on food price increases in 2008. *Bio mass and bioenergy*, 35(5), pp. 1623-1632.
- Osei-Asare, Y. B., Eghan, M. (2013), Food price inflation and consumer welfare in Ghana.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and Agricultural Economics (IJFAEC)*, 1(1), pp. 27-39.
- Pincinato, R. B. M., Asche, F., & Oglend, A. (2020). Climate change and small pelagic fish price volatility. *Climatic Change*, 161(4), pp. 591-599.
- Sakai, Y., Tada, T., Nomura, T., Yagi, N. (2024), The Welfare Value of Freshness: A Hedonic Price Analysis in the Retail Seafood Market in Japan, *Marine Resource Economics*, 39(1), pp. 21-38.
- Samal, A., Ummalla, M., & Goyari, P. (2022). The impact of macroeconomic factors on food price inflation: an evidence from India. *Future Business Journal*, 8(1), 15.
- Shin et al. (2014), Modeling Asymmetric Conintegration and Dynamic Multipliers in a Nonlinear ARDL Framework, *Festschrift in Honor of Peter Schmidt*, pp. 281-314.
- Tejeda, H. A., & Goodwin, B. K. (2009). Price volatility, nonlinearity, and asymmetric adjustments in corn, soybean, and cattle markets: Implications of ethanol-driven (market) shocks. NCR-134/ NCCC-134 Applied Commodity Price Analysis, Forecasting, and Market Risk Management Conference
- Wolff, F. C., Salladarré, F. (2022), A first-sale price index of seafood products: evidence from France 1994-2020. *Applied Economics*, 54(27), pp. 3103-3120.
- Xu, X., & Zhang, Y. (2023). Yellow corn wholesale price forecasts via the neural network. *EconomiA*, 24(1), pp. 44-67.
- Zhao, Y., Yang, M., Zhang, Y., & Qi, C. (2010). Impact on the Chinese soybean market

ts from international prices volatility: Empirical study based on VEC model.
Af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Research, 5(15), pp. 1943-1950.

일본농림수산성(2023), 수산백서(令和5年度)

인터넷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3&act=view&list_no=436924(검색일: 2025.10.01.)

농식품바우처, <https://www.foodvoucher.go.kr>(검색일 : 2025.08.22.)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https://www.mafra.go.kr/sites/home/index.do>(검색일: 2025.3.1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03.28.),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DAN5NSUyRmFydGNsVmllldy5kbyUzRg%3D%3D>(검색일: 2025.03.25.)

_____. 보도자료(2020.02.28.),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MTk2MyUyRmFydGNsVmllldy5kbyUzRg%3D%3D>(검색일: 2025.03.25.)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https://www.mafra.go.kr/bbs/home/795/569498/artclView.do?utm_source=chatgpt.com(검색 : 2025.04.15.)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Norwegian Seafood Council), <https://en.seafood.no/>(검색일: 2025.3.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786>(검색일: 2025.3.12.)

수산물 수급 안정 공급 촉진 기구, <http://www.fishfund.or.jp>(검색일 : 2025.05.15.)

소비자경제(2024.02.01.), <https://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19>(검색일 : 2025.08.12.)

일본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검색일: 2025.3.25.)

- 일본전국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https://www.zengyoren.or.jp/>(검색일: 2025.3.25.)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검색일: 2025.3.13.)
- _____, 소비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검색일: 2025.3.20.)
- _____, 가계동향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검색일: 2025.3.20.)
- _____, 어업경영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검색일: 2025.06.24.)
- _____, 수산물가공업통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검색일: 2025.03.13.)
- _____, 통계설명자료,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ata?statsConfmNo=101007&kosisYn=Y>(검색일: 2015.03.20.)
- 콜드체인뉴스(2022.01.25.), <https://www.coldchainnews.kr/news/article.html?no=24148>(검색일: 2025.8.26.)
- 프레시안(2025.6.1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1317190437009?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8.31.)
- 한겨레(25.01.16.), 고환율에 수입산 연어·쇠고기도 비싸서 못 사먹겠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8327(검색일: 2025.08.20.)
- 한국경제신문(25.04.25.), 수입산 고등어도 먹기 겁나요”...마트 간 주부들 ‘화들짝’,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547447>(검색일: 2025.08.20.)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5 농수산물 정책자금 융자 공고, <https://www.at.or.kr/article/apko364000/view.action?articleId=47918&at.condition.currentPage=5>(검색일: 2025.08.20.)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bandtrass.or.kr/index.do>(검색일: 2025.3.13.)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수출입물가조사, <https://ecos.bok.or.kr/#/SearchStat>(검색일: 2025.3.20.)
- _____, 국민계정, <https://ecos.bok.or.kr/#/SearchStat>(검색일: 2025.3.20.)

-
- _____, 경제통계시스템(산업연관표(2022년 연장표)), <https://ecos.bok.or.kr/#/SearchStat>(검색일: 2025.04.15.)
- 한국일보(2014.10.0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716370005128>(검색일: 2025.3.1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홈페이지, <https://www.foc.re.kr/web/main/main.do?rbsIdx=1>(검색일: 2025.06.24.)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05.09.),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할당관세 시행,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6918&=&menuSeq=971&bbsSeq=10>(검색일: 2025.08.20.)
- _____, 보도자료(2024.02.23.), 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국민생선 고등어 등 수급도 직접 챙긴다,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5763&menuSeq=971&pwise=mMain&bbsSeq=10&pWiseMain=N5>(검색일: 2025.08.20.)
- 해양수산부, 2022년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bbsSeq=9&docSeq=47564&menuSeq=375&utm_source=chatgpt.com(검색: 2025.03.15.)
- European Commission,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policy/common-fisheries-policy-cfp_en(검색일: 2025.3.26.)
- Fact Sheets on the European Union, <https://www.europarl.europa.eu/factsheets/en/sheet/118/common-market-organisation-in-fishery-and-aquaculture-products>(검색일: 2025.03.15.)
- Farminsight, <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4526>(검색일: 2025.08.22.)
- National Seafood Strategy 2023, <https://www.fisheries.noaa.gov/feature-story/noaa-fisheries-releases-national-seafood-strategy-implementation-plan>(검색일: 2025.3.26.)

부 록

1. 선행연구 현황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농산물 가격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김종진(2020) • 연구 목적: 세계 곡물시장을 중심으로 곡물 수급 및 수급 이외의 요인이 가격에 반영되는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가격전이 및 예측모형 제시	• ARDL, NARDL 모형 분석 • 문헌 검토	• 곡물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가격전이 모형 식별 • 곡물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추이 및 영향 가능성 검토, 변수 식별
	2	• 과제명: 포스트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과제 • 연구자(연도): 박미성 외(2023) • 연구 목적: 코로나 19 이후 식품시장 변화 상황에서 신성장 식품산업의 안전 이슈와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 문헌 및 통계 자료 분석 •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	• 간편식, 신소재인식품, 비대면서비스, 외식 등 각 영역의 기준 및 규격, 안전점검 및 단속, 표시 및 인증 등 3가지 안전 관리 요소 등 현황 파악 • 정부의 제도 및 정책 검토 및 업계의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관리 대응 과제 도출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 과제 제시		
3	- 과제명: COVID19 전후 환율이 식품 물가에 미치는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 연구자(연도): 석준호 외(2023) - 연구 목적: 환율과 식품물가 간의 장기적인 균형 및 비대칭성 분석을 통해 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ARDL - 문헌 검토	- COVID19 전후로 환율이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CODIV19 이후 환율과 식품물가 간의 장기균형관계 및 비대칭성 분석 - 환율 상승 시기에 식품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4	- 과제명: 소비재 수입 확대가 물가 변동에 미친 영향 - 연구자(연도): 문소상·황영웅(2006) - 연구 목적: 소비재 수입개방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물가모형 분석	- 소비재 수입 확대에 따라 2003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매년 1%p 내외로 감소시키는 효과 확인 - 소비재 수입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원가상승부담의 가격전가율 감소 효과 확인 - 향후 가격경쟁 대응을 위한 생산성 향상으로 제품가격의 추가 인하 기대
5	- 과제명: GARCH 모형을 이용한 수산물 가격변동성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고봉현(2007) - 연구 목적: 가격변동이 높고 비선형동학적	- 통계 자료 분석 - ARCH, GARCH 모형 분석 - 연율 변동성 분석	- 정부비축사업 대상 수산물 중 일부(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 고등어·오징어가 갈치·명태에 비해 연율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어의 경우 가을에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특성을 가지는 수산물 가격변동성의 구조적 특성 분석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며, 갈치·명태는 가격 변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남 •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도의 민감성에 있어서는 고등어의 경우 전기의 시장충격이 다른 품목들에 비해 더 큰 영향이 나타남
6	• 과제명: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 연구자(연도): 이용선 외(2011) • 연구 목적: 국내 가공식품 물가에 미치는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의 영향 분석, 식품 물가의 변동과 소비자의 인식 및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	• 통계 자료 분석 • 산업연관분석 • 소비자 설문조사 • 식품업체 설문조사	• 수입원재료의 가격 상승이 국내 가공식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곡물과 설탕 등의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음 • 식품 물가 상승이 소비자의 가계 지출과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소비자는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국내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대책 강화, 식품기업의 가격행동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의 효과적 감시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
7	• 과제명: 축산물 가격변동의 물가 파급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 연구자(연도): 서상택	• 도시 주부 대상 설문조사 • BradleyTerry 모형 분석 •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 축산물에 비해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물가파급영향의 순위는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8	외(2012) 연구 목적: 축산물 가격 변동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와의 연관성 파악		도로여객운송 > 도시가스 > 전화 > 돼지고기 > 닭고기 > 쇠고기 순으로 나타남 축산물 가격의 변동이 소비자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타 품목과의 상대적인 평가 및 가격 안정화 방안 필요성 제시
	- 과제명: 농축수산물 가격의 물가 변동 기여율 분석 - 연구자(연도): 성호영·조덕래(2013) - 연구 목적: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 분석,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이 소비자물가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 규명	- 통계 자료 분석 - 물가 변동 기여도 산출 - 시장개방 시기별 물가 변동 기여율 비교 분석	- 자연재해 발생 및 재배면적의 진폭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의 공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에 대한 필요성 제시 - 농축수산물의 실질가격은 공업제품 가격 및 서비스 요금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소비자물가 변동에 대한 기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음 - 물가 변동 기여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국내 생산량, 기여율의 등락은 농축수산물 수급 특성에 기인함
	- 과제명: 신선 물오징어의 도·소매시장간 가격 변동성의 전이 및 비대칭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김철현·남종오(2018) - 연구 목적: 신선	- 통계 자료 분석 - Granger 인과성 검정 - VAR 모형 분석 - OffDiagonal BEKK 모형 분석	- 도매가격이 소매가격을 인과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확인 - 도·소매가격은 자체가격의 충격 전이효과가 존재하며, 교차시장 사이의 충격 전이효과는 소매가격에서 도매가격으로 일방적인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물오징어의 도매 및 소매 시장 간의 가격 변동성의 구조적 특성과 가격 비대칭성을 분석		효과가 존재함 • 도·소매가격의 비대칭성은 존재하며, 소매가격은 전일의 가격상승보다 가격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 • 교차시장 간 변동성 비대칭성 분석 결과로 전일 소매가격에서 발생한 가격상승보다 가격하락에 도매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
10	• 과제명: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실태와 시사점 • 연구자(연도): 국승용 외(2021) • 연구 목적: 농산물 생산과 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파급영향(KREIKASMO 모형) 분석	• 2021년 상반기에는 농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가 크게 나타남 • 2021년 하반기에는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물가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였음 • 농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단기적 수급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축산물 가격 상승에는 처분가능소득 증가, 식생활 패턴 변화 등이 있음 • 향후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급·수요 측면의 다양한 잠재 요인에 대한 진단 및 분석 필요성 제시
11	• 과제명: 주요 수입 수산물에 국내산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자(연도): 정겨운·김봉태(2021) • 연구 목적: 수입	• 통계 자료 분석 • 가격신축성 분석 • 3단계 최소자승법 분석	• 새우는 수입 가격 하락수입량 증대국내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확인되었음 • 오징어의 경우 국내 어획 감소로 인한 부족한 공급을 수입산으로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수산물의 수입 증대에 따른 국산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영향 추정		보완한 것으로 확인됨 수입 수산물은 FTA 양허 내용 및 상품성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영향으로 나타남
12	- 과제명: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의 원인분석: 지출목적별 물가지수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김덕파·어윤중(2022) - 연구 목적: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기간 동안의 국내외 공급 및 수요 충격에 의한 한국의 인플레이션 급등 원인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다변량 비관측요인모형	- 물가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교통,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수도/전기/연료부문의 매우 높은 추세 인플레이션 수준 유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연구의 방향성으로 최근 물가상승과 관련된 주요 품목의 물가수준과 함께 국내 다른 부문으로의 전이 여부 관찰 필요성 제시
13	- 과제명: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한 양식 멩게 단순 추정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천성훈 외(2022) - 연구 목적: 표본추정방식 한계점 보완을 위한 베이지안 추정 방법 제안 및 적용 방안 도출	- 문헌조사 - 통계 자료 분석 - 단일 모수 베이지안 추정모형 분석 - 계층적 베이지안 추정모형 분석 - 전문가 자문	- 기존 추정방법인 빈도주의 분석 방법과 베이지안 추정방안과의 결과 비교 실시 - 베이지안 추정모형의 정확도가 빈도주의 추정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높게 나타남
14	- 과제명: Inflation in developing Asia: passthrough from global food and oil price shocks - 연구자(연도): JongwanichPark(2011) - 연구 목적: 아시아 개도국에서 글로벌	- 통계 자료 분석 - VAR 모형 분석	- 다양한 경제 지표 및 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격전이 정도에 대한 통계 분석 실시 - 글로벌 식품 및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에는 정부의 보조금과 가격 통제 정책 등이 전이를 줄이거나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식품 및 석유 가격의 변화에 따른 국내 소비자 가격의 영향 정도 분석		미친 것으로 확인됨 • 적절한 정책 조치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강조
15	• 과제명: Food price inflation and consumer welfare in Ghana • 연구자(연도): OseiAsare·Eghan(2013) • 연구 목적: 가나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AIDS 모델 분석	•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에 따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실질 가계 식품 구매력은 47.18% 감소하였음 • 식품 가격의 상승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게 되며, 특히 빈곤한 가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었음 • 높은 식품 가격 변동성은 빈곤 가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 제시
16	• 과제명: A firstsale price index of seafood products: evidence from France 1994-2020 • 연구자(연도): Wolff·Salladarre (2022) • 연구 목적: 프랑스산 수산물의 판매 가격 추세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월별 연쇄 물가지수 구축 및 가격 변동 분석	• 수산물 가격 변화 및 이에 따른 어업수익에 대한 영향 분석 • 프랑스 수산물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보다 높게 상승하였음 • 수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어획량 감소로 인해 어업수익은 개선되지 않았음
17	• 과제명: The impacts of COVID19 on seafood prices in Japan: A comparison between cheap and luxury products • 연구자(연도): Aruga et al.,(2023)	• 통계 자료 분석 • NARDL 모형 분석	• 코로나19는 일본 수산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고급 수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일반 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거나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음 • 고급 수산물 가격하락의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목적: 코로나19 팬데믹이 일본의 수산물 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 고급 및 일반 수산물 간의 가격 변동 차이 비교		- 원인은 주요 소비층인 외식업계의 매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관광객 감소는 고급 수산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18	- 과제명: The Welfare Value of Freshness: A Hedonic Price Analysis in the Retail Seafood Market in Japan - 연구자(연도): Sakai et al.,(2024) - 연구 목적: 신선도에 따른 고등어 및 정어리에 대한 소비자가격 파악을 통한 신선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측정	- 통계 자료 분석 - 로그선형 헤도닉 가격 모형 분석	- 고등어의 경우 신선도가 1만큼 증가할 때 가격은 약 10.7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어리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 신선도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신선도가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였음
19	- 과제명: 가공식품물가의 장단기 변동요인과 대응방안 - 연구자(연도): 황의식·황윤재·김태이 (2012) - 연구 목적: 가공식품 물가의 변동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식품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시계열분석(GARCH, VECM 모형)	- GARCH 모형분석을 통해 가공식품 가격지수 변동성 분석 결과, 가공식품 물가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규명, 특히 수입원재료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파악 - VECM 모형을 통해 식품물가와 거시경제변수 간의 영향관계 분석, 분석 결과 대부분 자체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거시경제변수 중 환율과 이자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20	• 과제명: 한국 농업 부문 GVAR 모형 구축과 쌀 수급안정 정책 효과 분석 • 연구자(연도): 조현경(2018) • 연구 목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에 대한 수급조절 정책의 효과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GVAR 모형 분석	• 개별품목 VARX 모형의 오차 수정모형을 추정한 후, 추정된 계수들을 이용해 GVAR 모형 계수를 도출하며, 이를 통해 정책 효과 분석 • 연구 대상 품목은 미국, 맥류 및 잡곡류, 두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기타 작물류, 축산물까지 8종 • 사용 변수로 품목별 내생변수 및 대외변수는 생산량 지수, 실질 가격 지수, 수입액, 연말 재고량, 품목별 공동 변수로는 미국 가격지지, 자본, 노동, 토지, 중간재를 이용
21	• 과제명: 가공식품에 대한 소맥, 원당, 대두 수입 가격의 비대칭적 가격전이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이수진(2012) • 연구 목적: 가공식품과 원재료 사이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검증하고 가격전이의 크기 측정	• 통계 자료 분석 • VAR 모형 분석 • 비대칭오차수정모형 분석	• 소맥, 원당, 대두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군을 선정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 및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해 가공식품과 원재료 사이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검증하고, 구간탄력성추정법을 이용해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크기를 측정 • 분석 결과, 소맥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중 국수, 빵, 밀가루, 대두를 원료로 하는 두부, 식용유, 원당을 원료로 하는 설탕에서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검증 •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유통 단계별 탄력성의 차이,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유통마진을 지적
22	• 과제명: 한국에서 환율 및 국제유가의 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비선형효과 분석 • 연구자(연도): 이선희(2023) • 연구 목적: 환율과 국제유가의 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장·단기적 비대칭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NARDL(비선형 자기회귀)모형	• 비선형 자기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기간을 전체 기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및 이후 기간, 팬데믹 기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 환율과 국제유가 변화의 전가 정도를 분석 • 분석 결과, 환율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대칭적인 전가가 나타났으며 국제유가는 모든 기간 비대칭적인 전가가 나타남
23	• 과제명: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가격의 환율전가효과 분석 • 연구자(연도): 김은경(2023) • 연구 목적: 수입 수산물 수입 가격의 환율전가도를 분석하고, 수입 수산물의 가격설정행태 파악	• 통계 자료 분석 • 오차수정모형 • 자기회귀시차분포(ARDL) 모형 • 비대칭적 오차수정모형 • 비선형 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	• 수산물 수입 가격에 환율 변동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산물 전체, 어류, 갑각류로 구분하였으며, 변수로 유형별 수입 가격, 환율, 소비자물가지수, 해외 생산자물가지수 이용 • 오차수정모형과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여 장·단기 환율전가도를 분석 • 또한 환율의 등락에 따른 환율전가효과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으로 분해하여 모형을 재구성하여 장·단기 비대칭 환율전가도 분석
24	• 과제명: 수산물 소비자 및 생산자가격지수 정보전달 메커니즘의 동태적 분석 • 연구자(연도):	• 통계 자료 분석 • VAR 모형 • VECM 모형 • 다변량 GARCH 모형	• VAR 모형과 VECM 모형으로 가격전이효과를 모형화하고, 변동성전이효과를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박철형·최치훈(2015) • 연구 목적: 수산물 소비자가격지수 및 생산자가격지수로 가격결정과정에 나타나는 가격전이효과와 변동성전이효과 분석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GARCH 모형 결합하여 추정 • 수산물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소비자가격의 변화가 생산자 가격의 변화에 반영되며,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규명하여 가격안정화를 위해 가격 상승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 제시
25	• 과제명: 국제 원자재 가격의 국내 가공식품 가격반영 정도 분석 • 연구자(연도): 김성훈 외(2009) • 연구 목적: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국제 원자재의 가격 등락이 국내 관련 가공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통계 자료 분석 • 설문조사 • 외생시차분포모형	•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내 가공식품 가격의 변동 시차를 분석하고, 가공식품의 원가 구성 및 유통 단계를 분석 • 연구 범위는 수입 원자재인 밀, 대두, 원당 등을 주요 투입재로 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밀가루, 식용유, 설탕, 빵, 배합사료로 선정 • 분석 결과, 특히 국내 밀가루는 국제 밀 가격의 변화 반영 정도가 높았으나 빵의 가격 변화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추정
26	• 과제명: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 견고차,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 연구자(연도): 신용광 외(2010)	• 통계 자료 분석 • 수입 가격·생산자 가격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전이모형	• 대표적인 양념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수입 농산물 가격과 생산자 가격이 도매시장 가격으로 전이될 때의 비대칭성 여부 분석 • 분석 결과, 국내 농산물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목적: 수입농산물 가격의 국내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 영향 여부 및 가격전이의 비대칭성 여부 규명		도매가격은 국내 농산물 산지가격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고, 추가적으로 수입 농산물 가격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규명
27	- 과제명: 국제곡물과 배합사료 간의 가격 및 변동성 전이 분석 - 연구자(연도): 문영찬(2017) - 연구 목적: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현상과 변동성 전이에 대한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EGARCH 모형 분석	- 주요 사료원료의 국제가격이 수입 가격을 거쳐 배합사료 가격으로 전이되는 행태 분석 - 각 단계로의 가격전이 시, 비대칭성 존재 여부를 분석하고, 사료원료의 수입배합사료 가격의 변동성 전이 여부 분석
28	- 과제명: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A Case Study of the French Hake Value Chain - 연구자(연도): SHABBAR JAFFRY (2004) - 연구 목적: 프랑스 신선 헤이크 가치사슬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TAR, MTAR 모형	- TAR, MTAR 모형을 통해 신선 헤이크 공매가와 소매가 간의 공적분 검정을 실시 - 분석 결과, 신선 헤이크의 도매소매가격전이가 대칭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29	- 과제명: Price volatility in seafood markets: Farmed vs. wild fish - 연구자(연도): F Asche, RE Dahl, M Steen (2015) - 연구 목적: 수산물 중 어로어업과 양식업 유사 품목이 가격 안정성에 차이 여부를	- 통계 자료 분석 - 반복 누적 제곱합 (Iterated Cumulative Sum of Squares, ICSS) 분석	- 어로어업과 양식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간에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고, 또한 제품 형태별(신선과 냉동), 수산제품과 타 산업 제품(어분과 대두)과의 가격 안정성 비교 분석 - 분석 결과, 참치를 제외한 원양 어류가 가장 높은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식별		변동성이 나타났으며, 제품의 형태보다 어로어업인지 양식업인지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0	- 과제명: Exchange rates and the seafood trade - 연구자(연도): Frank Asche (2014) - 연구 목적: 환율 변동이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규명	- 통계 자료 분석 - 수요 공급 이론 - 시장 통합 이론	- 경제적 이론(수요 공급 및 시장통합 이론)를 바탕으로 환율 변동성이 수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 분석 결과, 환율 변동은 수산물 교역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유동성 제한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31	- 과제명: Asymmetry of price transmission within the French value chain of seafood products - 연구자(연도): Frédéric Gonzales 외 (2002) - 연구 목적: 프랑스 수산물 시장에서 가격의 비대칭적 전이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TAR, MTAR 모형	- 프랑스 수산물 시장에서 TAR, MTAR 모형을 이용하여 가격의 비대칭적 전이에 대한 분석 수행 - 분석 결과, 신선 대구와 연어에 대해서는 비대칭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부패성이 강한 수산물이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해서 매뉴비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32	- 과제명: Price Transmission and Asymmetric Adjustment in the U.S. Beef Sector - 연구자(연도): Barry K. Goodwin and	- 통계 자료 분석 -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 분석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통해 미국 소고기 시장에서 농가도매시장소매시장 간의 가격전이와 비대칭성에 대한 분석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Matthew T. Holt (1999) 연구 목적: 미국 소고기 시장의 가격전이와 비대칭성 분석		수행 분석 결과, 충격의 전이는 마케팅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며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전이가 나타났는데, 반대 방향으로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33	- 과제명: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food crop productivity, food prices and food security in South Asia - 연구자(연도): Bandara, J. S., and Cai, Y(2014) - 연구 목적: 남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 생산성, 식품 가격,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 모델 활용	- 일반균형모델을 활용한 남아시아(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 등에 대한 영향 분석 수행 - 분석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는 남아시아 지역의 식량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 및 식량 안보의 위협이 예상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 필요성 제시
34	- 과제명: Raising the temperature on food prices - 연구자(연도): Howard, P., and Sterner, T. (2014) - 연구 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식품 가격 및 식품 안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통계 자료 분석 - DICE2010 모델 활용, 농업피해함수 추정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에 대한 분석 수행 - 분석 결과, 기후변화에 따라 특히 개발도상국의 식품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빈곤 증가 및 식량 안보문제 야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 대응 정책 결정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과정에서 식품 가격 및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고려에 대한 필요성 제시
35	• 과제명: How to Understand High Food Prices • 연구자(연도): Gilbert, C. L. (2010) • 연구 목적: 높은 수준의 식품 가격이 설정된 원인에 대한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세계 식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오 연료 수요 및 통화 정책, 환율 변동의 영향 등 분석 • 분석 결과, 수요 증가, 통화량 확대, 환율 변동 등이 식품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식품 가격 상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확대와 같이 거시경제적 요인들 및 바이오 연료 수요 등 종합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 제시
36	• 과제명: Food Price Inflation as Redistribution: Towards a New Analysis of Corporate Power in the World Food System • 연구자(연도): Joseph Baines(2013) • 연구 목적: 기업의 이익 재분배 과정에 따른 식품 가격에 대한 영향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문헌 자료 분석	• 식품 가격의 상승에 대한 농업 생산 및 무역 기업의 자본 재분배 영향에 대한 분석 수행 • 분석 결과, 바이오 연료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곡물 무역 및 생산자들의 이익이 증대하게 되었으며, 이는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하였음 • 식품 가격의 상승은 식품 유통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간의 이익 재분배 과정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
37	• 과제명: Exploring asymmetries in the	• 통계 자료 분석 • Local projection	• 엘리뇨에 따른 미국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effects of El NinoSouthern Oscillation on U.S. food and agricultural stock prices - 연구자(연도): Atems, B., and Sardar, N. (2021) - 연구 목적: 엘니뇨에 따른 미국 식품 가격에 대한 영향 분석		비대칭적 효과 분석 수행 - 분석 결과, 엘니뇨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영향은 소폭 감소 혹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라니냐는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며 그 변화 크기는 엘니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 엘니뇨 현상에 대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영향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 제시
38	- 과제명: Mod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il price and global food prices - 연구자(연도): ShengTung Chen 외(2010) - 연구 목적: 유가 상승에 따른 세계 곡물 생산 및 가격에 대한 영향 분석	- 자기회귀 분산 시차 모델 활용 - Global Cropland Allocation Model 활용	- 곡물 가격 및 원유 가격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며, 특히 바이오연료 산업의 확대에 따른 전 세계 곡물 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유가 상승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39	- 과제명: Impact of biofuel production and other supply and demand factors on food price increases in 2008 - 연구자(연도): Mueller, S. A. (2011) - 연구 목적: 바이오 연료 생산 및 기타 수급 요인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 영향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문헌 자료 분석	- 전 세계 식량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해 바이오 연료 생산의 영향이 약 3~30%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향후 비식량 작물을 활용하는 2세대 바이오 연료 개발을 통한 미래의 식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 완화 필요성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제시
40	• 과제명: Food price increases and net food importing countries: lessons from the recent past • 연구자(연도): Ng, F., and Aksoy, M. A. • 연구 목적: 식품 가격 상승 및 식품 무역 수지 변화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문헌 자료 분석	• 2000/2001년부터 2004/2005년까지 식품 가격의 32% 상승 및 식품 무역 수지의 변화에 대해 분석을 수행 • 높은 수준의 식품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를 위한 기금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식품 수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음
41	• 과제명: Factors affecting recent food price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 연구자(연도): Adjemian, M. K. 외(2024) • 연구 목적: 최근 미국의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VAR 모델 활용	• 2021년 중반부터 나타난 미국 식량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연구 수행 • 분석 결과, 식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공급망 문제, 운송비 및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요 측면에서 통화 및 재정 변화의 영향도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향후 식품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공급망 안정화 및 수요 조절의 중요성이 있음을 제시
42	• 과제명: Factors Affecting Food Price Inflation in Pakistan • 연구자(연도): Awan,	• 통계 자료 분석 • VECM 모델 활용	• 파키스탄의 식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및 비용 변수 요인에 대한 분석 수행 • 분석 결과, 수요 및 비용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A. G., & Imran, M. (2015) 연구 목적: 파키스탄의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증가 변수로 비료 가격, 연료 가격, 통화 공급, 1인당 GDP, 해외 원조가 있으며 이는 식품 가격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반면 환율은 파키스탄의 식품가격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43	- 과제명: Impact on the Chinese soybean markets from international prices volatility: Empirical study based on VEC model - 연구자(연도): Yu Zhao, Miaomiao Yang, Yu Zhang, Chunjie Qi1 (2010) - 연구 목적: 국제 가격 변화에 따른 중국 대두의 현물·선물 시장 영향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VEC 모형	- VEC 모형을 이용해 국제 금융위기 전후 국제 대두 가격 변화에 따른 중국 대두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국 국내 대두 가격과 국제 가격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며, 균형 매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또한, 중국의 선물 시장을 통해 현물 시장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
44	- 과제명: Price Volatility, Nonlinearity, and Asymmetric Adjustments in Corn, Soybean, and Cattle Markets - 연구자(연도): Hernan A. Tejeda, Barry K. Goodwin (2009) - 연구 목적: 곡물과 축산 시장 가격의 연계성 및 비대칭성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다변량 시계열 모형	임계값 구조를 고려한 다변량 시계열 모형을 통해 곡물과 축산 가격의 비대칭적 상관관계 규명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45	• 과제명: Fish price volatility dynamics in Bangladesh • 연구자(연도): Prokash Deb (2022) • 연구 목적: 방글라데시 주요 양식어류 가격의 변동성과 가격 충격 반응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GARCH 모형	• 방글라데시 주요 양식 어류인 팡가시우스, 틸라피아, 은잉어, 로후 등네 가지 어종에 대해 소매가격의 변동성 분석 • 분석 결과, 2000년대 초반 수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 또한 GARCH 계수 분석 결과, 다른 어종에 비해 로후의 경우 가격 변동의 지속성이 낮게 나타나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 적응이 높게 나타남
46	• 과제명: Climate change and small pelagic fish price volatility • 연구자(연도): Ruth Beatriz Mezzalira Pincinato, Frank Asche, Atle Oglend (2020) • 연구 목적: 소형 회유어의 기후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 영향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로그 선형 회귀를 통한 가설 검증 • Wald 테스트	• 아한대, 온대, 열대 지역간 소형 회유성 어종의 가격 변동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 영향 여부 분석 • 분석 결과, 1979년 이전에는 온대, 아한대 지역의 가격변동성은 비슷한 수준, 열대지역의 가격변동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1979년 이후에는 아한대, 열대는 가격변동성이 증가하였는데, 온대 지역의 변동성이 낮게 나타남
47	• 과제명: Analysis of inflation volatility for fish and meat markets in Nigeria using ARMA and GARCH types • 연구자(연도): Edamisan Stephen	• 통계 자료 분석 • ARMA 모형 • GARCH 모형	• 나이지리아 육류 및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성 분석을 위해 ARMA, GARCH 모형을 적용하고, 가격 전망 분석까지 수행하여 가격 전망에 적합한 모형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Ikuemonisan (2017) • 연구 목적: 나이지리아 육류 및 수산물 소비자가격 변동성 분석		선정
48	• 과제명: The impact of macroeconomic factors on food price inflation: an evidence from India • 연구자(연도): Asharani Samal, Mallesh Ummalla, Phanindra Goyari (2022) • 연구 목적: 거시 경제 요인의 인도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 영향 규명	• 통계 자료 분석 • ARDL 공적분 검정 • Granger 인과성 검정	•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인도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시 경제 요인의 영향 분석 • 분석 결과, 1인당 소득, 통화량, 세계 식품 가격, 농업임금이 인도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에 양의 상관관계로 주요하게 영향 • 또한 1인당 소득, 환율, 1인당 곡물 소비와 식품 인플레이션은 양방향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
49	• 과제명: Corn price modeling and forecasting using BoxJenkins model • 연구자(연도): Paibool Kitworawut, Vichai Rungreunganun (2017) • 연구 목적: 옥수수 가격의 영향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가격 예측 모델 구축	• 통계 자료 분석 • ARIMA 모형 • BoxJenkins 분석	• 태국의 옥수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BoxJenkins 분석을 통해 가격 전망을 위해 적합한 모형 선정 • 태국의 옥수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닭고기 수출비중, 옥수수 수입비중, 날씨, 대두 가격, 옥수수 생산성, 재고 등으로 나타남 • 옥수수 가격 전망은 자체 2시차 가격, 대두 현물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
50	• 과제명: Impacts of corn price and imported beef price	• 통계 자료 분석 • TVAR 모형	• TVAR 모형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한우와 옥수수 가격, 수입 소고기와

구 분	선행연구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51	on domestic beef price in South Korea - 연구자(연도): GwanSeon Kim, Tyler Mark (2017) - 연구 목적: 한국 시장에서 한우와 옥수수 가격, 수입 소고기와 옥수수 가격, 한우와 수입 소고기 가격의 상관관계 규명		옥수수 가격, 한우와 수입 소고기 가격의 상관관계를 규명 - 분석 결과, 전기(전월) 호주산 소고기 가격 상승이 한우 가격에 양의 영향, 전기 옥수수 가격 변화는 한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광우병 사태 기간 동안 미국산 소고기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는데, 이후 자료로 분석하였을 때 전기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현재 한우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제명: Yellow corn wholesale price forecasts via the neural network - 연구자(연도): Xiaojie Xu, Yun Zhang (2023) - 연구 목적: 신경망을 통한 중국 옥수수 가격 예측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비선형 자동회귀 신경망 모형	- 비선형 자동회귀 신경망 모형을 통해 중국 옥수수 가격을 전망하고, 전망 모형의 예측력 평가 - 분석 결과, 신경망 모형의 예측력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제곱 오차가 각각 학습(training) 1.05%, 검증(validation) 1.08%, 테스트(testing) 1.03% 수준으로 나타남

2. 공급자 물가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결과에 대한 비밀은 보호됩니다.

주관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ID

수산식품의 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조사

2025030503-0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국가의 해양수산 정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FTA이행지원센터는 기본연구로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본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는 수산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구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현황, 수산물 구입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에 따른 최종 판매 가격의 변화 및 대처 방안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통계 결과는 연구 목적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개인 정보는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3~4월

문의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주)리서치앤리서치
	연구책임자: 박혜진 센터장(051-797-4596)	조사담당자: 김원미 차장 (02-3484-3087)
	연구담당자: 홍재범 전문연구원(051-797-4574)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 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	S/V 확인	검증원 확인	에디터 확인
	ID			

Q01. 다음은 귀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A. 회사(사업장)명	()	B. 설립년도	년	
C. 경영형태	☐ ① 개인 ☐ ② 법인	D. 직원 수	명	
E. 기업 총 매출액 규모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백만원		() * 수산식품 가공에 활용하는 원료(어종)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어종 1개 작성	
F. 주요 가공 원료 (어종명)	① 명태 (연육살 포함) ② 고등어 ③ 오징어 ④ 조기류 ⑤ 멸치 ⑥ 어육살 ⑦ 기타 ()			
G. 회사 소재 지역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수산물·수산물가공식품의 형태와 대표적인 제품명을 말씀해주세요. (예시 : 연어, 해산물 [멸치젓])

- 181

Q07. 귀사에서 생산하는 수산식품에 활용하는 전체 원료 중 '주요 가공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입니까?

전체 원료 비용 대비 : %

Q08. 최근 3년간 '주요 가공 원료'를 활용한 수산식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Q08-1번으로 ☐ ② 없다 ☒ Q09번으로

Q08-1. 가격을 인상한 경우, 인상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Q09. 귀사에서 생산하는 수산식품의 '주요 가공 원료' 구매 단가 변화가 발생한 경우, 최종 판매 가격 결정에 구매 단가 변화분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십니까? %

Q10. '주요 가공 원료'의 가격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 ① 즉시 ☐ ② 1주일 이내 ☐ ③ 2~3주 ☐ ④ 1개월
☐ ⑤ 2~3개월 ☐ ⑥ 4~6개월 ☐ ⑦ 6개월~1년 ☐ ⑧ 1년 이상

Q11. 귀사에서 생산하는 수산식품의 판매 가격 결정에 '주요 가공 원료'의 구매 단가 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A.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B.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

Q12.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만 응답) 귀사에서 구매하는 '수입산 주요 가공 원료'의 단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영향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서 나열해주시십시오. (기타 요인이 없는 경우는 4순위까지 응답)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5순위 : ()

☐ ① 수입국 수산물 생산량 ☐ ② 물류비용 ☐ ③ 환율 ☐ ④ 관세율 ☐ ⑤ 기타()

Q13. '주요 가공 원료'의 구매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① 원료의 원산지 변경 (예: 국산 ↔ 수입산, 수입국 대체) ☐ ② 장기계약을 통해 원료 구매 가격을 일정 기간동안 고정
☐ ③ 사전에 충분한 재고 확보 ☐ ④ 필요한 물량만큼만 구매
☐ ⑤ 계열화 혹은 계약생산 등을 통한 원료 생산단계에 관여 ☐ ⑥ 기타()
☐ ⑦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음

Q14. 귀사에서 생각하는 수산물 원료 구매 단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소비자물가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결과에 대한 비밀은 보호됩니다.

주관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ID

수산물 및 수산식품 소비 물가 체감 조사 설문지

2025030503-1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국가의 해양수산 정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FTA이행지원센터는 기본연구로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본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재 체감하고 있는 물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 현황과 함께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 정도 등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통계 결과는 연구 목적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개인 정보는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3월

문의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주)리서치앤리서치
	연구책임자: 박해진 센터장(051-797-4596)	조사담당자 :
	연구담당자: 홍재범 전문연구원(051-797-4574)	

구분	정의
수산물(원물)	어획 또는 양식된 상태 그대로의 생물 또는 간단한 1차 가공(손질, 냉장, 냉동)만 거친 수산물
수산식품(가공)	수산물에 2차 이상의 가공 공정인 염장, 건조, 훈제, 튀김, 캔, 레토르트 등이 적용된 제품 (예: 냉동 오징어링, 어묵, 훈제 연어, 참치 캔, 조미김 등)

※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SQ1. 연령대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SQ2.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SQ3. 거주지역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SQ4. 월평균 가구소득	☐ ① 199만원 이하	☐ ② 200~299만원	☐ ③ 300~399만원	☐ ④ 400~499만원	
	☐ ⑤ 500~699만원	☐ ⑥ 700~999만원	☐ ⑦ 1,000만원 이상		

Q01. 귀하의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한 소비 선호도 및 빈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횟수 기준 구매 장소 순위
A. 소비 선호도	☐ ① 매우 싫어함 ☐ ② 싫어함 ☐ ③ 보통 ☐ ④ 좋아함 ☐ ⑤ 매우 좋아함
B. 소비 빈도	☐ ① 1달에 1회 ☐ ② 2주에 1회 ☐ ③ 1주에 1회 ☐ ④ 1주에 2회이상 ☐ ⑤ 매일

Q02. 귀하께서 수산물·수산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장소를 구매 횟수를 기준으로 나열해주시시오.

구분	횟수 기준 구매 장소 순위				
A. 수산물(원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B. 수산식품(가공)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보기	
① 대형마트	② 전통시장 및 수산시장 ③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④ 식당 (횃집, 일식집 등) ⑤ 기타 ()

Q03. 귀하의 전체 소비지출액 대비 식비는 몇 %정도 입니까?

			%
--	--	--	---

그리고 전체 식비 대비 수산물·수산식품 구매비용의 비중은 몇 % 정도입니까?

			%
--	--	--	---

Q04. 귀하께서는 한 해 동안 국산과 수입산 수산물 및 수산식품 중 무엇을 더 많이 소비하셨습니까?

구분	더 많이 소비하는 원산지		
A. 수산물(원물)	☐ ① 국산 (비중: %)	☐ ② 수입산 (비중: %)	☐ ③ 모름
B. 수산식품(가공)	☐ ① 국산 (비중: %)	☐ ② 수입산 (비중: %)	☐ ③ 모름

Q05. 최근 3년간 수산물·수산식품의 가격은 어떻게 변화한 것으로 체감하십니까?

구분	척도				
A. 수산물(원물)	☐ ① 매우 하락	☐ ② 하락	☐ ③ 유지	☐ ④ 상승	☐ ⑤ 매우 상승
B. 수산식품(가공)	☐ ① 매우 하락	☐ ② 하락	☐ ③ 유지	☐ ④ 상승	☐ ⑤ 매우 상승

Q05-1. (Q05번 상승/매우 상승 응답자만 응답) 수산물(원물) 중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체감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체감되는 품목 2개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 ① 명태 ☐ ② 고등어 ☐ ③ 조기 ☐ ④ 갈치
☐ ⑤ 멸치 ☐ ⑥ 오징어 ☐ ⑦ 기타()

Q05-2. (Q05번 상승/매우 상승 응답자만 응답) 수산식품(가공) 중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체감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체감되는 품목 2개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 ① 고등어 통조림 ☐ ② 쥐치포 ☐ ③ 게맛살 ☐ ④ 어묵
☐ ⑤ 오징어채 ☐ ⑥ 참치캔 ☐ ⑦ 조미김 ☐ ⑧ 마른멸치
☐ ⑨ 기타()

Q06. 최근 3년간 수산물·수산식품의 원산지별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구분		척도				
수산물(원물)	국산	☐ ① 매우 하락	☐ ② 하락	☐ ③ 유지	☐ ④ 상승	☐ ⑤ 매우 상승
	수입산	☐ ① 매우 하락	☐ ② 하락	☐ ③ 유지	☐ ④ 상승	☐ ⑤ 매우 상승
수산식품(가공)	국산	☐ ① 매우 하락	☐ ② 하락	☐ ③ 유지	☐ ④ 상승	☐ ⑤ 매우 상승
	수입산	☐ ① 매우 하락	☐ ② 하락	☐ ③ 유지	☐ ④ 상승	☐ ⑤ 매우 상승

구분	척도
A. 농산물 대비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유사함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B. 축산물 대비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유사함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① 유가 변동 ☐ ② 금리 변동 ☐ ③ 유통비용 상승 ☐ ④ 임금 상승
☐ ⑤ 부동산 가격 ☐ ⑥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 미흡 ☐ ⑦ 국제정세(전쟁 등) ☐ ⑧ 기후변화/자연재해
☐ ⑨ 원자재 가격 상승 ☐ ⑩ 기타()

☐ ① 할인 중인 아종·제품 구매 ☐ ② 구매 아종·제품의 변화 ☐ ③ 해당 아종·제품의 구매 빈도 축소
☐ ④ 구매 유통 채널 변경 ☐ ⑤ 소비하는 품질 수준 다함(맛·영양·안전) ☐ ⑥ 기타()
☐ ⑦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음

☐ ① 있다 ☐ ②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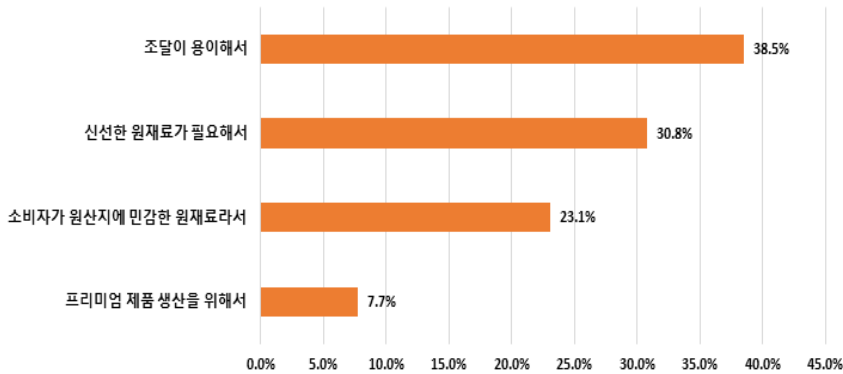
구분	척도				
A. 중요성	☐ ① 매우 낮음	☐ ② 낮음	☐ ③ 보통	☐ ④ 높음	☐ ⑤ 매우 높음
B. 효과	☐ ① 매우 낮음	☐ ② 낮음	☐ ③ 보통	☐ ④ 높음	☐ ⑤ 매우 높음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설문조사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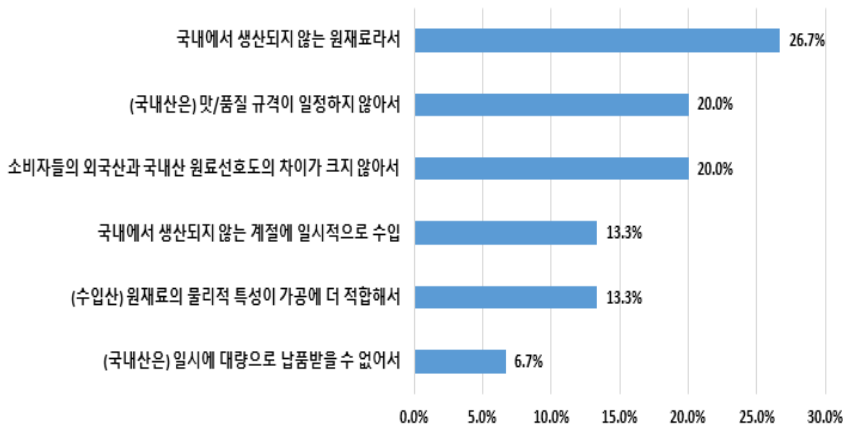
(원산지별 원료 사용 이유, 수입산수산물 단가 변동 요인) ——

〈그림 부록-1〉 국산 원료 사용 이유(고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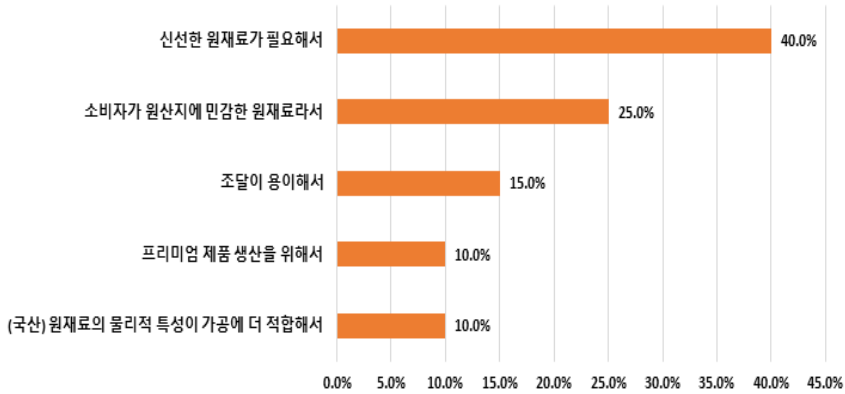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부록-2〉 수입산 원료 사용 이유(고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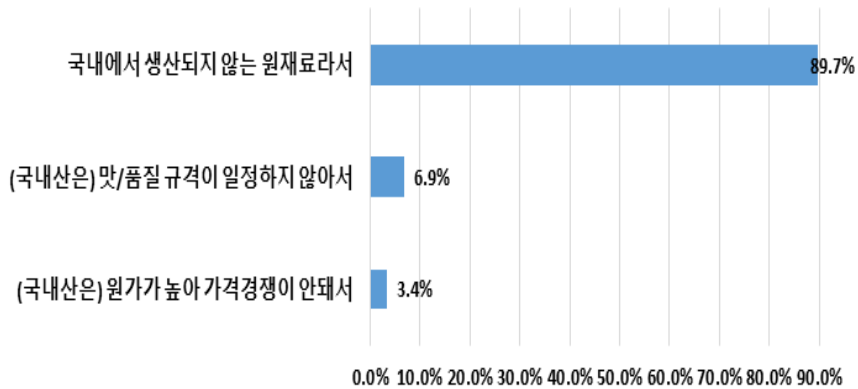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부록-3〉 국산 원료 사용 이유(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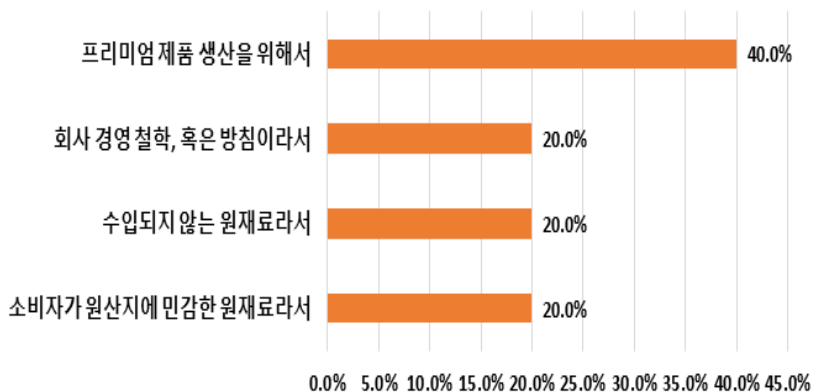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부록-4〉 수입산 원료 사용 이유(명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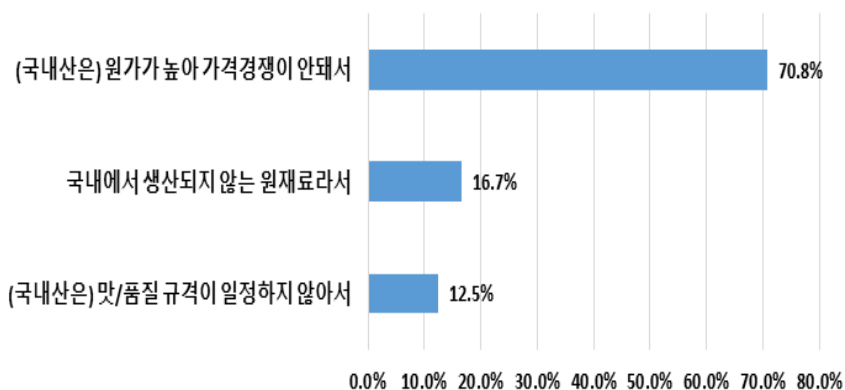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부록-5〉 국산 원료 사용 이유(오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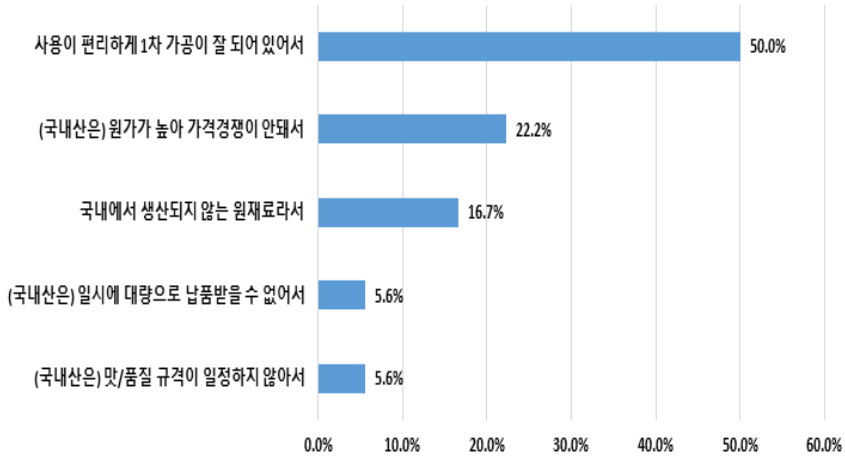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부록-6〉 수입산 원료 사용 이유(오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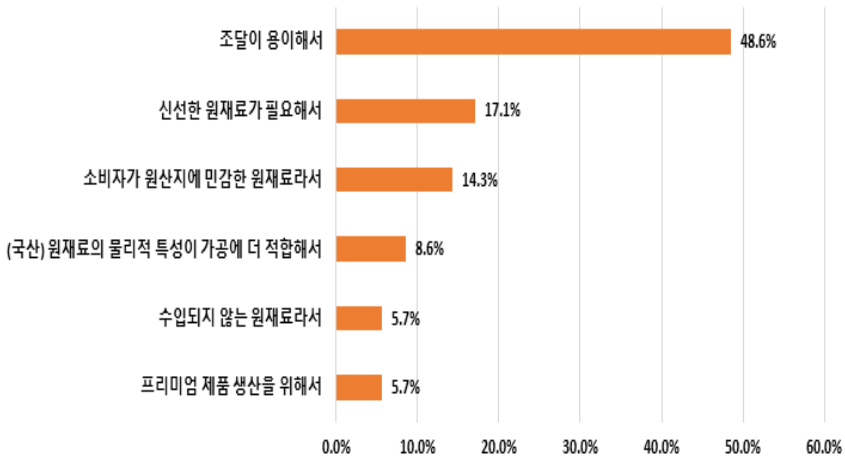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부록-7〉 수입산 원료 사용 이유(어육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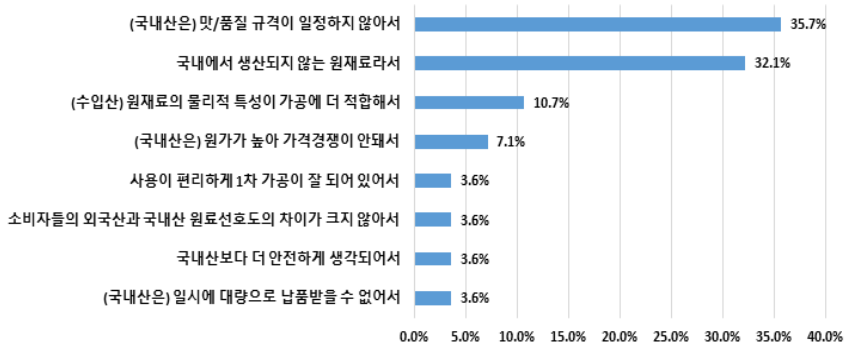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부록-8〉 국산 원료 사용 이유(참조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부록-9〉 수입산 원료 사용 이유(참조기)



자료: 저자 작성

〈표 부록-1〉 수입산 수산물 원료의 단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고등어)

(단위 : %)

구분	수입국 수산물 생산량	물류비용	환율	관세율	수입산 원료 사용하지 않음	합계
1순위	30.0	25.0	15.0	5.0	25.0	100.0
2순위	26.7	6.7	33.3	33.3	-	100.0
3순위	13.3	46.7	33.3	6.7	-	100.0
4순위	20.0	13.3	13.3	53.3	-	100.0

자료 : 저자 작성

〈표 부록-2〉 수입산 수산물 원료의 단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명태)

(단위 : %)

구분	수입국 수산물 생산량	물류비용	환율	관세율	합계
1순위	75.9	10.3	13.8	-	100.0
2순위	24.1	44.8	31.0	-	100.0
3순위	-	34.5	48.3	17.2	100.0
4순위	-	10.3	6.9	82.8	100.0

자료 : 저자 작성

〈표 부록-3〉 수입산 수산물 원료의 단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오징어)

(단위 : %)

구분	수입국수산물 생산량	물류비용	환율	관세율	수입산 원료 사용하지않음	합계
1순위	53.8	23.1	15.4	-	7.7	100.0
2순위	25.0	50.0	25.0	-	-	100.0
3순위	16.7	20.8	45.8	16.7	-	100.0
4순위	-	4.2	12.5	83.3	-	100.0

자료 : 저자 작성

〈표 부록-4〉 수입산 수산물 원료의 단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어육살)

(단위 : %)

구분	수입국수산물 생산량	물류비용	환율	관세율	수입산 원료 사용하지않음	합계
1순위	10.0	20.0	60.0	-	10.0	100.0
2순위	55.6	38.9	5.6	-	-	100.0
3순위	33.3	38.9	16.7	11.1	-	100.0
4순위	-	-	11.1	88.9	-	100.0

자료 : 저자 작성

〈표 부록-5〉 수입산 수산물 원료의 단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참조기)

(단위 : %)

구분	수입국수산물 생산량	물류비용	환율	관세율	수입산 원료 사용하지않음	합계
1순위	31.4	25.7	11.4	11.4	20.0	100.0
2순위	17.9	17.9	35.7	28.6	-	100.0
3순위	17.9	32.1	28.6	21.4	-	100.0
4순위	25.9	18.5	18.5	37.0	-	100.0

자료 : 저자 작성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5년

01	청색경제 이행지표 개발 및 투자효과 분석	김주현
02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	이슬기
03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여진
04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김미주
05	해양 복합위험의 실효적 대응 방안 연구	민영훈
06	해양 위성정보 활용 방안 연구	조성진
07	수산업 정책 전주기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안지은
08	소비자 맞춤형 식품시장 성장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대응 방안 연구	임경희
09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정명화
10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박혜진
11	수산물 업사이클링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이남수
12	어촌과 연안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바다생활권 도입방안 연구	박상우
13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김병주
14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류희영
15	그린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 대응 방안 연구	전서연
16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다예
17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혜령
18	부산항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김근섭
19	재난·재해 대비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물류공급망 대응 방안 연구	최나영환
20	국제물류시장 공정경쟁질서 확립 방안 연구	김동환

2024년

01	섬·바다·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최일선
02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	좌미라
03	시민친화적 바닷가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정치호
04	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석문
05	특별관리해역 관리제도 재편 방안 연구	최수빈
06	해양관할구역 과세권한의 체계적 배분방안 연구	이혜영
07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오서연
08	수산물 무역(수출입) 단기 전망모형 구축 연구	한기욱
09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이상규
10	어촌다움에 기반한 어촌공간관리 방안 연구	이승혜
11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운임선도거래(FFA)를 중심으로 -	김한나
12	내항상선 해양사고 경감방안 연구	허성례
1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김세원
14	해외 항만터미널 확보 전략 연구	김근섭
15	항만 하역능력의 서비스 수준 개선 연구	이화섭
16	국내 무역항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근섭
17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혜리
18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나영환
19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효과 분석 모형 개발 연구	강무홍
20	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이성우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5년

01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 연구	이정아
02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박수진
03	유기수산물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오서연
04	선원 복지 개선방안 연구 - 선내 급식을 중심으로	허성례
05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을 중심으로	김세원
06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전혜은
07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박상우
08	해양생태계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	정세미
09	해양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육근형
10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 정책 방향 연구	이종필
11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선박 이상 행위를 중심으로	민영훈
12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	김가현
13	부산항 터미널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 효율 개선 방안 연구 - 법·제도 측면 -	김우선
14	새만금호 수질관리 강화 방안 연구	장원근
15	미 상호주의 대응 수산물야 비관세장벽 영향 연구	이정미
16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정아

2024년

01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물협력 체계 개선 연구	이채령
03	해양안보 MDA 체계 구축·활용 방안 연구	민영훈
04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	한장협
05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이슬기
06	부산항 물동량 유치방안 연구	김은우
0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채수란
08	국내 연안여객선 관광·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아
09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순
10	어업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방안	심성현
11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황수진
12	연안 중소선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지원방안	류희영
13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김보경
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한기원
15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장원근
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윤미경
17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신정훈
18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발전방안 연구	권보배
19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전혜은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5년

01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플랫폼 활용 제고 방안 연구	김성은
02	동아시아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자원 조성 방안	이윤정
03	한-아세안 해양협력 전략적 강화방안 연구	최지연
04	수산업 강제노동 규범화 대응체계 구축연구	박찬엽
05	해조류 활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조현주
06	미국 무역환경 변화와 해운·조선산업의 영향 분석 연구	김한나
07	해상운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효과 분석	최영재
08	스마트항만 개발 효과 산정 방법론 연구	안승현
09	항만 수급분석 체계화 및 지침 마련 연구	신정훈
10	비컨테이너 부두 하역능력 산정을 위한 적정 점유율 기준 연구	이화섭
11	국가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거점센터 구축연구	조지성
12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중개 플랫폼 모델 개발	권보배
13	미국 이력 추적 의무화에 따른 수산물 수출기업 대응실태 분석 연구	박혜진
14	AI 활용 글로벌 수산이슈 및 무역전망체계 고도화 연구	한기욱
15	섬어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이상규

Ⅰ 2024년

01	한-북극권 청색경제 협력사업 추진 방안	김임지
02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대응력 강화 연구	박수진
03	해양 지속가능성 시범 평가 연구	최희정
04	Scope 3 기준 원양산업 탄소배출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 원양저연승어업을중심으로	조현주
05	수산물 공급망 관리 개선방안 연구(한태 무역을 중심으로)	한기욱
06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박혜진
07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 연구	최건우
08	연안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김성아
09	한국과 미동부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방안 연구	김가현
10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Ⅲ) - 철광석, 화학공업생산품, 기타광석, 잡화물중심으로	이나영
11	점안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탄소집약도지수(CII) 변화 분석	김보람

기본연구 2025-10

수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인쇄 2025년 12월 29일

발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인 조정희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애드원플러스 (070-4390-3850)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for Seafood Products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